



8

1977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77. 8호

(루게 358)



◆◆◆◆◆◆◆◆◆◆

차 례

◆◆◆◆◆◆◆◆◆◆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인민의 끝없는 영광과 불타는 충성의 노래	2
항일혁명투사의 세계관형성과정을 그리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	7
문학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10
사랑의 물줄기	12
물동가의 진달래 (외 1 편)	13
영원히 충성의 그 길우에서	13
네 마음 땅에 어리어	14
승리한 고지우에서	15
시집 《길이 빛나라, 영광의 사적지여》의 창작전투가 성과적으로 끝났다...17	
사랑의 물소리 들으며	18
영심이	20
긴급수송	32
우리는 만수대언덕을 내려왔다	42
무지개비끼 발머리에서	46
황진포구의 달밤 (외 1 편)	46
시대에 대한 생각	47
동트는 동해선	48
전환	49
혁명송가와 함께	60
이 땅을 지켜, 조국을 지켜... ..	61
뜻이 깊은 대사	62
충성의 노래들이 많이 창작되고있다	64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인민의 끝없는 영광과 불라는 충성의 노래

-서사시 《인민의 위대한 태양》에 대하여-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노래한 서사시 《인민의 위대한 태양》은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널리 애송되고있으며 유일사상교양, 충실성교양의 귀중한 사상정신적교과서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하여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신임과 지지를 얻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여 민족해방과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위업에 불멸의 기여를 하고계시며 고매한 공산주의적품도를 최고의 높이에서 지니고계시는 인민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하기에 경애하는 수령님을 위대한 태양으로 우러러모신 우리 인민의 영광은 끝이 없으며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나아가는 인민들의 심장마다에 충성의 열정은 뜨겁게 불타오르고있다.

이 영광, 이 충성을 대를 이어 심장으로 노래하는 바로 여기에 당의 가수로서의 우리 시인들의 본분이 있으며 숭고한 사명이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조직령도하시여 조국해방을 이룩하시고 착취와 빈궁이 지배하던 이 땅에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우시였으며 휘황한 공산주의미래를 안겨주시는 위대한 태양이시라는것을 서사시는 끝없는 경모와 충성의 열정을 담아 온 세상에 소리높이 노래하였다.

서사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영상을 시적 화폭의 중심에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서 몸소 열어놓으시고 마련하신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에 태어나 경애하는 수령님을 태양으로 모시고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긍지와 민족적자부심을 뜨겁게 노래하였다.

전5장, 머리시와 맺음시로 이루어진 서사시는 제1장 백두산, 제2장 불멸의 위업, 제3장에서는 인민의 아버이를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

히신 불멸의 주체사상과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에 힘을 두어 노래하였으며 제4장 력사의 행군길, 제5장 혁명의 기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계속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줄기차게 노래하여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하시고 고매하신 품모를 폭넓고 깊이있게 노래하였다.

서사시는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의 전폭을 웅건하게 담을수 있도록 조화롭게 구성을 조직하였다.

제1장 백두산과 제2장 불멸의 위업에서는 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나날로부터 사회주의건설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걸어오신 빛나는 혁명적로정을 끝없는 존경과 찬양의 열정을 담아 삼가 노래하였다. 제4장 력사의 행군길과 제5장 혁명의 기치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세폭의 붉은기치를 높이 드시고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미래를 앞당겨나가시며 조국의 통일과 남조선혁명의 승리, 세계혁명의 완성을 이룩해나가는 위대한신 품모를 인민들의 들끓는 충성의 마음담아 힘있게 노래하였다.

서사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헤쳐오신 우리 혁명의 영광에 찬 지난날과 그이의 령도따라 펼쳐질 희망찬 앞날을 웅건하게 펼치는 가운데 제3장 인민의 아버이를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서사시의 제1장 백두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을 벌리시여 주체의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신데 대하여 노래하면서 인류해방의 앞길을 휘황히 밝히는 새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경애하는 수령님께 다함없는 충성의 노래를 드리였다.

영광스러운 주체의 전통에 대한 찬가는 조선혁명의 빛나는 상징으로 솟은 백두산의 숭엄한 형상과 더불어 독자들에게 더욱 큰 감명을 안겨준다.

수천년을 짓밟혀만 살아온 민족의 오랜 숙원이 분화구를 터치고 바위를 녹여 안아올린 성스러운 메부리, 백두산은 서사시의 심화되여가는 형상을 따라 인민의 념원을 한몸에 안으시고 불멸의 주체사상을 밝히시고 위대한 혁명리론과 혁명실천으로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여나가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자욱자욱을 아로새긴

끝없는 영광으로 하여 이 세상 그 어디서나 바라 보이는 가장 높은 주체의 메부리로 찬란히 솟아 오른다.

이처럼 심화되는 서사시의 형상속에서 불멸의 주체사상의 위대하고 심오한 본질과 그 세계사적 의의가 격조높이 노래된다.

서사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시대가 절규하는 물음앞에서 인간의 힘, 인간의 존엄을 혁명의 횃불로 추켜드시였다고 자랑스럽게 노래하면서 위대한 주체사상은 인류사상사가 처음으로 세계의 주인인 인간을 발견한 횃불이라고 긍지높이 선언한다.

주체사상-그것은 조선의 노래
그것은 우리 당의 투쟁의 기치
그것은 수령님 한분만을 모시고 따르는
조선의 확고한 신념이며
그 어떤 난관과 시련 앞에서도
흐릴줄 모르는
조선의 밝은 표정

그것은 우리의 넓이며
우리의 심장이라.
그것은 조선의 자세이며
우리의 쉬임을 모르는 행군나팔소리여라

주체사상-그것은
20세기 항로를 가리키는 라침판이며
인류가 받아안은 혁명의 불!
이는 인류리상의 상상봉우에
인간송가를 올리며
이 지구가 휘날리게 될
영원한 승리의 기치!

서사시는 주체의 위대한 사상을 신념으로 새기고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하는 우리 혁명대오의 기상을 자랑스레 노래하면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조선의 노래로, 우리 당의 투쟁의 기치로 열렬히 구가한다.

우리의 넓이며 심장, 조선의 자세이며 우렁찬 행군나팔소리, 시대의 항로를 가리키는 라침판-이 모든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심오한 진리를 밝힌 불멸의 주체사상이야말로 인민대중의 사고와 혁명실천의 근본지침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옳바로 풀어나가는 유일한 길과 혁명의 방법론을 뚜렷이 밝혀주는 주체시대의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이라는것을 참신하고 함축된 표현속에서 참으로 힘있게 올려주고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혁명의 횃불로 추켜드시고 력사의 메두리밖에서 수천년을 버림받아오

던 근로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인으로 내세우시고 력사의 새시대, 영광스러운 주체시대를 열어주신 위대한 수령님.

하기에 주체의 태양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다함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서사시는 노래한다.

노래하라 백두산이여
.....
너는 그이를
너의 상상봉우에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려고
이 땅우에 거연히 솟아난것 아니더냐

그리하여 우리는 주체의 태양을 모신 조선인민의 무한한 영광과 행복을 한껏 느끼며 만대에 길이 솟아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노래할 주체의 상상봉-백두산의 자랑스런 위용을 가슴마다에 새겨안게 되는것이다.

서사시는 제2장 불멸의 위업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된 이 땅우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혁명과 건설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신데 대하여 무한한 긍지와 자부에 넘쳐 노래하면서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인류해방위업에 위대한 공헌을 하고계시는 령도의 천재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축하와 노래를 드리였다.

서른두해전 그때까지는 아직 지도우에 이름도 없던 조선이 어찌하여 신비로운 별과 같이 빛을 뿌리며 동방일각에 거연히 솟아오를수 있었으며 수천년동안 자연을 개척해온 인류가 아직도 횡포한 그 자연앞에서 아우성치며 삶의 기로에서 헤매이고있건만 어찌하여 조선에서만은 대비약, 대혁신의 노래가 더욱더 광범하게 울리는것인가.

서사시는 이 물음에 자랑스레 대답한다.

그것은 령도의 천재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였기때문이라고,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 계시여 인류가 걸어온 수천년의 걸음을 단 한세대에 넘어선것이라고.

시는 해방된 조국이 경애하는 수령님을 맞이하였을 때 질신에 토스레웃을 걸친채 그이를 모실 따뜻한 방 한간조차 마련하지 못하였던 우리 인민의 어제날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공산주의를 향하여 남먼저 나아가는 주체의 나라도 변모된 오늘의 놀라운 전변을 강한 대조속에서 인상깊이 제시하면서 무한한 자부와 긍지를 안고 인류가 맞이한 령도의 천재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찬양하고있다.

시는 특히 언제나 인민을 믿으시고 인민과 함께 계시며 지난날 천대받고 억눌려온 우리 인민을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으로 세워주시고 혁명의 위력한 무기, 당과 주권과 혁명

무력을 마련해주셨으며 몸소 혁명과 건설의 진두에 서시여 인민들을 기적과 위훈으로 불러일으킨 우리 수령님의 주체적인 령도방법, 인민적 령도예술의 특질을 우리 혁명의 길우에 새겨진 잊지 못할 사적들과 더불어 감명깊이 노래하였다.

해방된 이 땅, 한산하고 어수선한 작업장을 몸소 찾으시여 로동자들에게 나라의 주인은 동무들이라고 말씀하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

인민들의 앞장에서 몸소 조국의 첫모를 내시고 조국건설의 첫삽을 뜨시며 조국창업의 세찬 열풍을 온 강산에 불러일으키시는 경애하는 수령님.

전쟁의 폐허우에 종파들까지 땅에 도전하여나섰던 그때 오로지 인민대중을 믿으시고 동무들과 함께 있으면 신심이 생긴다고 하시던 어버이수령님.

잊지 못할 그날의 그 사연을 화폭마다에 수놓아 노래하면서 서사시는 인민을 이끄시여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인민적본질을 감명깊이 형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아래 이 땅에서는 가장 심각한 두 사회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빛나게 수행되고 혁명의 길우에는 위훈의 탑이 높이 솟아오른다.

인류는 조선의 기적을 통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지름길을 뚜렷이 바라본다.

서사시는 호방한 정론적음조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비롯한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들이 제시된데 대하여, 천리마의 대진군운동이 벌어진데 대하여, 공업과 농업, 교육과 문화 등 인민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비약과 전변이 일어난데 대하여, 수백년을 걸려야 할 공업화의 위업이 불과 14년만에 이룩된데 대하여 줄기차게 구가하면서 이 땅우에 일대 통성과 번영의 시기를 열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우러러 열렬한 찬양의 노래를 드리였다.

조선땅에서 일어난 기적의 역사를 궁지높이 강조하는 시의 정론적음조를 따라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비약의 나날을 달려온 끝없는 자랑과 행복을 가슴뽕듯이 느끼게 된다.

서사시는 제3장 인민의 어버이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는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존경, 신뢰의 감정을 양양시키면서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시고 우리 인민을 끝없이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에로 이끌어주오계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 흠모의 노래를 바치였다.

시는 우리 인민모두가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속에 한형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조국을 크나큰 사랑의 조국이라 부르면서 한없는 감격에 넘쳐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 인민모두의 친어버이로 우러른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베푸시는 자애로운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그 옛날 지지리도 못살고 너무나도 험벗어 가난의 상징으로 불리워온 이 나라 인민이었기에 남들이 하나를 누리면 열을 주시고 백을 주시는 그토록 극진한 사랑, 인민들이 누리는 생활의 구석구석마다에, 그 크고작은 가지가지에 한결같이 미쳐있는 것처럼 세심하신 사랑, 인민의 행복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며 인민속에 계시는것을 더 없는 기쁨과 휴식으로 생각하시며 평생에 쌓인 로고도 푸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겁고도 뜨거운 그 사랑.

노래로는 다 전할수 없는 크나큰 그 사랑, 그 은정을 받아안은 인민의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담고 서사시의 음조는 감격으로 설레인다.

서사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이 인간에게 베푸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노래임을 보여준다.

항일전의 그날, 영웅적으로 희생된 옛전사의 유자녀를 서른해 긴긴세월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끝끝내 찾아내시여 크나큰 은정을 돌리시는 격동적인 화폭이 여기에 있다.

-어디 가 있다가
인제야 이렇게 온단말이냐!
내가 너를
30년이나 찾았는데...
.....

그리고 기쁘시여
두팔을 벌리시며 마주가시는
그이의 품에
와락 달려가 안기며
《아버지!-》
목메여 부르는 울음소리,
아, 사랑의 품에 안기며
자식의 가슴에서 터지는
크나큰 삶의 메아리여,

이것이 어찌 한 혁명전사의 유자녀에게만 돌려지는 사랑이겠는가.

이 화폭이야말로 우리 인민모두를 한품에 안아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의 위대한 태양으로서의 거룩하신 영상을 가슴뜨거이 전하는 불멸의 화폭이다.

하기에 시는 이 감격적인 화폭을 두고 인간을 위한 가장 고결한 의리와 숭고한 믿음, 인간에게 베푸시는 위대한 사랑의 노래라고 격동적으로 노래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은 어찌하여 그토록 한계를 모르고 날을 따라 더욱 뜨거워만지는것인가.

시는 잊지 못할 생활의 체험을 타고 깊이있는

시적분석을 주면서 이에 대한 심오한 해답을 내린다.

나라가 해방되면 그날엔 민족의 숙원이 다 풀린줄로 알고 그토록 기뻐하던 우리였으며 땅을 주시고 공장을 주시고 나라의 주인으로 세워주실 때 또한 인민의 념원이 다 풀린줄 알았던 우리였다.

사회주의락원의 주인으로서 이제는 더 부러운 것 없이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의 심정이건만 어찌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땅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사시장철을 길우에서 보내시고계시는가.

여기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속에 살아온 우리 인민모두의 체험의 진실이 흐르고있다.

파연 어찌하여 어버이수령님의 품은 것처럼 끝도 한계도 없이 사랑의 해빛을 더욱더 따사로이 뿌려주는것인가.

서사시는 노래한다.

그것은 이 땅우에서
힘든 로동의 마지막 흔적을 가져주는
위대한 은혜의 손길,
인간자주의 노래
영원한 창조의 노래,

그것은 우리 인민을 안고
공산주의미래에로 흘러가는
창업하고 도도한
사랑의 대하,
그 대하우에 높이 울리는
인간해방의 승리의 송가여라,

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위대함과 그 깊이깊은 뿌리를 숭엄하게 펼쳐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부여주시는 사랑, 그것은 우리 인민모두를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에로 이끌어 공산주의봄언덕에 세워주시려는 위대한 사랑에 뿌리박은것으로 하여 세상에 다시 없는 영원하고 거대한 사랑으로 되는것이다.

하기에 우리는 력사가 흘러 반만년 어느 세월, 어느 세대에도 받아본적이 없는 무한대한 행복과 영광속에 살고있으며 은혜로운 태양아래 온 나라가 하나의 형제로, 동지로 뭉쳐 그 사랑 그 은덕을 천만년 길이길이 노래하는것이다.

서사시는 제4장에서부터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오늘과 래일을 승리의 앞날에로 끊임없이 이끌어나가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구성이시며 인민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충성의 노래를 드린다.

제4장 력사의 행군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계속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웅심깊이 노래하면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날로부

터 온갖 민족적, 계급적 원수들과의 투쟁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오시였으며 오늘은 3대혁명의 기치높이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 미래에로 인도하시는 불면불휴의 로고와 투쟁에 대하여 무한한 경모와 충성의 노래를 드리였다.

행복한 세상을 마련하셨으니 인젠 좀 쉬어주실 것을 간청하는 외국의 한 손님에게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

-나에겐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빼앗긴 절반땅을 찾아야 하며

사회주의 더 높은 봉우리를 점령해야 합니다.

.....

-나의 생활철학은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에 접한 순간 크나큰 충격속에 경애하는 수령님을 우러르는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천만의 메아리로 지축을 울리는 차바퀴소리, 혁명의 기적소리 높이 울린다.

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의 생활철학을 기나긴 반세기 피어린 혈전과 간고한 투쟁의 언덕을 넘어왔으며 오늘은 3대혁명의 기치높이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조선혁명의 행군길을 줄기차게 펼쳐오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활동로정과 더불어 웅심깊이 노래한다.

간고한 혈전의 길, 일제의 백만대군의 공세를 혁명의 공세로 짓누르시고 해방의 새날을 불려오시였으며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오만한 미제를 혁명전쟁의 포화로 짓부시며 제국주의침략사를 제국주의멸망사로 바꾸신 위대한 수령님.

자주성을 짓밟는 인민의 원수들을 쳐부시고 다시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시려 인민을 위한 그 모든 사업을 혁명으로 선언하시고 혁명의 진군로를 공산주의미래에까지 줄기차게 이어주시였으며 행군에서 행군으로 나아가는 대오의 진두에 언제나 서계시는 혁명의 영재, 위대한 수령님.

모진 서리와 강추위, 무서운 홍수와 왕가물로 세계가 아우성치는 오늘을 내다보시고 밀려드는 한랭전선을 막아 인민의 뜻대로, 조선의 뜻대로 자연을 길들이고 복종시키시는 거창한 혁명투쟁을 승리에서 승리로 밀고나가는 위대한 수령님.

3대혁명의 기치를 시줄마다에 자랑차게 휘날려가며 서사시는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령역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 계속혁명의 정신을 억세게 노래한다.

한고지를 넘으면 인민의 숙원이 풀린 땅에서 단 하루밤이라도 쉬어가실수도 있으시련만 더 높은 고지로, 인민의 념원과 리상이 완전히 꽃피는 날까지 력사의 행군길을 쉬임없이 다그쳐가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을 그 무엇에 비겨 노래할수 있으랴.

동터오는 새벽 바다를 바라보시며 백사장을 거니시는 아버지수령님의 거룩한 영상이 숭엄하게 모셔진다.

서사시는 찬란히 밝아오는 조선의 려명속에서 온 사회를 주체의 붉은 빛으로 물들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토록 바라시고 갈망하시는 공산주의 새 아침이 이 땅우에 반드시 밝아오리라는 굳은 확신을 인상깊이 강조하였다.

서사시는 이어 제5장 혁명의 기치에서 남녘땅 겨레들의 고통을 헤아리시는 민족의 태양,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심려와 극진한 사랑을 노래하면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통일방침을 받들어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의 장엄한 투쟁의 흐름을 노래하였으며 세계혁명의 탁월한 전략을 밝히시고 혁명하는 세계인민들을 자주의 궤도우에 올려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을 만민의 태양으로 우러러마르는 세계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담았다.

이 나라 북변의 기슭으로 남해의 파도가 흐느끼며 안겨오는데 갈라져 서른해 이 나라 인민의 고통을 한가슴에 안으시고 아버지수령님께서 자신께서 우리 인민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조국의 통일이라 말씀하시면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의 3대원칙으로 조국통일의 새 돌과구를 열어놓으신다.

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통일방침에 담겨진 주체의 신념, 철석같은 의지, 뜨거운 동포애를 뚜렷이 밝히면서 갈라진 민족의 가슴에 통일의 세찬 불길을 지퍼준 해불로 그 거대한 의의를 노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통일의 대화가 되어 파도치는 남녘땅 인민들, 그들이 심장으로 부르는 흠모의 노래, 엄숙한 충성의 맹세 가슴뜨거이 울려퍼진다.

서사시의 화폭은 세계혁명에로 펼쳐져간다. 대륙과 대양을 넘어 주체의 해발이 비쳐가는 그 모든곳에서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노래소리 장엄하게 울려온다.

온 누리에 퍼져가는 혁명송가의 노래소리,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드신 주체의 기치아래 인간의 존엄을 찾은 사람들의 심장의 노래이며 침략과 략탈에 미쳐날뛰는 제국주의아성에 마지막포화를 들썩우는 새력사의 장엄한 메아리이다.

-주되는 창끝을 미제에게!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은 단결하자!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 따라 나아가는 새 시대의 거류,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자주의 나라, 주체의 조국으로 끝없이 달려오는 뜨거운 마음들을 담은 시의 마지막 화폭은 만민의 위대한 태양, 온 누리에 빛을 뿌리는 주체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시대의 송가로 높이 울린다.

서사시는 맺음사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영상을 우러러 영광의 노래 드리는 인민의 마음, 아버지수령님 계시여 삶의 보람도 빛나는 미래도 있음을 심장깊이 간직한 인민의 신념을 강조하면서 오직 인민의 영원한 태양,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를 높이 모시고 받들며 수령님의 혁명전사로 억세게 싸워갈 충성의 엄숙한 맹세를 다지였으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인민의 념원을 담아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한다.

이처럼 서사시 **《인민의 위대한 태양》**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인민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김일성** 동지의 숭고한 영상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 위대하신 인민적풍모를 폭넓고 깊이있게 노래한것으로 하여 높은 사상에술적성과를 거두었다.

참으로 서사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신 사상의 천재, 령도의 천재로서의 위대하신 풍모, 그이께서 지니신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 인류해방의 그날까지 쉬임도 답보도 모르는 계속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웅심깊이 노래함으로써 대를 두고 노래하여도 다함이 없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혁명적시가예술의 화폭에 모시는 데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우리 인민의 심장의 노래로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시인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깊이있게 체득하고 그것을 진실하게 재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아버지수령님을 태양으로 우러러모시고 하늘땅의 끝까지 따르려는 전체 인민의 다함없는 감정의 진실에로 깊이 파고들어 그것을 자기의것으로 확고히 만듦으로써 이루어진것이다.

시대의 송가-우리의 혁명적서사시문학은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를 열어놓으시고 그 앞길을 휘황히 밝히시며 힘있게 이끌어나가는 주체의 태양,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대를 이어 끝없는 흠모의 노래, 충성의 노래를 드리는 그 길우에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빛내어나갈것이며 새로운 더 높은 전진을 이룩해나갈것이다.

리수립

항일혁명투사의 세계관형성과정을 그리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을 힘있게 이끌고나가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혁명문학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어 최근 다시금 우리 작가들에게 혁명적문학창작에서 탁월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번 교시에서 특히 항일유격대의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혁명가의 혁명적세계관 형성과정을 잘 그릴데 대한 사상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는 항일혁명투사의 혁명적세계관 형성과정을 보여주기 위하여 어떠한 생활과 투쟁을 그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항일유격대의 생활과 투쟁을 그리는것은 혁명투사의 혁명적세계관 형성과정을 보여주는데서 나서는 관건적문제이다.

항일유격대의 생활과 투쟁을 그려야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나고 키워진 항일혁명투사의 혁명적세계관 형성과정을 보여줄수 있다. 그러므로 항일유격대의 생활과 투쟁을 그리는가 그리지 않는가 하는것은 작품에 어떤 생활을 묘사할것인가 하는 문제로만 되는것이 아니라 혁명투사의 혁명적세계관 형성과정을 그리는가 그리지 않는가 하는 문제로 된다.

항일유격대의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혁명투사의 혁명적세계관 형성과정을 그릴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사상은 항일혁명투사의 혁명적세계관 형성과정과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 형성의 합법칙성에 대한 명철한 분석에 기초하고있는 탁월한 사상이다.

항일유격대의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항일혁명투사의 혁명적세계관 형성과정을 그려야 하는것은 우선 그 생활과 투쟁이 그들의 혁명적세계관 형성에서 결정적자리를 차지한다는 사정과 관련되어있다.

항일혁명투사들의 혁명적세계관은 항일유격대의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형성되였다.

물론 항일유격대에 입대하기전 생활도 항일혁명투사의 혁명적세계관 형성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지는것이 사실이다.

입대전 생활을 통하여 그들은 일제통치하의 조선사회의 비참상과 인민의 고통을 어느정도 인식하고 민족적,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증오와 반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마침내 혁명할 각오를 다지게 되었던것이다. 그러나 입대전 생활이 그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에서 아무리 중요하고 또 극적인 체험으로 가득차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울수 있게 된것은 전적으로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자애로운 품에 안겨 유격대생활을 시작할 때부터이다.

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교 령도하시는 항일유격대에 입대하여 생활하고 투쟁하는 과정에 것처럼 고상하고 견결한 항일혁명투사로 자라났다.

참으로 항일유격대는 평범한 노동자, 농민들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준 위대한 혁명대학이였다.

오직 이 위대한 대학을 통해서만 혁명투사들이 혁명가, 공산주의자가 갖추어야 할 사상정신적 품모를 원만히 갖추게 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다만 일제침략자들을 쳐부시는 혁명전사였을뿐아니라 인민을 교양하고 선동하는 선전자, 인민을 조직동원하는 조직자였다.

이러한 품성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하고 수령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노동계급의 첫 혁명적 무력이였으며 인민과 혈연적련계를 맺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싸우는 인민의 군대였던 항일유격대오안에서만 형성될수 있었던것이다.

그러므로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세계관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 가장 중요한 체험은 바로 항일유격대에서의 생활과 투쟁이다.

이로부터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세계관 형성 과정을 그리자면 무엇보다도 항일유격대의 생활

과 투쟁을 잘 그려야 하는것이다.

항일유격대의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항일혁명투사의 혁명적세계관 형성과정을 그려야 하는것은 또한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 형성의 합법칙성으로부터 제기된다.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은 사람마다 각이하고 다양하지만 여기에는 공통적인 일반적합법칙성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 형성의 합법칙적과정과 그 단계를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은 세 단계를 거쳐 형성된다. 그 첫째단계는 사회현상의 본질을 인식하는 단계이며 그 둘째단계는 착취계급과 착취사회를 미워하는 사상을 키우는 단계이며 그 셋째단계는 혁명할 각오를 가지는 단계이다.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은 혁명적각오를 가지는 데서 기본적으로 수립된다고 말할수 있지만 혁명적세계관을 완전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혁명투쟁속에서 계속 단련하고 끊임없이 혁명적수양을 쌓아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이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혁명적각오를 가지는것과 함께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하며 혁명임을 수행하기 위한 방도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고 집단과 동지를 사랑하며 혁명적조직규율을 자각적으로 지킬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가, 공산주의자로서 갖추어야 할 사상정신적품모를 다 갖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혁명적세계관이 완전히 섰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혁명할 각오를 가지는 동시에 혁명투쟁에 참가하여 강한 혁명적의지를 키우고 혁명의 수행방도를 알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혁명적동지애, 조직규율을 자각적으로 지킬줄 아는 혁명적조직성을 체득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 혁명가, 공산주의자로서 갖추어야 할 사상정신적품모를 다 갖추수 있으며 혁명적세계관을 완전히 세울수 있다.

그런데 항일혁명투사들은 혁명적각오를 가진

다음 혁명적세계관을 항일유격대에 입대하여 생활하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확고히 수립할수 있었다.

그들은 항일유격대의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서만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이 갖추어야 할 모든 사상정신적품모를 갖추어나갔다.

그러므로 항일혁명투사들이 혁명적각오를 가진 다음 혁명투쟁속에서 혁명적세계관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완성해나가는가 하는것을 보여주자면 항일유격대의 생활과 투쟁을 그려야 하는것이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 형성의 합법칙적요구와 항일혁명투사의 혁명적세계관 형성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바로 여기에 항일유격대의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항일혁명투사의 혁명적세계관 형성과정을 그럴데 대한 사상의 진리성과 정당성이 있다.

항일유격대의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항일혁명투사의 혁명적세계관 형성과정을 그럴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사상은 다음으로 혁명문학창작의 근본문제에 대한 심오한 통찰에 기초하고있는 탁월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우리 혁명문학의 고상한 사명은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 수립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 수립에 이바지하는 혁명적작품을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혁명과 새 생활 건설의 참된 주인공들,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하여야 하며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업은 항일혁명투사의 전형을 창조하는것이다.

항일혁명투사의 전형 창조에서는 그들이 혁명가로 자라나는 모습을 그리는데 특히 창조적주목을 돌려야 한다.

항일혁명투사의 혁명적세계관 형성과정을 보여주는 혁명문학창작에서 중심고리로 나서는것은 바로 항일유격대의 생활과 투쟁을 그리는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항일유격대의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혁명화되어가는 과정을 그리지 못하면 소설에서 심장이 빠진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만일 항일유격대에 들어오기전까지의 생활만을 생동하게 그리고 항일유격대에서 생활하고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거나 또 혁명투사로서의

강의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유격대에서의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그러한 혁명투사로 어떻게 자라났는가 하는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작품은 가운데 부분이 텅 비어 심장이 빠진것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심장이 없는 사람이 산 인간일수 없듯이 심장이 빠진 작품은 혁명적작품으로 될수 없다.

항일혁명투사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 심장을 가진 참다운 혁명문학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항일유격대의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주인공의 혁명적세계관 형성과정을 그려야 한다.

이것은 항일혁명투사의 성격 발전, 혁명적세계관 형성의 요구인 동시에 생활의 논리에 기초한 작품의 생리이다.

이러한 요구, 이러한 생리를 무시하고는 절대로 항일혁명투사의 혁명적세계관 형성과정을 그린 혁명적작품을 창작할수 없다.

오직 항일유격대의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혁명투사로 자라나는 과정을 그릴 때야만 작품이 심장이 있는 혁명적작품으로 될수 있으며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 수립에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다.

오늘 우리 작가들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항일유격대의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항일혁명투사로 자라나는 주인공들의 혁명적세계관 형성과정을 그럴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의 생활을 형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그들이 혁명가로 자라나는 과정을 진실하게 그리는것입니다.》

항일유격대의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항일혁명투사의 혁명적세계관 형성과정을 보여주기 위하여서는 주인공이 전투에 참가하여 용감하게 투쟁하는 모습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기뻐하는 장면, 부대가 어느 농촌마을에 주둔하여 군중정치사업을 능란하게 조직하며 예술소조활동을 흥겹게 진행하는 장면 등을 잘 그려야 한다.

동시에 군정학습을 통하여 주인공이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어떻게 준비되는가 하는것을 생동한 실례를 들어 전개하여 묘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인공이 어느 전투에 참가했다거나 군정학습에 얼마동안 참가했다고 한마디씩 스치는

식으로 그려서는 혁명투사의 혁명적세계관 형성과정을 보여줄수 없다.

그리고 주인공이 보통대원으로부터 소대장으로 된다면 소대장으로서의 생활은 물론 그렇게 성장해가는 과정을 잘 그려야 한다.

항일유격대의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혁명가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감명깊게 그리는것이다.

항일혁명투사들은 항일유격대에 입대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주체사상의 원리 혁명의 진리를 배우고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을 체득한것만큼 경애하는 수령님의 품속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혁명투사로 자라나는가 하는것을 그려야 그들의 혁명적세계관 형성과정을 옹계 보여줄수 있다.

뿐만아니라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적재부인만큼 혁명전통의 본질적내용을 옹계 보여주기 위해서는 혁명전통주체의 작품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주체사상의 위대성,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깊이있게 형상해야 한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을 빛나게 형상하며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키워나가는 항일혁명투사의 생활을 그리는데 온갖 창조적열정을 기울여야 한다.

항일유격대의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세계관 형성과정을 그럴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은 항일혁명투사의 전형 창조와 혁명적세계관 형성과정의 형상에서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혁명적문학건설의 강력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사상은 혁명소설과 혁명문학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 될뿐만아니라 혁명적문제 리론발전에 불멸의 기여를 한 독창적인 사상리론적재부로 된다.

우리 작가들은 항일유격대의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세계관 형성과정을 잘 그럴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계속 깊이 연구체득하여 공산주의자의 전형창조에서 올바른 창작적 립장과 자세를 확립하고 혁명문학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장형준

문학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문학은 주체문학의 참다운 본보기로 급속히 발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중교양과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에서 문학이 노는 기능과 역할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언제나 문학을 모든 예술종류들에 앞세워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일관하게 내세우시였다.

언어예술인 문학은 다른 예술종류들에 비하여 시공간적제약을 받지 않고 인간과 그 생활현실을 마음껏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할수 있다.

문학은 근로자들에게 주는 사상미학적영향력이 클뿐아니라 다른 예술종류들을 발전시키는데서 기초로 된다.

문학을 앞세워 발전시켜야 그에 기초하여 좋은 영화와 가극을 비롯한 자매예술을 성과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다. 좋은 소설이 있으면 그에 기초하여 영화문학과 극작품을 얼마든지 훌륭하게 만들어낼수 있다.

그러므로 문학을 앞세워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의 합법칙적요구로 된다.

혁명발전의 매단계마다 우리 문학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돌려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최근에 또다시 우리 문학을 혁명발전의 요구와 사회주의의 본성에 맞게 군중적지반우에서 더욱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군중문학발전을 위하여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육친적배려에 접한 우리 작가들은 그이께서 내세우신 문학예술의 대중화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예술을 옹게 발전시키려면 예술을 대중화하여야 합니다. 예술을 대중화하여 공장과 농촌의 광범한 근로자들이 예술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하여야 우리의 예술을 참다운 인민적예술로 만들수 있고 빨리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전적으로 정당한것입니다. 동무들은 우리 당의 이 방침을 높이 받들고 예술을 대중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문학예술을 군중적지반우에서 발전시킬데 대한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그를 우리 당 문예정책의 확고한 원칙의 하나로 내세우시였다.

문학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우리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군중문학발전을 위하여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육친적배려에는 우리의 주체문학을 군중적지반우에서 건전하게 발전시키시려는 그이의 크나큰 뜻이 구현되어있다.

사회주의하에서는 혁명과 건설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학도 광범한 근로대중속에 뿌리박아야만 진정으로 당적이고 로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으로 개화발전할수 있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또한 근로대중의 참가밑에서만 전문가가 따로 없게 될 공산주의사회의 문학을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다.

군중문학발전을 위하여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에는 근로대중을 정치, 경제 생활분야에서뿐만아니라 문화생활분야에서도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되게 하며 그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되게 하시려는 숭고한 뜻이 구현되어있다.

로동하는 사람들자신이 사회주의문화의 향유자로 될뿐아니라 그 참다운 창조자로 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 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사상혁명의 위력한 수단이며 문화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인 혁명적문학을 창조하는 과정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당정책의 정당성을 체득하는 과정이며 자기의 사상문화적소양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 과정으로 된다.

그러므로 군중문학을 발전시키는것은 온 사회를 혁명화하고 문명화하기 위한 우리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로 된다.

참으로 군중문학을 발전시키는것은 문학을 대중화, 생활화하고 전국을 문학예술화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으로 된다.

우리 작가들은 문학예술을 대중화하기 위한 투쟁이 곧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문예정책을 옹호관철하며 우리 문학을 급속히 개화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이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문학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창작사업에서 신비주의를 마스고 광범한 군중을 문학예술창작사업에 적극 인입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문예활동에서 전문일군본위로 나가려는 경향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하며 창작사업에서 신비주의를 마스고 문학예술을 군중적으로 널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창작사업에서 신비주의를 마스고 문학예술을 군중적으로 널리 발전시키는것은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재능을 적극 동원하여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을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발전시키며 그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작가들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생활을 깊이있게 체험하면서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일하고있는 사회주의건설자들과 조국보위초소에 서있는 군인들, 혁명의 후비대로 억세게 자라고있는 청소년학생들을 문학예술창작사업에 적극 인입하며 그들의 문예창작활동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들끓는 현실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반영한 다양한 주제의 특색있는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고 인민들의 비위와 감정에 맞는 여러가지 예술형식들이 널리 탐구되어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을 더욱 다양하고 풍만하게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장성하는 사상미학적요구에 원만한 대답을 줄수 있다.

광범한 군중을 문학예술창작사업에 적극 인입하며 문학예술을 군중적토대우에서 발전시키는데서 특별히 중요한것은 혁명의 령도계급인 로동계급을 이 사업에 널리 참가시키며 그들속에서 혁명적이며 로동계급적인 문학예술의 본보기가 창조되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계급관계의 견지에서 보면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를 자기의 모양대로

로 개조해나가는 과정, 다시말하여 로동계급화하여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로동계급속에서 혁명적이며 로동계급적인 문화의 본보기를 창조하여 그것이 도시로 흘러들게 하는것은 문화령역을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기 위한 전략적요구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동계급속에서 혁명적이며 로동계급적인 문학예술작품의 본보기가 창조되도록 이 사업을 백방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을 문학예술창조사업에 적극 인입하는데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그들속에서 문학창작운동을 널리 벌리며 그들로 하여금 해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군중문학작품현상모집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는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가는곳마다에서 근로자들의 문학창작활동을 적극 지도방조하며 그들로 하여금 군중문학작품현상모집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그들을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속에서 재능있는 작가후비를 많이 키워내는데 심중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자들속에서 재능있는 후비들을 많이 키워 작가대렬을 끊임없이 새로운 력량으로 보충확대하는것은 우리 문학을 건전한 토대우에서 발전시키며 우리 문학발전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전문작가들만이 작품을 쓸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업을 작가들에게만 맡기려는 신비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군중문학창작운동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문학예술이란 결코 신비한것이 아니며 중학교만 나오면 누구나 다 자기가 느끼고 생각한것을 쓸수 있다.

더구나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11년제의 무교육의 혜택으로 새세대들은 누구나 중등교육을 받고있으며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도 성과적으로 관철되고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심화되어감에 따라 우리 근로자들의 문화수준이 상당히 높은 정도에 이르고있을뿐아니라 그들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실천투쟁에서 풍부한 생활경험을 많이 쌓아나가고있다. 이들을 좀 도와주면 모두가 작품을 쓸수 있다.

문학작품은 로동속에서 창조되고 근로인민의 보람찬 생활을 옹계 반영해야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줄수 있다.

그러므로 가는곳마다에 문학통신원을 많이 두고 그들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우리 문학발전을 위하여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문학통신원들은 늘 사회주의건설투쟁을 위한 실생활을 벅차게 체험하고있기때문에 오히려 생동한 작품을 쓸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작가들이 공장과 농촌에 내려가 현실을 진지하게 탐구하면서 문학통신원들을 적극 도와준다면 훌륭한 작품이 많이 나올수 있다.

작가들은 문학통신원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당문예정책의 기본내용과 정당성을 알기 쉽게 해설선전해주어야 한다.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고한 항일혁명 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혁명적문예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특히 수령님께서 친필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의 높은 사상예술성을 문학통신원들이 적극 따라배울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 지도방조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소설과 시, 아동문학창작수업에 참고로 될 경험자료들을 적극 이야기해주어 그들의 창작에

구체적인 도움을 실속있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문학작품을 대중속에 널리 보급하기 위한 사업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문학예술작품을 널리 보급하여야 근로자들을 문학예술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게 할수 있다.

문예작품보급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창작의 근본목적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군중문학창작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림으로써 우리 문학이 전문작가들의 활동과 광범한 대중적 창작활동이 밀접히 결합된 공고한 토대우에서 발전하는 참다운 주체문학으로 더욱 개화발전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문학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근로대중이 문학예술의 참다운 향유자로, 당당한 창조자로 되게 하며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을 광범한 군중적지반우에서 더욱 급속히 개화발전시켜나가자.

사랑의 물줄기

리동후

수수천년 땅속으로만 흐르던 너는
해빛밝은 땅우에 솟구쳐 올랐구나
우리의 시대에 태어난 너는
땅과 영원한 연분을 맺었구나

흐르라, 물줄기 물줄기
환희의 노래처럼,
해 뜨는 아침에, 노을타는 저녁에
하늘가득 령롱한 무지개를 걸여놓고

돌격전의 낮과 밤은
불타는 열정으로 세차게 끓어
굴착기 보습날에 불꽃 날리고
곡괭이 삽날에 번개를 일구더니

얼마이나,
논과 밭, 그 어디나
지심깊이 뿌리박은 줄짙들과
굴포와 우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충성의 마음들이 안아올린 지하수
철철 넘치고 넘쳐
다락발 한끝까지 축축히 적시거니
닥치는 가물엔들 끄떡있으랴

흐르라, 물줄기 물줄기
땀흐르는 어깨를 얼싸안고
떠들썩 감격을 터치던 청춘들의 그 모습,
맑은 물 두손으로 떠안으며
아버이사랑의 은혜로움에 젖는 그 마음들이
언듯언듯 어려오는 물길이어!

내 마음도 나래돈쳐
흐르는 물길따라 달리나니
아, 사랑의 젖줄기
그리고 정겨이 속삭이며
땅과 주고받는 뜨거운 그 사연
벌써 너의 물길우에 비졌구나
충충 무르익은 산언덕이,
금나락 일렁이는 황금들판이.

물동가의 진달래 (외 1편)

리일복

해는 떠도 빛이 그림고
꽃은 퍼도 봄이 그림던
칼바람 세찬 조국땅 기슭에
해마다 피어났네, 붉은 진달래

태양을 그리며 애타는
조국의 마음을 담아서
봄을 그리며 굽힘 없는
겨레의 타는 소망 담아서
기다리며 붉게 핀 물동가의 진달래

애타게 바라던 그날은 와
수십만리 불길속을 헤쳐오신 장군님
조국땅 기슭에 첫발을 디디실제
그이를 맞는 온 겨레의 마음이
그이께서 디디실 물동가에
붉고붉은 진달래로 활짝 피어올랐네

그립던 조국땅에 첫발을 옮기시며
장군님 진달래를 품에 안으실 때
꽃과 함께 안겼네, 온 조국도
목메는 향기로 흐느끼면서...

수난속에서도 굽힘없이
그이를 우러러 싸운 조국의 녀이
타는 그 꽃속에 옮겨져
그리도 정다웁게 향기 그윽히
그이의 옷자락에 매달리었네
영원히 헤어짐 없이 살표은
그 간절한 소원을 아뢰이며...

진달래, 진달래!
위대한 장군님 조국진군 첫걸음 디디실제
선참으로 안긴 조국의 첫 꽃이여!
만경대를 떠나시여 수십만리길
자욱마다 그리웁던 조국의 모습으로
향기속에 타오르던 아름다운 꽃이여!

민족의 념원을 고이 지녀
조국의 녀으로 불타올라 피는 꽃이
인민의 마음 담을수 있음을,
한송이 꽃이 조국을 대신할수도 있음을
그립던 장군님 품에 안기여
만천하에 보여준 아, 붉은 진달래!

영원히 충성의 그 길우에서

들꽃이 활짝 핀 언덕을 넘어
다람쥐 숨박꼭질하는 숲속을 지나
투사는 걷는다

어린애 마음으로
꺾어든 꽃송이 향기에 취해보며
처음 오는곳인듯
새로운 눈으로 탐스럽게 둘러보며...

걷는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 받들고
원췌 일제 족치던 어제날 자욱우에
뜨거운 마음을 자국자국 찍어가며...

노래처럼 정다운 두만강 물결소리
싸움의 그날밤을 되새겨주는가

어데냐, 뛰는 가슴 맞대었던 매복지점은,
민족의 분노를련발사격으로 터칠 때
장쾌한 메아리 울리던 밀림이여, 산발이여!

그 언제 싸움이 있었느냐싶게
들꽃은 피고 숲은 무성하고
강물은 줄기차게 와와- 흘러도
투사는 본다, 눈시를 뜨거이
불길 타오르던곳에 일떠선 문화주력들을,
총탄 비발치던곳에 피어난
행복한 삶의 보금자리를...

들꽃 아름답게 피고
행복한 인민의 노래 강산에 넘치는데
어찌하여 투사는 옛 전적지를 찾아와
이리도 눈시를 뜨거이 거니는것이냐!

어머니 품에서 첫걸음 떼듯
위대한 수령님 품에서 싸움의 첫자욱을 떼어
걸어온 세월은 백발을 주었으나
어떻게 잊으랴,
피땀은 청춘의 심장이 처음으로
수령님께 바치는 충성으로 고통친 그 시절을...

그 충성의 첫자국이
타버린 원썬놈들의 경찰서와
쓰러진 놈들의 시체우에 찍혀진곳에서
아, 다시금 옛 전사시절을 더듬으며
그날의 그 마음으로 서있는 투사여!

귀밑머리 흰 지휘관이 되었으나
마음은 결코 늙을수가 없어

전사시절 걸은 충성의 길을
전사의 심정으로 다시 걷는 그 마음,
충성의 첫자욱 떼던 그때 그곳이
정든 고향처럼 하냥 그리워
청춘시절로 다시 돌아온 그 마음!

헤쳐온 혈전의 수천수만리에
앞을 보아도 걸어갈 충성의 길,
뒤를 보아도 걸어온 충성의 길,
티없이 맑은 충성으로만 엮어진
이 길우에서만 참된 삶이 빛뿌리거니

항일의 그날과 다름없는 마음으로
영원한 전사로 충성 바쳐갈
죽어서도 영생할 이 길을 떠나
아, 이 땅우에 걸어갈 다른 길은 없으랴!

네 마음 땅에 어리어

권태여

언제나 들에 살며
땅을 가꾸는 처녀야
농립모 채양아래 불우물 짓는 네 모습
일이 고와 네가 고운 그 마음씨
별에 어리어...

오늘도 추어낸 돌무지 열이 넘건만
이마에 송글송글 땀을 흘리며
도래굽이포전에 돌각담을 쌓은 너

비바람에 씻기는 한줌 흙이 아까와
사나운 물살에 패우는 땅이 가슴아파
땅에 젖고 물에 젖어
흙을 건지고 땅을 건지는구나

땅이 원이고 땅이 눈물이던 그 세월
원한의 보리고개를 쳐다보며
통곡하던 그 목소리 흙에 배인 땅
이 땅을 위하여 목숨바친
렬사들의 숨결이 고통치는 땅

아 그토록 땅이 귀중함을 알기에,
이 땅을 떠나서 다른 땅이 없기에
한치의 땅 한줌의 흙에도

너의 량심, 너의 정성을 수놓아가거니

수령님의 주체농법을 꽃피워가는 기쁨
밤마다 토지법의 조항을 익히며
가슴속 부풀어오르는 꿈에 취해서
풍요한 들판의 설레임소리
한가슴에 껴안던 행복이여

곡식과 땀,
흙과 량심
이 땅과 너는 서로의 기쁨이기에

아, 한치의 땅 한줌의 흙
그것은 우리의 강토, 우리의 재부
이 땅과 함께 변함없을 충성을 안고
조국강산을 꽃과 열매로 덮어가는 처녀야

이 땅의 주인된 그 마음 그 정성이 어리어
토지건설의 대법전속에
너의 청춘, 너의 꿈이
천만나락으로 물결치는 이 땅
이 땅은 그대로
티없이 맑은 네 량심의 거울
어버이수령님께 바치는
불타는 충성의 거울이여라

승리한 고지우에서

로은옥

동해천리, 푸른 물결 설레이는 기슭을 따라 내가 속한 답사단일행은 우리 나라 동북단 여러 혁명전적지들을 차례로 답사하고 이날 서수라전투장소인 만향고개에 올랐을 때는 한낮이 지나서였다. 여기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조국해방의 성전에서 일본놈들의 마지막지령점을 돌파하는 가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아침부터 흐린 날씨가 답사행군에 지장을 줄 것 같아 저어했었는데 정작 다 와닿으니 하늘에는 구름 한점 없이 씻은듯 개이고 가없이 넓은 동해 바다와 함께 두둥실 떠있는 고기배들이 한눈에 안겨왔다.

이렇게 전망이 좋은 자리에 일제침략자들이 영구화점들과 토목화점, 대포좌지를 설치하고 그 근방에는 군항까지 건설하여놓은것이 어찌 우연한것이라는 생각이 나의 머리를 스쳤다.

후에 강사의 해설을 듣고 알았지만 이 고개의 영구화점들은 놈들이 극비에 붙여서 만들어놓은 《숨겨둔 요새》라는 것이었다.

이 화점들을 쏘아보는 나의 눈에는 그 간악하기 그지없고 교활한 일제야수들이 감행한 지난 나날들의 흉계가 다시 꿰뚫려보이는것만 같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족은 과거 36년동안 일본제국주의의 악독한 정치적 압박과 경제적 착취와 문화적 유린 속에서 신음하여 왔습니다.》

놈들은 조선땅을 제놈들의 대륙침략의 교두보로, 우리 민족을 영원한 식민지노예로 만들기 위해 이런 무시무시한 군사요새를 이 산꼭대기에까지 구축해놓고있었다. 보면볼수록 놈들의 포악한 제국주의의 침략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있어서 눈에서는 불이 일고 치미는 분노로 하여 가슴이 저려났다.

그 어떤 폭탄이나 포탄이 떨어져도 깨여지지 않을 영구구조물에 흉물스레 벌린 화점아가리, 이것을 만드느라 산우에 깊은 구멍이를 파고 산 밑에서는 세멘트, 철재, 자갈들을 저나르는 군복입은 쪽바리들이 밟아놓은 더러운 발톱자리를 그대로 보는듯하다.

놈들은 결국 이 고개의 영구화점을 마지막지령점으로 삼았으니 마치도 《대동아공영권》을 꿈꾸면서 조선반도우에 퍼놓은 일제놈들의 폭압기구

의 축소판을 보는듯했다.

바로 놈들은 이렇게 이르는곳마다에 총검의 수풀을 퍼놓고 조선을 하나의 큰 감옥으로 만들었다. 수천년의 유구한 력사국이 보잘것 없는 섬오랑캐놈들에게 너무도 심한 상처를 입었었다. 도란에 빠져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던 그날의 민족의 정상이 가슴저리도록 살아났다. 저런 영구화점들으로써 조선민족에게 수난과 고역을 영원히 강요하려던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과 분노로 하여 저도모르게 두주먹을 부르짖게 하였다.

그러나 민족의 열이 살아있고 조선의 정신이 맥박치고있는 이상 놈들이 제아무리 영구화점을 파놓고 조선민족을 제놈들의 영원한 식민지노예로 만들려고 모든것을 빼앗다못해 우리 말까지 빼앗으려 했지만 그 야망은 영원히 실현될수 없었다.

놈들이 피눈이 되어 세계제패를 요란스레 떠들며 덤벼들 때 우리 민족의 전설적영웅이신 청년명장 **김일성** 장군님께서 주체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드시고 군사를 거느리시여 조국땅에 드리운 암운을 가시고 왜적 오랑캐무리들을 쓸어버리는 혈전만리를 걸고계시었던것이다.

만향고개! 이 한 고개에서 벌어진 치렬한 싸움은 것처럼 아시아의 맹주가 되어보려고 발악하던 대일본제국주의아성이 꺼꾸러진 최후결전의 전투장소로 되였다.

지금 나의 귀전에는 백전백승의 강철의령장 **김일성** 장군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에게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결전으로 총진격할것을 명령하시는 열화같은 호소가 들리는것만 같다.

자나깨나 조국해방을 위하여 활화산이 폭발하는 기세로 서리발총창을 비껴들고 일제의 《철벽의 국경방어선》을 물먹은 흙담처럼 무너뜨리며 사랑하는 조국으로! 조국으로! 일제놈들을 격멸하는 영웅한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멸적의 기상이 눈앞에 안겨온다.

그처럼 그림던 조국땅에 첫발자국을 내딛던 왕재산으로부터 온성과 보천보 그리고 무산지구를 비롯한 이 땅의 수많은 지점들에서 항일혁명선열들의 뜨거운 숨결이 가슴에 울려온다. 그 치렬한 포연탄우속에서도 무릎을 꿇고 한줌의 흙을 움켜쥐고 두볼에 비비며 목메여 눈물짓던 조선인민

혁명군대원들의 그 마음,

그 우박치는 불비속에서 그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였기에 한줌의 흙에 것처럼 불을 비비며 목메어하였던가. 과연 그들에게 남다른 정신적여유가 있어 그렇게 할수 있었던가, 아니면 그들에게 탄우를 피하는 그 어떤 초인간적힘이라도 가지고있었던가.

그들은 보통 조선사람이었다. 딛고 설 한치의 땅이 없고 씨뿌릴 한고랑의 발이 없어 눈물을 뿌리던 지난날의 가난한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이였기에 이처럼 서러웠던 지난날이 되살아나고 해방될 래일의 조국이 너무도 휘황찬란하여 격동된 심정이 그들을 목메이게 하였으리라! 탄우속에 풍찬로숙하던 15년세월을 두고 이처럼 부르며 그리워하던 바로 그들, 항일혁명투사들이 조국으로 진격해온것이다.

그 간고하고 치열한 전화의 나날들에 피흘려싸우다 숨지는 순간에도 조국을 부르며 웃음짓고 영영 그들의 곁을 떠난 수많은 동지들의 얼굴이 눈앞에 다가서는가, 구원을 피타게 기다리는 부모형제들의 소원을 풀어주려 어버이장군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그이의 명령관철을 위해 최후결전장에 발을 디딘 격동된 감격의 기쁨에서인가!

하기에 그들은 총창을 으스러지게 틀어잡고 강도 일제놈들을 격멸하면서 불사초처럼 돌진했다. 36년간의 원한의 복수를 위해, 피흘리며 쓰러진 동지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 놈들을 맞받아 날아오른 그들이였기에 그 힘은 필승불패였다.

그런 강철대오의 노도같은 공세앞에 《황군》의 허세를 자랑하던 관동군, 조선주둔 침략군도 몽둥이 맞은 도적개처럼 갈팡질팡 달아나고 영구화점구멍으로는 흰기를 내걸고 벌렁벌렁 기여나오는 원썩들의 흉물스런 몰골도 바로 이 만향고개 위에 서있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것이였다.

산이 많은 우리 나라는 고개도 많아 원썩들을 무찌르는 싸움에서 이름떨친 고개들이 적지 않지만 일제침략군의 마지막지령점으로 되고있던 만향고개 영구화점들을 단매에 까부신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불멸의 위훈이 아로새겨져있어 세상 이보다 더 자랑높은 고개가 또 어데 있으랴싶다.

참으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떠들던 만향고개에서의 조선인민혁명군이 거둔 청사에 길이 빛날 승리로 하여 웅기, 라진, 남양, 청진을 비롯하여 북반부 전지역에 도사리고있던 일본 《황군》의 존재는 자기의 수치스러운 종말을 고하지 않을수 없었다.

항일혁명전쟁은 우리의 승리로 끝났다. 항일대전 승리의 승리! 우리 인민은 조국을 찾았다.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피맺힌 원한을 풀었다. 인민은 나라의 주인이 되였다.

이 얼마나 애타게 갈망하던 민족의 대념원이었던가, 그 얼마나 목마르게 고대하여 바라마지 않던 우리 인민의 숙원인가!

참으로 항일혁명전쟁의 대승리!

이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칠성관에 올랐던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위대한 승리였다.

오직 이것을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어버이장군님의 혁명로선을 높이 받들고 15성상을 하루같이 일제를 반대하는 싸움의 길에서 뼈를 에이는 엄동설한의 혹한과 굶주림속에서도, 첩첩히 가로막힌 적들의 포위망속에서도,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속에서도 그들은 오직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혁명의 주체의 기치따라 거세찬 행군을 하여왔다.

바로 이처럼 자랑스런 혁명의 터전을 마련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손길아래 우리 조국은 해방을 찾고 우리 민족은 새 조국 건설의 찬란한 력사적인 전환기에 들어설수 있지 않았던가.

감격도 새로워라 그날의 환호!

전설적영웅이신 백두산의 청년장군 **김일성**동지의 승리의 개선을 환영하는 군중대회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승리한 자기 조국에 높이 모시게 된 우리 인민들의 이 감격의 크기를 하늘에 비기랴 땅에 비기랴.

참으로 얼마나 바라고 기다리던 날이며 얼마나 뵈옵고싶던 우리의 수령님이시던가! 천지를 뒤흔드는 열광적인 환호, 그칠줄 모르는 《**김일성**장군님 만세!》 소리는 하늘땅에 진감하여 온 3천리강산을 진동시켰다.

일제파쑏통치의 암담한 수난의 세월, 오직 민족의 태양으로 항상 마음속깊이 흠모하여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버이수령님!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시어 20성상의 기나긴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위대한 승리로 이끄시어 비문에 처하였던 조국의 운명을 구원하시교 민족재생의 길을 열어주신 어버이수령님.

해방된 조선인민을 빛나는 승리로 이끌어주실 우리의 수령님을 바로 지척에서 우러러뵈옵는

우리 인민이 어찌 기쁨의 감동과 감격의 눈물없이 그이를 맞이할수 있었으랴.

참으로 그렇다. 우리 인민이 반만년력사에서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감격을 안고 이처럼 인산인해를 이룬 군중대회를 가져본 력사가 언제 있었던가! 조선민족이 이렇게 큰 기쁨을 누려본것도 처음이었다.

이렇듯 감격이 컸기에 아버지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원무궁토록 변영 부강한 새 조국 건설에 펼쳐나설 온 민족의 신심과 결의는 움직일수 없는 혁명적의지로 되었던것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일제놈들이 패주하면서 보잘것 없던 경제마저도 모조리 파괴하였으나 신심도 드높이 용기백배하여 빈터에서 새 조국 건설에 펼쳐나설수 있지 않았던가.

더구나 요람기에 있던 우리 공화국은 세계에서 가장 포악한 미제국주의가 일으킨 전쟁의 시련도 꿰차고 이겨내고 우리 인민은 승리하였다.

한 나라, 한 민족의 발전력사에서 32년이란 력사는 결코 긴것이 아니다.

그처럼 순탄치 않던 이 짧은 력사적기간에 남들은 100년이나 200년이상이 걸려서 수행한 공업화의 과업을 우리는 단 14년동안에 해제했었다.

어찌 이것뿐이랴. 두차례의 사회혁명도 또 얼마나 빨리 성과적으로 수행되었던가. 세계에서 첫

세금없는 나라가 되었으니 이 자랑, 이 긍지 그 어디에 비기랴.

이런 자랑찬 성과를 놓고 세상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주체의 조국》, 《천리마조선》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는것이다.

만일 그들이 이 성과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고 백번 묻는다면 우리는 백번 다 같은 소리로 높이 웨치리라.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라고.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따라 지난날에도 승리하였고 오늘도 승리하고있으며 래일은 보다 더 큰 승리를 쟁취할것이다.

지금 우리가 서있는 이 만향고개가 세상에서 제일 높아만 보인다.

이 고개에서 동해의 산줄기들이 우줄우줄 키돋움하며 태백산줄기에 뻗어가고 온 남녘의 산줄기들에 이어진다.

그 산봉우리마다에 통일된 조국의 기발 세차게 휘날리고 온 나라 인민들은 승리의 환호성을 올린다....

이 만향고개에서 굽어보이는 망망무제한 동해도 웅심깊은 자기의 물결을 일으켜 조국의 기슭을 감싸주며 이 환호성에 거창한 회답을 올릴것이다.

승리한 조국이어! 그대는 영원히 승리하리라. 동해는 그대의 보다 큰 승리를 지켜보리라...

동맹소식

시집 《길이 빛나라, 영광의 사적지여》의 창작전투가 성과적으로 끝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을 령도하여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였으며 온갖 착취와 압박을 없애는 위대한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였으며 나라의 면모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건설사업을 하였습니다. 당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어려운 투쟁에서 우리 인민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조국과 혁명을 영예롭게 지켰습니다.》

최근 작가동맹 중앙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현명한 령도, 그이의 따스롭고 자애로운 은정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며 우리 인민들을 일련단심 수령님께 대를 이어 충성다하도록 교양하는데 이바지할 영광의 사적지들을 노래한 시 창작전투를 조직진행하였다.

전국의 시인들이 참가한 금번 전투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수천수만리 현지지도의 길, 위대한 사랑의 길에 깃든 불멸의 사적들을 노래한 수십편의 우수한 작품들이 창작완성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강산에 민족재생의 새봄을 안겨주시고 우리 조국을 빛나는 주체의 강국으로 일떠세우시려 현명하게 령도하신 사적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시려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걸으시며 걸음마다 영광으로 불려주시고 자욱마다 승리로 이끌어주신 사적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조직령도하신 영광의 업적들을 노래한 시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토록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에게 끝없이 충성다하려는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인 생활과 투쟁의 참다운 교과서로 될것이다.

사랑의 물소리 들으며

한기원

사람들은 흔히 물을 가리켜 생명수라 하고 흐르는 강물을 두고 어머니의 젖줄기와 비교한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물이 없이는 한시도 존재할수 없고 물이 있어야 생을 유지할수 있기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것은 우리에게 물이 그만큼 흔하기때문이라.

그 옛날 우물주인에게 콩 한되 주기로 하고 물 한동이 길어먹었다던 오수덕사람들이나 가무는 계절이면 설움에 겨운 눈물마저 감자포기에 떨고 싶던 백암령사람들은 물론이고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아래 이 땅 어디 가나 물노래, 풍년노래 차 넘치니 왜 안그렇겠는가.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농사를 망치고 물배급제를 실시하는가 하면 물을 수입까지 해먹고있는 오늘에도 우리는 물걱정을 전혀 모르고 사니 더욱 그렇다.

그러나 우리 인민의 오늘뿐아니라 래일의 행복까지 지켜주시면서 언제나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오늘도 물을 두고 그토록 깊은 심려를 돌리시고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사에 쓸 물을 절약하기 위하여 우물을 파고 지하수를 널리 리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지금 지하수를 리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는데 잘하면 땅속에서 많은 물을 얻을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나라를 관개의 그물로 뒤덮게 하여 우리 나라를 《세계에서 제일 발전된 관개의 나라》로 만들어주시고도 혹시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농사에 쓸 물이 모자라지 않을가, 인민들이 먹을 물이 적지 않을가 심려하시며 오늘은 또 이미 실천적경험을 쌓으신 지하수리용방침에 토대하시여 지하수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몸소 우물자리까지 하나하나 잡아주시면서 높은 령, 험한 들길을 걸으시고계신다.

그이께서 걸으신 력사의 발자취를 찾아 취재길에 오른 나는 개천군 보부협동농장의 어느 한 밭머리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지하수혁명의 불길을 지펴하신 그 길로 몸소 찾아주셨던 보부땅!

그날의 감격을 노래하듯 소형양수기는 가벼운 동음을 울리며 씩없이 지하의 생명수를 퍼올리고 있었다.

억년 땅속에만 흐르다가 맑고 푸른 하늘아래 솟아올라 아름다운 칠색무지개를 펼치고있는 샘물, 그속에서 농사일을 다그치는 농장원들의 기쁨에 넘친 얼굴들,

물소리, 웃음소리, 원동기소리...

정녕 바라보면 한쪽의 그림이요, 귀기울이면 즐거운 경음악처럼 울려오는 농장벌이었다.

《인젠 밭머리마다 우물을 파놓구 물을 언제나 편리하게 쓰니 농장원들의 일손에선 저렇게 신바람들이 났수다.》

일손을 놓고 나와 만난 관리위원장동무는 이렇게 밭머리를 떼면서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던 그날의 감격을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정말 어버이수령님을 이 작은 산골농장길에서 만나뵈울줄은 몰랐습니다.

차에서 내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제가 미처 인사도 드릴 사이 없이 저의 이 흙몬은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시면서 동무들이 판 우물을 좀 구경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것이였습니다.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우리가 판 그 하나의 작은 우물을 그렇게도 큰일을 돌보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어떻게 아셨을가 하구말입니다.

한동안 아무 대답도 못드리고 서있는 저를 바라보시더니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 우물을 어떻게 봤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제가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접한 그날로 봤다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그럴줄 알았으면 벌써 보도할걸 그랬다고 하시면서 어서 그 우물을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은 경사지발들을 지나서 먼 산기슭에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당황하여 <수령님, 그곳은 길두없구 땅이 험해서 가시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 올렸더니 그이께서는 동무들이 물걱정을 영원히 모르게 될 때 나두 이런 길을 걷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앞서 걸으시는것이였습니다.

험한 밭이랑을 넘으시면서 우물가에 도착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소형양수기며 우물안을 일일이 살펴보고 아주 잘했다고 하시면서 높이 치하해주셨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날과 그 다음날에도 무려 세차례나 저희들을 찾아주시고 밭머리마다 팔우물자리들을 하나하나 잡아주시였으며 지하수

를 퍼올려 관수하는 방법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었습니다.

그러시고는 그것을 전국에 일반화하도록 이곳에서 몸소 방식상학까지 조직해주셨습니다.

그때는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예순다섯돌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의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 단 하루만이라도 편히 쉬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뜨거운 마음들이 평양의 하늘을 우러러 달려가고있었지만 이처럼 자그마한 산골마을 밭머리에서 물을 두고 심려하시다가 또 다른 농장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먼길을 떠나셨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를 더듬는 나의 마음은 숭엄한 감정으로 높뛰었다.

쉽없이 땅우로 솟아올라서는 이랑이랑 춤추듯 흘러가는 지하의 생명수를 바라보는 나에게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어느 한 관개공사장의 흘러가는 물줄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해놓았는데 우리 후대들이 이것을 다 알수 있겠는가고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다.

그렇다!

아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태어난 시대의 거창한 창조물들로부터 이 하나의 작은 우물에 이르러까지에 깃든 가슴뜨거운 사연들,

그것을 과연 우리의 후대들이 다 알수 있을까.

그러나 제아무리 훌륭한 말과 글을 골라 전한 다한들 인민을 위해 바치신 아버지수령님의 그 크나큰 사랑과 은덕, 깊은 심려와 로고를 다는 헤아릴수 없으리라!

항일의 혈전만리 헤치시는 그 엄혹한 나날에도 산 좋고 물 맑은 우리 조국땅우에 압박과 착취없는 사회를 건설하고 풍만한 자원을 우리의 힘으로 개발하여 인민의 락원을 꾸리실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었고 해방된 조국땅에서 제일 선창으로 농민들에게 땅을 주시고는 물을 주시지 못해 잠못이루시던 아버지수령님,

영명하신 장군님께서 땅을 주셨는데 하늘이 그렇게야 무심하겠는가고 하면서 비가 오기만 기다리는 농민들에게 수리화의 빛나는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대자연개조의 보람찬 전투를 진두에서 령도하여주신 아버지수령님,

별에 타고 가물에 마르던 농민들의 가슴에 속 시원히 생명수를 안겨주시려 저수지자리며 물길을 찾아 그이께서 오르신 산밭은 그 몇몇이며 지

새우신 심려의 밤은 그 몇밤이던가.

아직은 가물을 밀어내지 못한 땅에 원쑤의 불비가 쏟아지던 전쟁의 나날에도 몸소 지도우에 관개망을 그려넣으시었고 전쟁을 승리로 끝내신 그날에는 먼저 파괴된 관개구조물부터 찾아주시던 아버지 그 사랑,

놈들이 포탄창고로 리용하다가 폭파하고 달아난 수로굴을 두고 사람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물을 주시기 위하여 한몸의 위험도 잊으시고 파괴된 수로굴안으로 걸음을 옮기시던 자애로운 그 모습,

생사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계급전쟁을 이끄시듯 오늘은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오는 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에 나라의 모든 인적, 물적 재부까지 다 동원하도록 해주시는 크나큰 그 은덕,

한없이 뜨거운 그 사랑 그 은덕아래 이 땅은 실로 그 얼마나 몰라보게 천지개벽하였던가.

쑥대만 양상하던 풍덕벌로부터 룡천벌, 저 백두고원의 5호대지와 동북단의 서수라까지 연연수만리의 물길이 뻗고 가는곳마다 지하수가 솟아쳐 행복의 물결, 기쁨의 물결이 출렁이고있다.

지난날 날아가던 새들도 쪼아먹을 물이 없어 울며 지나갔다는 열두삼천리벌에도,

한해농사에 종자값도 못건지고 가물에 타버린 밭뚝기를 밀어던진채 떠났다고 하여 미루등이라 불리우는 신계미루벌에도 길가는 손님에게 강낭죽은 대접했어도 물만은 대접 못했다는 황주진등벌에도 은혜로운 물줄기가 뻗어 해마다 만풍년을 노래하는 살기좋은 고장으로 전변되었다.

끓으로만 흐르던 물줄기를 끌어올려 산과 들을 적셔주고 지하수를 퍼내어 이랑이랑 추겨주는 나라.

땅우에선 관개수 춤추며 흐르고 하늘에선 강우기가 단비를 뿌려주고 또 억년 마를줄 모르는 지하수가 땅속마다에서 솟구치리니 정녕 이제 석달 가물이 온들 어떠하며 열두달 비가 대들 어떠하랴.

온 세계가 가물에 허덕이고 별에 타들어도 사랑의 젖줄기가 흐르는 이 땅은 세세년년 만풍년을 안아오는 옥토로 남아있으리라.

온 들판에 울리는 사랑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마음다졌다.

우리에게 저 은혜로운 생명수를 주시지 위하여 바치신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을 언제나 잊지 않으리라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후대들도 다 알도록 대대손손 길이길이 전해가리라고...

영심이

허춘식

1

전조등을 우줄거리며 자동차가 달려 지나가자 사위는 더욱 캄캄해진듯하였다. 휘말려오르는 먼지를 몰아가면서 밤바람이 불어지났다.

자갈이 깔리고 바닥이 고르지 못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영심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용접공의 아들을 걱정하고있었다.

(선생님한테 꾸지람 받은 일도 없다지, 동무들의 집에도 가지 않았지... 어디 가있을까?)

천정이 낮고 비좁은 부엌문앞에 침울하게 서있던, 언제나 말이 없고 덤덤한 용접공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다.

몰탈을 실은 자동차가 우당탕 지나가면서 또다시 먼지를 뿌영게 들썩였으나 한발작 비켜섰을뿐 여전히 어둠속을 걸어갔다.

인입선철길의 건늌길을 넘어서자 길은 원컨으로 구부러지고 저멀리 불빛찬란한 공사장이 눈앞에 보였다. 분해로 축조장이며 탑조립장 그리고 지상배관을 위해 가설하는 잔교우의 휘황한 전등들은 불로크를 쌓아올리는 탑식기중기며 드문드문 서있는 빨탱크며 파헤쳐진 땅바닥과 아직은 경간들만이 앙상한 건축물들을 어슴푸레 드러내면서 건설장 일관을 희한하게 펼쳐보인다.

불빛은 흐름을 돌린 양주천의 잔잔한 수면우에도 어렸는데 그 희미한 노을빛을 배경으로 하여 거무스름한 직선을 이루며 뻗어간 제방이 더욱 뚜렷하다.

운하마냥 잔잔한 강물의 흐름과 불야성을 이룬 건설장의 야경을 둘러보노라니 문득 구내도로들에 기하학적으로 뻗어있고 탑들과 배관들, 건축물들이 빼곡이 들어서 밤이면 명멸하는 전등들이 불야성을 이룬, 지금은 모형도로만 커다랗게 제시되어있는 대공장의 전경이 머리속에 환하게 그려지는것이였다.

마치 어린아이들의 장난감같이 곱게 도장한 판들과 탱크들이 울긋불긋 늘어났고 고열이나 유해가스는 고사하고 먼지나 기계의 소음조차 없는 작업장들에서 깨끗이 차려입은 로동자들이 유리눈금판안의 계기들을 살피고 제품이 되어 흘러나오는 폴리에틸렌이나 아닐론실통구리를 자동장치로 출하장에 넘기는 그러한 공장이...

그때가 되면 걸음마다 돌부리에 채이고 깔끔한 모래알이 발바닥에 뛰어들어 신발을 벗어 털지 않으면 안되는 이 고르지 못한 길은 매끈하게 포장될것이고 어둠에 싸인 공지들에는 해안도시의

유보도에 걸려있는것 같은 목이 굵은 높다란 태양등이 찬란할것이다.

그리고 방금 그가 다녀오는 건설자들의 림시주택이 처마를 마주대고 뻗뻗이 둘러앉은 들판 저쪽의 산기슭에는 공장의 폐열을 리용하여 난방을 설치한 현대식 다층주택들이 즐비하게 들어앉을것이다.

그때면 이 거칠은 들판에 화려하게 꽃피여난 새 도시에서 살며 즐겁게 일할 사람들이 공장과 도시의 건설자들에 대하여 존경과 사랑을 담아 회상할것이다...

그들이 쑥대와 엉성퀴만 무성하던 양주천가의 눈녹은 벌판에 천막을 치고 살았고 림시숙소와 식당을 지으려고 토벽을 빚어 우등불에 말리면서 공사를 시작한것이며 언땅을 깎아 철길을 닦고 살얼음이 간 강바닥을 파헤치면서 자갈과 모래를 추어 기초를 쳤다는 이야기를 옛말처럼 할것이다.

새로 일떠서는 이 공장지구에서 자라난 젊은이들은 또한 건설자들이 닦쳐오는 장마전에 제방을 쌓으려고 돌격작업으로 밤을 새웠으며 머리를 짜고 지혜를 합쳐가면서 대형탑의 동체들과 육중한 철관들을 끌어들이었고 갖가지 공담들을 물리치면서 부재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철골들의 조립에서 위훈을 떨친 사연도 이야기할것이다.

하지만 건설장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가설건물에서 기숙하며 송진내 풍기는 널식탁에서 식사를 하고는 떠들썩하게 작업장으로 나가군하던 그 건설자들속에서 크낙한 포부와 아름다운 꿈을 안고 대학을 졸업한 스물다섯에 나는 김영심이라는 처녀와 함께 일했었다는것은 아마 모를것이다.

비날론양말을 고무대님으로 탐탁히 죄여신고 용접불꽃에 뚫어진 구멍자리를 깨끗이 기운 수수한 작업복을 입은 그가, 지하망부설장에서는 구덩이도 파고 압축기를 심출하는 기술자들과 더불어 정밀도를 걱정하면서 공사의 진척을 위해서도 자재랑비를 없애기 위해서도 갖가지로 애쓴것이며 상당한 기능과 엄격한 책임성을 요구하는 고압배관들의 용접을 담당한 로동자들을 위해 밤마다 현장휴게실에서 강의를 하고 시험도 치면서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지식을 더 많이 주입하려고 못내 고심했었다는것을 모를것이다.

현장경험이 없는 처지로 유능한 기사들과 틀거지 센 건설일꾼들속에서 도움도 받고 그들과 더불어 론쟁도 하면서 자기 힘으로는 어쩔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까지 갖가지로 걱정하며 사람들과 벌어진 공사를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그 한길로 이끌어가려고 몸달게 뛰여다닌 사연을 누구도 알수 없을것이다.

훌륭하게 정비되고 아름답게 장식된 미래의 공장지구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거창한 창조물을 이룩한 사람들의 위훈과 미거들에 대해 가슴뜨겁게 생각할것이지만 그 대하같은 생활속에 스며있는 매개인들의 운명에 대하여, 그들의 고민과 기쁨에 대해서는 알수도 없을것이다. 력사적인 기념비가 이룩되는 거기에서 한사람 한사람의 운명이 무슨 대수이라.

더군다나 이렇다할 공적도 없고 존재도 뚜렷하지 못한 김영심씨와 같은 젊은 처녀가 겪는 일들이 무슨 의의있는것이라.

설혹 그가 따뜻한 난로에 몸을 녹이고싶을 때에도 바람세찬 구조물우에서 철골을 들어맞추고 납의 일을 걱정하면서 밤늦게까지 어둠속을 헤매인다한들 그것이 무슨 먼 후날에까지 귀중하게 회상될만한 의의있는 일이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니 어쩐지 마음은 서운해지는것이였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여 영심은 침울하지도 쓸쓸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입가에는 저도모르는 사이에 미소가 어리는것이였다.

그는 자기의 상념속에서 만들어낸 보기좋은 아널론원피스를 입고 폴리에틸렌제의 굵높은 구두 뒤축으로 포장도로를 울리며 걸어오고있는 그 아지 못할 래일의 처녀를 향해 방긋이 미소를 지었다.

(이 공장... 이 지구를 우리가 건설했어.)

그러자 어느새엔지 모르게 마음이 푸근해지고 자신이 더욱 의젓해지는것 같았다.

《이거 영심동무 아니요?》

바로 등뒤에서 울리는 목소리에 영심은 흠칫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의 느릿한 어조와 벌써 곁에서 성큼성큼 걷고있는 커다란 룬팍으로써 그것이 3공사구 책임자 박성문임을 알아보았다.

《어디 다녀오세요?》

《덕성에 갔다오는 길이요. 큰탑을 세우는데 로동자구 사람들이 떨쳐나와달라구. 악대두 울리구 꽃다발두 흔들구... 경사가 생겼는데 분위기를 올려야지.》

언제나 씨원씨원한 책임자의 그 말에 영심은 저도모르게 웃었다.

《분위기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하구말구, 우리 건설쟁이들은 그 멧에 살지. 이제 보오만 연공들두 사기가 나서 일할거요. ...신문기자들이랑 오지 않은게 유감이군. 일이 이렇게 빨리 될걸 나두 짐작 못했거던.》

박성문은 결성결성 걸어가고있었으나 영심은

그와 보조를 맞추기가 어지간히 힘들었다.

《낮에 말이 있던 산소는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한테 안주고 건디요? 난 백사불구하고 탑은 래일 세우겠으니 내장물이 다 그안에 붙어있지 않는건 후에 공무동력에서 책임지라구 올렸소. 탑을 세운 뒤에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용접하자면 빠근하거던... 결국은 주더군.》

《다행이군요.》

《건설이라는건 내밀 때 우쩍 다그어야 하오. 늘늘이 할라치면 끝이 없는노릇이라니까. 탑을 세우고는 까벨 매물작업까지 끝내야지. 그럼 명절전에 하자던 년간계획은 넘쳐하는셈이요.》

박성문의 호기만만한 말을 듣는것이 영심에게는 재미있었다.

《탑만 세우면 소조원동무도 휴가를 떠나오. 먼 저번에도 미루었는데 꼭 가야 하우.》

《가겠어요.》

《이번 명절은 집에 가서 쉬어야지. 내내 집을 떠나있던 몸인데...》

은근하고 진정이 어린 공사구 책임자의 말은 영심이를 감동시켰다. 처녀는 어쩐지 지난기간 그를 잘 도와주지 못한것 같이 생각되었고 언젠가는 학습회에 온 특수용접공들을 계획 없는 타입작업에 동원시켰다고 얼굴을 붉히며 그와 다투었던 일을 못내 후회하였다.

《한데 어디 갔다오는 길이요? 오늘저녁엔 학습지도를 안했소?》

《학습을 끝내고 좀 일이 있어서요.》

《무슨 말 못할 일이요?》

하고 웃으며 박성문은 어둠속에서 그를 돌아보았다.

《아니예요, 그렇게 아니예요.》

얼굴을 붉히며 성급히 발명한 그 녀자는, 오랜 용접공인 안태복씨 집에 사정이 생겼다면서 중도에 돌아갔었는데 그것이 걱정되어 학습이 끝난 뒤에 가보았다는것과 열넷에 나는 그 집 아이가 어제 저녁부터 나타나지 않아 여태 찾아다녔었다는 사연을 짚막히 말했다.

《어제 나간 애가 아직 안돌아왔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이들이라는게 그런 때도 있는거지.》

《그래도 그런 일은 전혀 없던 아이니까요.》

《여태껏 없었다고 앞으로도 없겠소.》

별생각없이 그렇게 말한 박성문은 처녀의 다소곳한 태도에서 자기말에 대한 불찬성을 느꼈는지 제말에 깃을 달았다.

《원래 건설자네 아이들은 애비따라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보니 학습진도도 맞지 않구 선생두 자꾸 바뀌구... 그래서 공부에 취미를 잘 못붙이거던...》

《그러니 부모들이 더 많이 관심해야지요.》

《뭐 켜쫄소. 그래두 자라면 그렇지렁 남들만 못지않게 구실을 하게 되오.》

영심은 언제나처럼 호방한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뇌리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그 어떤 의식에 부딪치며 그 미소는 곧 사라졌다.

달려지나간 자동차가 불빛이 휘언한 폐수처리장의 둥그런 기초구덩이쪽으로 구부러져들어가는 것을 무심히 바라보면서 처녀는 말이 없었다.

박성문의 말은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었다.

흔히 들을수 있는 말이었지만 거기서는 사람들의 성장과 발전에서 요행수와 뜻하지 않은 우연이 많이 작용한다는, 찬성할수 없는 관념이 풍기고있었던 것이었다.

기술학습에 참가하는 특수용접공들을 무시로 계획에 없는 작업에 동원시킨것때문에 언쟁했던 일이 또다시 떠올랐으나 이번에는 후회로써가 아니라 자기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의식으로써였다.

하나 그 말을 반박하지는 않았다.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때문이었던지 아니면 나이도 경험도 많은 그의 말을 그르다고 하기가 저어되기 때문이었던지 묵묵히 걸음을 옮길뿐이었다.

저쪽은 이미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잊어버렸는지 래일 할 작업에 대해서 이것저것 걱정하며 걸었다. 쇠바줄을 늘일 일에 대해서며 권양기들을 든든히 고정시키기 위해 땅을 파고 무거운 블록을 리용할데 대해서...

영심은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아직 새겨지지 않는 조금전의 대화를 생각하고있었다.

(그럭저럭 제구실을 하게 된다니... 놀라운 최신과학성과들이 도처에 작용되고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있는 오늘과 래일의 참다운 주인공들을 길러내려면 현세기가 쌓아올린 과학기술의 성과들을 착실하고 꾸준하게 배워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저런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가령 용접공들만이라도...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석달째 계속되는 꾸준한 학습방조를 통해 인젠 퍼그나 친숙해진 애젊은 청년들로부터 나이든 장년에 이르기까지의 각이한 로동자들이 망라되어있는 《강습생들》을 머리에 그리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타입작업이 한창인 폐수처리장결을 지나 길다란 가설건물인 시공지도파앞에까지 오도록 영심은 자기 생각을 더듬으며 말이 없었다.

박성문은 래일의 일차비를 다시 짚어해보고 읍에 있는 기계화사업소에서 오게 되어있는 이동기

재들, 추레라며 대형기중기차들이 언제 도착하는지 알아보겠다면서 지령실로 향했다.

헤여지면서 아직 할일이 많으냐고 영심이다러 물어본 박성문은 사람들을 만나자고 했었다는 대답을 듣고 걱정스럽게 말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이야 후에도 만날수 있는건데 오늘밤엔 좀 폭 쉬우. 만날 뛰여다니며 수고하는데...》

공사구 책임자의 말에서 풍기는 웃사람다운 아량과 인정미가 오히려 영심이의 마음을 쓸쓸하게 했다.

《사실은 책임자동지가 좀 쉬여야겠어요.》

《뭘 우리야 만날 이렇지...》

손을 훌 내젓고 대범하게 웃으면서 성큼성큼 걸어가서는 제집으로 들어가듯 인기척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버리는 책임자의 실직한 뒤등을 바라보면서 영심은 하던 생각에 스스로 아귀를 지었다.

(다른 건설자들은 아마 자기네 책임자의 견해에 공감할거야. 설혹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그럴거야. 책임자동진 건설자들속에서 위신이 있는분이니까.)

그러자 자기는 아직도 이 드센 일판에서 자리를 못잡은 풋내기이며 벽차고 거칠은 건설공사에 휩쓸리기에는 무력한 존재라는 의심이 느닷없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영심은 어쩐지 고향도시가 그리워졌다. 건설장의 이 밤처럼 불빛이 찬란한 밤거리들과 바다바람이 싱그러운 해안동, 환희에 싸여 달려오는 파도며 명상을 자아내는 방파제, 원양으로 떠나가는 웅글은 배고동소리와 마스트아래 늘어선 선원들의 선망을 자아내는 하얀 제복들도 눈에 선하였다.

그리고 또한 눈 뜨면 바다가에만 나가놀며 공부하지 않는 막내동생이며 그 애때문에 늘 걱정애 싸여있는 어머니의 여윈 모습, 이곳으로 파견돼오면서 들렸을 때 동생을 앉혀놓고 누나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꽃피우기 위한 혁명전위로 떠나가는데 네가 집에서 공부도 안하고 말썽을 부리면 누나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옹바르게 이끌겠는가 하면서 타일러주던 일들도 떠올랐다....

이 모든 생각들로 하여 가슴이 후터워진 영심은 쌀쌀한 밤공기를 한가득 들이쉬면서 어둠속을 걸어갔다.

2

탑조립장 근처에서는 아침부터 긴장한 분위기가 떠돌았다.

50메터나 되는 길이에 무게가 80톤이나 되는 육중한 정제탑은 기중기들과 쇠바줄의 권양으로 자기를 일으켜세워줄 때를 기다리면서 변압기며

정류기들이 널려있고 압축기 돌아가는 소음이 쉬임없이 통탕거리는 분해로 근처의 공지에 장대하게 누워있었다. 여러달동안 주변에 쌓여있던 내장물들인 설비들과 곡관들이 인제는 탑의 내부에 거의 다 장치되고 지금은 사관들을 때어붙이는 용접공들이 응골은 동체안에서 일에 열중하고있을뿐이다.

박성문이 초조하게 기다리던 대형이동기재들은 새벽에 당도했다.

그러나 여러시간 계속되는 어려운 권양작업을 하려면 충분한 정비를 하여야 하는데 그 일이 하루는 걸린다는것이였다. 그 대형기재들은 아무 공사장에서나 긴장하게 물려있는터이므로 정비를 할 여유가 없었던것이다.

《야단났는걸. 그걸 미처 타산하지 못했거던!》

량미간을 찌프린채 창문밖 어딘가를 지그시 쏘아보면서 박성문은 딱한듯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통계원은 책상앞에 앉아서 전화로 무엇인가 길다란 사연을 밝히고있는데 공사구 책임자의 심란한 표정을 본 영심은 사무실을 나설수가 없었다.

《우리가 도와주면 안될가요?》

《바라지도 않는다오. 이말 저말 수태 비쳐보았는데 막무가내거던. ...기술있는 사람치고 까다롭지 않은 녀석이 없어. 어떡한다?》

영심어도 그만 걱정애 싸여버렸다.

자기로서 이렇다할 도움을 주지 못하는것이 못내 안타까웠다. 다른 전화로 기계화사업소장을 찾고있는 박성문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그곳을 나섰다.

공사장 한쪽에 덩그렇게 서있는 저장탱크의 아연도판 지붕우에서 아침해빛이 번쩍이고있었다.

추레라와 대형기중기차는 마치 이곳 일에 뛰어들기를 저어하듯 저장탱크뒤의 블로크더미곁에 서있었다. 가까이로 다가간 영심은 그늘진 차체곁에 가마니를 깔고 누워 코를 끌고있는 작업복 입은 사람을 보았다. 밤을 새워오느라고 자지 못한 모양이였다.

영심은 한켠에 멈춰선채 망설이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동문 누구를 찾는거요?》

어디선가 남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차체밑으로 허리를 굽힌 영심은 짙은 눈섭에 얼굴이 갱긋한 젊은이가 나사들개를 쥐고 번듯하게 누운채 자기를 살피고있음을 보았다.

《전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예요. 운전수동무세요?》

《아니요. 난 수리공이요.》

청년은 까만눈으로 마뜩지 않게 이쪽을 쏘아보면서 불손하게 대답했다.

《수고들 하셨어요, 밤새워오시느라고...》

일하고있는 그들을 만나니 걱정되던 일이 풀린듯 기쁨의 미소가 피어올랐다.

《인사는 벌써 받았소. 그래... 외교사업을 위해 이렇게 찾아왔소?》

불쑥 그렇게 묻는 청년의 말에서는 어딘지 멀리서의 어조가 풍기고있었다.

《외교는 무슨 외교예요?》

영심은 대뜸 기분이 언짢아졌으나 자신을 자제하면서 말을 이었다.

《여기선 모두가 동무들이 올 때를 손꼽아 기다리던 차에 와주었으니 기뻐할뿐이에요. 그리고 모든 준비가 다 되어있는데 이 기계들을 하루종일 정비해야 된다니 안타까워서 혹 무슨 도와줄 일이라도 없을까 하여 찾아온거예요.》

《도와주겠다야- 그래 동문 무슨 기술이 있소? 기계요, 전기요, 그렇지 않으면... 기업소 씨클에서 춤을 추오?》

《건축기사예요. 내연기관도 조금은 알아요. 하지만 기술로써가 아니라 그저 동무들의 일손을 도와주려고 왔어요.》

《괜찮은데...》

또다시 그렇게 중얼거린 수리공은

《그리고 오전중에 다 끝내면 저녁에 한상 탁탁히 차려주겠구만.》

하고 여전한 비양조로 뇌까리였다.

《여어- 뭘 그래. 한턱 내면 마셔주면 되는거지.》

코를 끌던 운전수가 저쪽으로 돌아누우면서 잠기쉬인 목소리로 수리공을 비난했다.

《통답은 마세요.》

영심은 북받쳐오르는 의분을 가까스로 참으면서 눈섭을 찌프렸다.

《지금 온 공사구가 탑조립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있고 오늘 오후에 첫탑을 세우려고 일손을 다우쳐왔어요.》

이것은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충성의 보고가 될것이에요. 다른 준비는 다 되었어요. 다만 동무들이 어떻게 해주는가에 따라서 오늘 일의 성패가 달려있어요.》

공사구의 모든 기대가 동무들에게 걸려있어요.

우린 기술로도 힘으로도 정신으로도 할수 있는 것 둘겠어요. 하지만 그밖의것은 아무것도 약속할수 없어요. 그건 당치 않아요!》

운전수는 가마니우에 천천히 일어나앉으면서 두부럭두부럭 영심이를 살피였다. 수리공도 차체 밑에서 기여나와 기름묻은 손을 문지르면서 영심이앞에 다가섰다.

《아주 탄판인데...》

하고 거만하게 말하면서도 청년은 팔목으로 이마에 내려덮인 머리칼을 쓸어올리며 호기심 가득

히 처녀를 마주보는것이였다.

《우리가 할 일이 그렇게 대단하단말이요?》 하고 그는 비로소 진지하게 물었다.

《아니 그럼 동무들은 여대 그걸 몰랐어요?》

불만과 함께 의혹을 품고 영심은 반문했다. 기대와 희망이 그를 흥분시키는것이였다.

수리공은 경의를 품은 주의깊은 눈길로 영심을 지켜볼뿐 말이 없고 운전수가 앉은 자리에서 뜨직뜨직 엮어댔다.

《중요하다는 말이야 들었지. 하지만 우리는 아무데 가나 그러루한 말은 귀에 못이 박이게 들으니까... 그런 일에만 다닌단말이요.》

그는 사람좋은 웃음을 싱긋 웃고는 계속했다.

《하루쯤은 정비해야 할 형편인데 사정을 말하니 책임자는 기어코 오전중으로 해내라는거요. 하기만 하면 저녁에 한턱 낸다면서...》

그 말에 저 친구가 발끈해서 안된다고 정비규정이 그러니 하루는 걸려야 하겠다고 딱 잡아뗐거든. 에- 사람두 그렇게 성미가 말라서야. ... 다 된 혼사를 그만... 쫓쫓쫓...》

운전수는 수리공을 비난하며 꾸짖고있었으나 영심은 따뜻한 눈길로 자기앞에 서있는 청년의 고집스러운 표정을 마주보았다. 이해와 감동이 가슴에 물결쳤다.

《도와주세요. 가능한것.》

하고 처녀는 짙막하게 열정적으로 속삭였다.

《하겠소. 해봅시다.》

청년은 기꺼이 호응했다. 그리고는 자기의 돌변한 대답이 스스로도 우스워서 씨익-웃었다.

《한데 동무는 누구요. 알고 지냈시다레...》

마지막 말은 여대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누그러지고 인정겹게 울려였다.

영심은 겸허하게 미소하면서 나직이 대답했다.

《전 여기서 일하는 3대혁명소조원이예요.》

《글쎄 어쩐지...》

청년은 평범한 작업복차림의 영심을 새삼스럽게 훑어보면서 씩긋 웃었다.

가마니우에 앉아있던 운전수가 털고 일어나면서 수리공청년에게 말했다.

《차체는 내가 맡을테니 동문 권양장치나 정비하라구.》

《그럼시다. 우리걸 끝내고 저쪽 추레라도 도와주고...》

청년은 모자를 뒤통수에 밀어붙이면서 조종실로 넉넉 뛰어들었다. 그를 뒤따라 올라간 영심이는 팔소매를 걷고 기관해체를 도와주었다. 처녀가 손에 기름을 묻히는것을 녀려하여 만류하던 수리공도 차츰 일손이 오르자 나사를 쥐여달라 청정기를 닦아달라 몇미리 나사들개를 찾아달라 하면서 허물없이 시키는것이였다.

영심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를 도와주면서 어제

밤 이곳으로 오던 이야기도 들었다. 그들은 어느 관개공사장에 나갔다가 일을 끝마치고 이리로 오다니니 미처 정비할 여유가 없었다는것이였다.

그들이 한창 일하고있을 때에 화물자동차 한대가 썩-하니 지나다가 그앞에서 멎었다.

박성문이 운전대에서 뛰어내려 허덕허덕 걸어 오는데 번듯한 이마며 역세게 생긴 주걱턱으로 땀이 줄지어 흐르고있었다.

오후의 공사가 틀어질가봐 린점공사구에 교섭하러 갔던 그는 목적을 성취 못하고 돌아오는길 이였다. 가는곳마다에서 대형기재들은 뻑뻑이 물려있었으므로 한다하는 그의 수완으로도 어찌는 수 없었던것이다.

《여기 와 있소?》

조종실에서 일하는 영심이를 뜨아하게 쳐다보면서 맥없이 그렇게 물었다.

그리고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발판우에 털썩 올라서면서 수리공을 향해 꾸짖하였다.

《야단났구만 이거. 래일 쓰라는덴 있는데 오늘 일은 어쩐다?》

《원만히 보장해 주겠습니다.》

영심은 미소어린 눈길을 책임자에게서 수리공에게로 돌리며 안심시키듯 말했다.

박성문은 짙은 눈섭을 쫓깃 모으며 믿어지지 않는듯 수리공을 보았다.

《보시다싶이 하고있습니다.》

《오전중에 다 되겠소?》

박성문은 금시 환성이라도 터뜨릴것 같이 눈이 둥그래졌으나 수리공은

《해봅시다.》

하고 간단하게 대답했을뿐이다.

《고맙소, 동무 오늘 일만 멋있게 되면 내 단단히 한턱 낸다니까. 이 박성문이는 낸다면 내는거요!》

갑자기 나사들개를 철관우에 땡가당 던지면서 수리공은 불이 부어 두덜거렸다.

《우리가 뭐 얻어먹으려나 다니는 사람인줄 아시우?》

어리둥절해진 박성문은 얼굴이 빨개진 영심이를 흘깃 돌아보더니 허구프게 웃으면서 변명하듯 중얼거렸다.

《저저 그렇다는 소리요. 원...》

그렇듯이 존경하는 사람이 이처럼 난처한 형편에 처한것을 목격하는것이 영심에게는 피로왔다.

구멍이 숭숭한 배기변을 굽어보면서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것을 자꾸 닦기만 하였다.

망설이듯 서있다가 자동차쪽으로 걸어가는 박성문의 맥없는 발자욱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에 넘치는 동정을 금할수 없었다.

(내가 잘 도와주지 못했어. 오늘 일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토론했고 짜고들어 하였더라면 이렇

게 꼬이지 않았을텐데... 내가 잘못했어.)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였으나 마음은 풀리지 않는 것이었다.

3

점심때에 식사하러 가는 길에 영심은 내장물장치정형을 한번 더 돌아보려고 탑현장에 들렀다가 용접변압기옆에 백없이 앉아있는 안태복이를 보았다.

빛이 날아 부영계 된 작업복차림으로 어깨를 떨어뜨리고 땅바닥을 들여다보면서 담배를 태우는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진호를 아직 못찾았어요?》

그에게로 다가간 영심은 겹쳐놓은 철강재우에 나란히 걸터앉으면서 근심스럽게 물었다. 용접공은 얼굴을 들어 이쪽을 보더니 더욱 침울한 표정이 되어 간신히 대답했다.

《아이는 돌아왔수.》

《왔어요? 어디에 가있었답니까?》

그렇듯 걱정하던 일이 풀린 것이 믿어지지 않는 듯 금금해서 부르짖었다.

《기차를 타고 양주읍에 갔다온 모양인데 모르지요, 무슨 판인지...》

《무슨 일이 있었대요. 왜 그랬대요?》

《제 말루는 제 동무네 집 라지오를 뜯어보다가 망그려놓았는데 그 집에서 야단하는바람에 집에도 못들어왔다는거요. 그래 부속이라도 얻어볼가 해서 읍에까지 갔었다는데... 모르지요 헛소리인지, 정소리인지?》

《원래 그런데 취미가 있었는가요?》

《취미야 있었지요. 집에 있는 스피카도 밤낮 뜯었다맞췄다해서 벌써 몇개를 사대였는지 모를 지경이지요. ...그저 모든 일이 그너석때문에 뒤죽박죽이라니까!》

용접공은 시름겨운듯 한숨을 내쉬고는 눈길을 떨어뜨렸다.

《그건 아주 좋은 취미예요. 안동지는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진호의 그 소질을 발전시켜주어야 해요. 무선공학은 전망이 광활한 아주 흥미있는 과학이에요. 저도 힘껏 도와주겠어요.》

열정적인 소조원의 말에 용접공은 음울하니 침묵을 지킬뿐이다.

《이번에 집에 다녀오는 길에 수신기용 마케트를 구해다주겠어요, 꼭... 진호에겐 도움이 될거예요.》

소년의 소질과 취미가 훌륭한 것이 영심에게는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와도 친숙하게 되어 도와주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이었다.

《고맙수.》

대답은 그렇게 하였으나 얼굴에는 침침한 주름

살이 가득해지는 것이 늘 다정하고 성실한 소조원의 그 약속이 안태복에게는 어쩐지 더 괴로움을 주는 듯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일이 잘될거예요.》

용접공을 안심시키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영심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점심식사를 하셨어요?》

《.....》

《안동지 식사하러 가세요.》

《어디 점심을 먹을 형편이 되었수?》

《왜요,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직 모르시우?》

《무슨 일인데요. 전 여태 판데 가서 일했어요.》

용접공은 나직이 한숨을 짓더니 입을 열었다.

《아까 고압사관에 전기합선이 일었수. 내가 그만 정신이 흐리멍텅해서 용접선을 잘못 끌었지요. 피복이 한군데 벗겨진걸 모르구...》

영심은 한동안 잠자코 서있었다.

《그래 어떻게 되었어요?》

《책임자동무한테도 얘기는 한 모양인데... 난 또 다 알고있는가 했지요.》

《어딘지 가봅시다.》

놓쳐놓은 탑안의 장치물들사이를 더듬으며 들어가는 사관이 붙어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겉보기에 관표면은 아무런 손상도 없었다. 그저 도장이 벗겨지고 그늘음이 앉은 것 같은 자리가 눈에 띄일 뿐이었다.

《책임자동진 뭐이라구 했어요?》

《아무 소리 없었수. 표면의 보은가시들을 마저 용접하라고 했을뿐이지.》

《어떻든 점심식사를 하셔야지요. 어서 가세요.》

용접공은 마지못해 터벅터벅 걸어갔다.

공사구책임자는 자기 사무실에 없었다. 여기저기 전화도 걸어보고 식당에도 들러보았으나 아무데도 없었다.

자동차가 달려지날 때마다 먼지가 구름처럼 일어나는 공사장구내를 돌아다니면서 찾다가 다시 탑현장으로 왔다. 거기서는 이미 탑을 세울 준비를 서두르고들있었다.

탑의 머리부분과 동체에 걸어놓은 굵은 쇠바줄들이 땅우에 우물구불 널려있었다.

블록크들로 든든히 고정시켜놓은 권양기들의 옆에서는 운전공처녀들이 아니라 듻직한 연공들이 담배를 피우며 일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들있었다.

현장에 나타난 박성문은 마치 공격출발진지에 나선 지휘관처럼 엄숙하면서도 어딘지 들뜬 표정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물음에 이것저것 대답하면서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고있었다.

영심이를 보자 뜻있는 미소로 감사를 표하며 호기있게 말했다.

《시작해봅시다!》

영심은 그만이 알아듣게 안태복의 일을 상기시켰다.

《고압관말이요? 대책을 세웠는데...》

볼리워온 연마공이 감전된 부분을 연마석으로 다듬고 방금전까지 도장을 다했다고 보고했다.

《그 부분의 재질에 영향을 주었겠는데 그것만으로 될가요?》

《아무렇지도 않소...자 다를 댔소?》

박성문은 영심의 말에 대답하는 한편 그의 머리너머로 연공반장을 향해 큰 소리로 묻는 것이었다.

영심은 마음을 정할수 없어 망설이였다.

(괜찮을가? 아니... 하지만 지금 모든 준비가 다 된 때에 어떻게?)

저편으로부터 배기변에서 시꺼먼 연기를 내뿜으며 대형기중기차와 추레라가 천천히 가까와오는데 운전수는 창문너머로 머리를 끄덕여보이였다.

높다란 조종실에서 머리를 내어민 청년이 영심을 향해 궁지높게 손을 저어보였다.

《자 해봅시다. 동무들이 요구하던 시간내에 끝을 냈소.》

그 말에 박성문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아주 마침이요. 고맙소 동무들.》

기중기의 걸개에 쇠바줄의 끌고리틀 거는동안 주변은 불시에 조용해지였다.

영심은 자기의 가슴이 몹시 두근거림을 느꼈으나 그것이 일을 앞둔 흥분때문인지 아니면 그 어떤 불안때문인지 의식할수 없었다.

《제 위치에들 가오.》

박성문이 나직이 그러면서도 엄숙하게 말을 떼자 드센 작업반장들과 연공들, 기사들이 다들 사방으로 뛰어들갔다.

권양기들과 탑기초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컨 블로크더미우에 기발을 들고 선 신호공을 지켜보는데 신호공은 그아래에 다리를 뻗치고 근무하게 서있는 공사구책임자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고 대기하는 것이었다.

박성문에게서는 공사장의 책임자라는 직책상의 관념보다는 더욱 강한 그 어떤 위엄이 풍기였고 그것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으며 그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되였다.

그러자 문득 김영심은 이 거대한 공사장에서 자기는 전혀 눈에 띄이지 않는 존재이며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한다해도 그것은 그 드넓은 공간에서 아무런 반향도 없이 사라져버릴것 같은 허전함을 느끼는 것이었다.

《스위치를 넣소.》

신호공은 붉은기를 쳐들었고 전동기들이 사처에서 드르렁거렸다. 쇠바줄들이 천천히 감기고 팽팽해지면서 뿌직뿌직 소리를 내었다.

직경이 열메터나 되는 탑은 그 육중한 동체를 눈에 띄이지도 않게 한치한치 일으키다가 힘겨운 듯 벗어나는 것이었다.

높이 세운 문형기중기의 활차들이 끄들끄들 안간힘을 썼다.

숨을 죽이고 이 모든 거창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영심은 온몸에 땀이 함신 내배인것도 느끼지 못하고있었다.

《동쪽 3번권양기를 좀 늦추라구.》

박성문의 말에 누군가가 가설전화기에 뛰여가서 《동쪽 동쪽...》 하고 소리소리 찾는 것이었다. 대형기중기의 조종실에서 낮익은 청년이 얼굴의 땀을 문지르면서 영심에게 자랑스러운 웃음을 보내고있었으나 이쪽은 전혀 알지 못하고 오로지 뿌직거리며 일어서고있는 탑과 권양 쇠바줄만을 주시하고있었다.

영심이의 온 정신은 짱그리 이 긴장한 작업에만 쏠려있었고 길다란 속눈썹에는 땀이 맺히어 별에 탄 가무스레한 불우에 방울방울 굴러내리고 있었다....

드디어 네시간만에야 탑은 조임쇠로 든든히 다져진 넓다란 콩크리트기초우에 땡! 하고 요란스럽게 들어앉았다.

불시에 둥둥둥 하는 요란한 북소리와 함께 박수가 터져나오고 악대가 떠들썩하게 불어대기 시작했다.

영심은 저도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쉬며 주위를 어리벉하게 둘러보았다. 어느새 그렇게 모여들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블로크더미며 자갈무지우에 짹 들어차있었던 것이다.

해저물어가는 공사장에서는 높이 울리는 환영곡에 어울려 축하의 인사소리들이 윤패하게 퍼졌다.

《우린 인젠 연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보고를 올리게 댔소.》

너부죽한 얼굴에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박성문이 성큼성큼 걸어왔다. 땀에 젖은 영심의 모습을 주의깊이 살피고는 고무하듯 말했다.

《이제 신문 방송에서 기자들이 올터인데... 여기엔 소조원동무의 공로가 많소.》

그리고는 몇걸음 옮기다가 덧붙였다.

《앞으로 많은 탑을 세우겠지만 어떻든 첫출발은 잘된셈이요.》

영심은 흥분에 들떠 병긋 웃었을뿐 그의 말 뜻을 깊이 새겨보지 않았다.

책임자의 말은 어딘가 귀전에서 울려여갔고 들뜨고 술렁거리는 사람들이 그를 어디에론가 떠밀어갔다. 육중한 탑이 공중 들리었다가 천천히 내

려왔는 그 장쾌한 광경이 그의 가슴에 깊은 인상을 남겼었다. 그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나와 한옆에 비껴서서 다시 뒤를 돌아다보았다. 락조가 비낀 창공을 배경으로 하여 거연히 서있는 그 탑은 밤에 낮을 이어 헌신적으로 일해온 건설자들의 충성심을 상징하는듯하였다.

김영심이 얼마전까지 걱정하던 그 사관은 탑내부의 내장물에 쌓여 지금은 아무데서도 보이지 않았다.

(공연한 걱정이었어. 아무렇지도 않은걸 가지고...)

하고 그는 스스로 자신을 위안하며 중얼거렸다.

며칠후이면 고향도시에 돌아가 가족들과 그리운 동무들앞에서 오늘의 이 감명깊은 광경과 건설장의 장엄한 로동에 대해 이야기하리라 생각하니 마음은 벌써 그곳으로 훨훨 날아가는것만 같았다.

4

령마루를 넘어서자부터 기차는 기세를 울리며 속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차창밖으로는 아직도 푸르른 산발들과 도간도간 누런 골짜기며 들판들이 흘러가고있었다. 타고가는 손님들은 많지 않았으나 차칸안엔 벌써부터 명절을 앞둔 흥분과 명랑한 분위기가 떠돌고있었다. 대부분이 출장지에서 돌아가거나 혹은 가까운 친척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여서 이야기는 흥겹게 어울리었다.

영심이만이 창턱에 팔굽을 고이고앉아 점도룩 차창밖을 아득히 바라보고있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흘러가는 풍경을 감상하는것이 아니었다.

양주천기슭의 거칠은 들판에 넓다랗게 펼쳐진 건설장을 눈앞에 그리면서 분해로결에 우뚝 솟은 첫탑에 대해 생각하고있었다.

그것을 세우던 날의 분망한 일들과 명절을 앞두고 연간계획을 수행한 흥분된 분위기에 휩싸여 지내다가 지금 심신의 여유가 생긴 그는 열차안에 앉아 고요히 생각에 잠겨있으려니 어쩐지 마음은 개운치 않고 어수선했는것이였다.

그날 환희에 들떠있는 사람들속을 헤치고 나오다가 공사구책임자가 하던 말도 떠올랐다.

신문과 방송에서 기자들이 올것이라고 하면서 탑을 세우는데는 소조원동무의 공로도 많이 들어있다고 하던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것이였다.

(책임자동지도 나를 공명심이 있고 좋은 평가를 받고싶어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모양이지?)

하고 영심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하긴 결코 그걸 부인할수는 없어. 대학때 로동에 참가하여 전투속보에라도 나면 그걸 은근히

기뻐했었지. 백지에 열다섯자가량밖에 쓰지 않은 그 전투속보에 나는것도 기뻐했지.)

차창밖의 저 멀리엔 눈길을 멈춘채 흘러가버린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영심은 생각을 이어갔다.

(그건 아마 자기 로동의 가치, 자기 존재의 보람이 인정되었기때문일거야...)

하지만 아무리 큰 신문이나 보고에 실린다해도 거기에 로동의 보람과 깨끗한 인간적공지가 깃들어있지 않다면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해줄수는 없어... 결코 그럴수는 없어...)

자신에게 화를 내듯 미간을 찌프리며 턱을 고인 주먹을 꼭 틀어쥐었다. 탑의 내장물사관에 어렴풋이 남아있던 감전의 흔적은 깨끗한 심장에 묻은 보이지 않는 티끌인양 영심이를 불안케 하는것이였다.

(왜 나는 그 문제를 명백하게 밝히지 않았던가?)

책임자동지의 위엄때문이었던가? 아니면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분위기때문이었던가. 혹은 모든 공정들이 빈틈없이 물려있어 어쩔수 없었던때문이었던가? 아니면 그런 자극으로는 철의 재질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책임자동지의 말을 믿었기때문이었던가? 사실 표면을 쓸어버렸으니 아무렇지도 않을것이 아닌가?...)

스스로 그렇게 위안해보았으나 마음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다.

기관차는 경쾌한 기적을 울리며 목적지에 다가가고있었으나 것처럼 바라마지 않던 집으로 가는 이 길이 영심에게는 전혀 기쁘지 않았다.

(나의 량심이 깨끗하지 못했고 나의 의지가 확고하지 못했기때문이야. 모두가 나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하노라니 앞으로 앞으로만 질주하는 열차가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역두에는 어머니가 마중나와있었다. 수척해진 딸의 얼굴을 걱정스레 들여다보며 몸이 불편하다고 자심하게 물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일을 하고있는 딸을 둔것이 못내 자랑스러운듯 앞세우고 들어오는 뻘스칸에서도 내쳐 건설장의 이야기를 시키는것이였다.

영심은 내키지 않아 담담히 마지못해 대답하곤 했다.

아직 명절까지는 이틀이 남아있었지만 완전한 명절차림처럼 저녁상을 마련해놓았었다.

동생은 누나의 손을 잡고 돌아치다가는 무엇인가를 자랑하려는듯 쭈뼛거리고 또다시 아래웃방을 들락거리었다.

《저것도 인젠 착실하게 공부한단다.》

마치 무슨 비밀이라도 말하는듯 눈을 끔찍이고 귀속말로 나직이 어머니가 하는것이였다.

《아버지가 늘 붙잡고 타이르시지. 누나는 3대

혁명소조원으로 떠나면서 그렇게 안타깝게 말해주었는데 넌 공부도 잘 안하니 량심없는놈이야...하고. 그랬더니 저도 햄이 드는지 차츰 나아져.》

밤이 늦어 퇴근한 아버지는 옷을 갈아입고 내려와서는 서두르지 않고 딸이 일하는 형편을 띠엄띠엄 물었다.

《우리 공장에도 소조원들이 와있다.》

그는 잠자는 막내아들의 숙제장을 검열하면서 서둘지 않고 말하는것이였다.

《모두 젊은 사람들이지만 충성스럽구 능력있는 젊은이들이더라...》

자기자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혁명전위로 일하는 딸의 아버지로서 높은 자각을 품은 체취가 은근하게 풍기는것이였다.

그처럼 바라마지 않았고 종종 편지로 고무하곤 하던 그 모든 양양된 가정의 분위기가 지금의 영심에게는 사뭇 피로왔다.

어머니는 서재로 쓰는 방에 폭신한 자리를 깔아주었으나 영심은 이날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휴가기간을 집에서, 도서관에서, 해안유보도에서 뜻깊게 보내려던 꿈은 인제와서 아무런 흥미도 자아내지 않았다.

아침에 집을 꾸리는 딸을 보고 어머니는 걱정에서 싸여 선뜻 묻지도 못했다.

《아니... 너 왜 그러냐? 응, 어찌된 일이나?》

《가야겠어요. 어머니, 그럴 일이 있어요.》

《어제 온 사람이 일은 무슨 일이나 응? 애야 정가야 한다면 명절이라도 쇠고 가렴.》

울상이 되어 사설하는 어머니의 만류에 영심이 할말이 없어 손을 내려뜨린채 잠자코 서있었다.

묵묵히 듣고만있던 아버지가

《놔두우. 제 일을 제 알고 처신할터인데...》

하고 참견하여 난처한 처지를 도와주었다...

덕성역에는 저녁에 내렸다.

로동자구에도 명절을 앞둔 즐거운 기분이 떠돌고있었다.

두손에 집을 든 그는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봐 머리를 수그리고 터벅터벅 걸었다.

숙소에 당도한 영심은 불이 켜지지 않은 방들을 쓸쓸하게 바라보면서 한참이나 뜰앞에 서있었다. 동무들은 누구도 오지 않았었다.

가슴속에서는 갑자기 까닭모를 서러움이 북받쳐올라 뜨거운 이슬이 되어 눈썹에 맺히는것이였다.

아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신임, 뜨거운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하자고 굳게 맹세다지고 함께 일해오던 친근한 동무들...이날이때까지 깨끗한 량심으로 일해온 그들은 지금 모두 수령님의 배려로 받은 이 휴가기간을 즐겁게 지내려고 집에들 가 있을것인데 자기만은 량심의 가책을 풀수 없어 홀로 이렇게 서있는것이였다...

방안에 들어가 집을 내려놓고 작업복을 갈아입었다. 이렇다할 아무런 작정도 없이 사무실로 향했다. 려행에 지친 다리를 힘들게 옮겨놓으며 먼지가 풀썩거리는 자동차길을 걸어갔다.

이전날 일에 지친 몸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나 혹은 아침의 생신한 기분을 안고 일하러 나갈 때나 드넓게 펼쳐진 건설장을 바라보면 저도모르게 떠오르곤하던 상상의 화폭, 정제탑들과 배관들과 창유리들이 해빛에 번쩍이는 공장지구의 화려한 모습은 지금 그의 머리에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무력하고 흐리터분한 울분에 싸여 진작 단호하게 처신하지 못했던 자신을 타매했다.

(책임자동지를 만나 이야기하자. 자극받은 부분을 찢라내고 다른것을 맞추게... 그리고 새로 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사선투과촬영으로 그 결과를 확인해놓자. 만년대계에 손상이 없도록... 이 모든 일을 래일로 미룰것없이 오늘저녁중으로 해놓아야 해.)

있어야 할 모든 공정을 머리속에 그리며 어떤 난관이 있을것인가를 짐작해보던 영심은 문득 그 복잡한 장치물들사이에서 자극받은 그 부분을 어떻게 알아내겠는가 하는 의문이 떠올랐다. 그때 련마하고 도장까지 해버렸던것이다. 설혹 작업을 조직하여 용접공들이 탑내부를 통해 지상 50미터나 되는 높은곳에 올라간다해도 돈있만큼밖에 안되는 그 자리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아무일도 못하고말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관 전체를 떼어내고 다른것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질이 같은 고압관을 당장 구하기도 어려울것이고 있다손쳐도 갈아맞추는것은 간단하지 않을것이다...

(책임자동지를 만나면 무슨 방도가 있겠지.)

초조해지는 마음을 누잠히려고 그렇게 생각했다.

하나 책임자는 사무실에 없었다.

《아니 아직 떠나지 않았어요?》

책상우의 문서들을 서류장에 넣고있던 통계원 아주머니가 뜻밖이라는듯 물었다.

《바래우기까지 했다던데...》

《갔다왔어요. 한데 책임자동진 어디 가셨어요?》

《글쎄요. 총화준비때문에 바빠하더니 지령에 갔는가?》

전화로 알아보았으나 없었다.

실망에 싸여 밖에 나섰다.

영심에게는 오늘밤중으로 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명절이 지난 뒤에는 더욱 할수 없을것으로 생각되었고 또한 이 일을 깨끗이 끝맺지 못한다면 장차로도 이처럼 흐리터분한 일들이 있을수 있으며 자기와 그밖의 건설자들의 량심은 영원히 더럽혀질것 같이 느껴졌다.

생각이 이에 이르자 심장은 세차게 뛰놀았고

피로감은 씻은듯 날아갔다.

그의 온몸에서는 피가 끓었고 힘이 솟구쳤다.
현장으로 향했다.

(로동계급들과 의논해보자.)

하고 그는 결심했던것이다.

5

캄캄한 어둠이 건설장을 뒤덮었다.

머리위로 지나간 배관잔교우에서는 용접광이
어둠을 불태우는데 작업이 진행되는 그 아래로는
슬라그의 불꽃이 줄줄이 흐르고있었다.

압축기만을 앙상하게 올려놓은 열분해직장의
감시대에서 내여비치는 촉광높은 불빛이 먼지끼
도로와 그 건너편의 벽체만 올린 세척장구조물을
환하게 밝히고있었다.

불빛에 드러난 도로가의 석재무지에서 갈라져
나간 돌결이 유묘하게 반짝이었다.

(연석을 놓고 포장할 준비를 하는구나!)

지나가면서 무심히 그렇게 생각했다.

길을 밝히던 불빛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다시
어둠속을 걷게 되었다. 길은 군데군데 파헤쳐지
고 걸을 때마다 바닥을 가늠할수 없어 더듬어야
했으나 명심은 아랑곳않고 걸어갔다.

콩크리트 혼합물을 실은 자동차가 달려지나가
면서 뿌연 먼지를 휘익-하니 들썹했으나 그것을
피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탐장주변은 조용했다. 이전날 탐을 조립하고
내장물을 설치하던 때의 조명등 불빛이 대낮같은
소란스럽던 분위기-쇠망치질소리며 푸드덕거리는
용접광, 연마기 돌아가는 아츠러운 소음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이 구역은 밤중마냥 고요했
다.

관자로 지은 휴계실 처마에 달아놓은 자그마한
전등이 어슴푸레한 불빛을 던지고있을뿐이었다.

그 불빛으로 하여 탐아래는 더욱 우중충하게
느껴졌다. 꺾쇠형의 층계를 짚고 높다란 콩크리
트 기초우에까지 올라간 영심은 탐내부로 통하는
시커먼 입구앞에 잠시 서있었다.

(올라가면 과연 찾아낼수 있을까?) 하지만 그
것은 순간의 망설임이었고 영심은 이미 캄캄한 동
체안에 들어섰다. 휴대용전지를 뒤로 추켜들자
불빛이 희미하게 사라져버린 아츠란 꼭대기에서
장치물들이 금시 무너져내릴것만 같아 몸서리쳤
다.

(내가 찾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도 찾지 못할거
야.)

스스로 자신을 고무하면서 그는 커다란 탐동체
의 내부에 라선형으로 아득히 돌아올라간 쇠사다
리의 가름대를 한층한층 오르기 시작했다.

지상 열다섯메터밖에 안되는 구조물우에 압축

기를 끌어올릴 때만 해도 구멍이 승승한 발판사
이로 땅우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어른거려 현기를
느끼던 그였으나 지금은 발아래 바닥을 헤아릴
길 없는 시꺼먼 심연이 입을 벌린듯하고, 전지를
잡은 바른손으로까지 어설프게나마 란간을 잡지
않으면 안되는 경사급한 사다리를 한걸음 한걸
음 툭아오르면서 희미한 불빛에 드러나는 장치물
들과 꼭판들을 뚫어지게 더듬고 살피는것이였다.

발을 옮겨디딜 때마다 쇠발판을 올리는 소리가
등그런 첩관안에서 웅글게 메아리쳤고 가쁘게
내뿜는 숨소리조차 어딘가 머리우에서 피이하게
들려오는것이였다. 얼굴에서 흐르는 땀이 줄줄이
앞가슴으로 흘러들었으나 씻을수도 그럴 생각도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는지는 전혀 가늠
할수 없었다....

원추형으로 된 순환탱크가 설치된 근처에 이르
러서야 그 고압사판을 찾아내였다. 전지의 등그
런 불빛을 아래로부터 천천히 비쳐오르면서 그
자리를 찾았으나 눈에 뜨이지 않았다. 고임대마
냥 엇비듬히 련결된 판의 옷부분으로부터 다시
아래로 내려비치고 더듬으면서 두세번을 거듭하
고나서 새로 도장한 자리가 말쑥한 표면에 눈길
을 멈추었다.

기쁨으로 하여 눈을 빗내이며 한숨을 짓던 영
심은 문득 거기에 표식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음을 깨닫고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가
느다란 쇠란간을 부여잡은채 오래도록 잠자코 있
었다. 가슴속에서는 심장이 튀어나올듯이 세차게
뛰었다....

이윽고 영심은 한손을 올려 침착하게 머리수건
을 벗겼다. 띠처럼 접어 거기에 매어놓으면 될것
이였다.

층계너머로 엉거주춤 허리를 펴고 닿을듯 말듯
한 판에 손을 뻗치며 키돋움하려고 발뒤축을 들
었으나 불시에 무서운 생각이 들어 아래를 살피
였다. 그러자 바닥모르게 입벌린 캄캄한 심연에
정신이 아찔해지면서 앞으로 쓰러졌다. 탄탄한
쇠란간에 가슴을 부딪치며 어망결에 그것을 틀어
쥐었다. 순간 정신이 혼미하여진 그는 손에 쥐였
던 전지가 떨어져내려가면서 땡! 땡! 판들에 부
딪치고 나중엔 조임쇠로 다쳐진 콩크리트기초우
에서 요란하게 박산나는 소리를 어렴풋이 들었을
뿐이다. 불시에 모든것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몇
순간 지난뒤 아래쪽에서 벽적 떠드는 소리가 나
고 우당탕탕 탐아래로 사람들이 쓸어들었다. 불
을 켜 무엇을 찾기도 하고 우에 대고 웨치기도
하였으나 첩관안을 올리는 찌렁찌렁한 메아리에
싸여 아무 소리도 분간할수 없었다. 쇠층계를 소
란하게 구르며 사람들이 달려올라오고있었다.

불시에 눈을 찌르는듯한 불줄기가 아래서부터 세차게 올리뻗었다.

현장에 있는 전조등들 그안에 끌어들였던것이다.

정신을 수습한 영심은 천천히 다시 일어섰다. 하지만 누군가의 억센 팔이 그를 가볍게 끌어들이더니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는것이였다.

쓰러질듯이 기운이 빠져버린 영심이는 자기 팔을 믿음직하게 잡고있는 그 억센 손에 의지하면서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말없이 따라내려갔다. 그가 무엇을 묻기도 하고 이르기도 하였으나 좀처럼 나른해진 육신에 그 말은 전혀 울려오지 않았다. 다만 그 사람이 자기도 출연하곤하던 기술 학습회때면 언제나 앞에 앉아 주의깊이 강의를 듣곤하던 용접작업반의 세포비서라는것과 그의 뒤를 따라 올라오던 술한 로동자들이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있음을 어렴풋이 알았을뿐이다...

밖에서는 이슬비마냥 밤안개가 고요히 내리고 있었다. 습기를 머금은 씨원한 대지를 가슴가득히 들이키였다. 콩크리트기초의 차거운 담벽에 잠시 기대여섰던 영심은 어둠속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선것을 보았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소조원동무?》

그를 부축하듯 곁에 서서 비서가 물었다.

《전 그 자리를 표시하려했어요. 그러다 그만...》

《.....》

곁의 사람들은 모두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아무말도 묻지는 않았으나 그들은 그의 말과 그의 행동, 그리고 휴가로 갔다가 되돌아온 그의 온 심정을 이해하는듯하였다.

《아니 그래 우린 그 자리를 찾아내지 못할것 같았소?》

하고 비서는 나무라운듯 통명스레 말했다.

《자 저리 가서 좀 쉬시오.》

그들은 판자로 지은 휴계실쪽으로 걸어갔다.

다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 그리로 모여들었다. 어슴푸레한 전등불아래 서있는 낯익은 사람들속에서 영심은 키가 작고 다부지게 생긴 안태복이도 보았다.

무엇인가 그에게 말할것이 있었던듯했으나 흐리터분한 머리속에서는 그 실마리가 떠오르지 않았다.

《자 휴계실안에 들어가 좀 눕소.》 하고 한 로동자가 그를 이끌었다.

《괜찮아요. 시원한것이 여기가 더 좋아요》

《날씨가 찬데 감기에 걸리겠소.》

소조원의 작업복이 땀에 함뿔 젖어있음을 걱정스럽게 보고있던 비서는 생각난듯 한손에 들고있

던 머리수건을 그의 어깨에 걸쳐주고 그우에 자기의 커다란 상의를 덧씌웠다.

어디서 뛰어왔는지 박성문이 불쑥 사람들앞에 나타났다.

《아니 도대체 어찌된 일ियो. 무슨 일이 생겼소?》

눈을 둥그렇게 뜨고 사람들을 둘러보던 박성문은 자기앞에 서있는 영심을 보자 믿어지지 않는듯 한걸음 다가섰다.

《소조원동문 언제 왔소. 탑에 올라갔다는건 소조원동무요?》

《책임자동지, 사관의 감전된 부분을 잘라내고 거기에 다른걸 맞추어야겠어요.》

박성문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듯 땡-하니 서있다가 차츰 미소가 빙그레 떠도는 품이 드디어 깨달은 모양이였다.

《아니 그래 그것때문에 이렇게 나타났소?》

《그래요. 전 그 일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원 걱정두... 사관은 아무일도 없소.》 하고 책임자는 자신있게 말했다.

《아무일도... 그건 내가 장담하오. 내가 책임지겠소!》

《어떻게 책임지세요. 무엇으로요?》

리해되지 않는다는듯 눈이 둥그래져서 처너는 나직이 부르짖었다.

《오랜 건설자로서, 내 명예를 거요. 법앞에서 책임지겠소!》

굵다란 책임자의 목소리가 똑 그치자 밤안개내리는 소리조차 들릴듯 주변은 불시에 조용해졌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우에 축축이 달라붙은 영심은 어둠속 어딘가에 눈길을 멈춘채 생각에 잠겨 말했다.

《10년이 지나고 20년... 50년이 지나 책임자동지도 우리도 이 땅우에 살아있지 않을 그때에도 책임질수 있어요?》

비난도 서글픔도 어려여있는 그 잔잔한 목소리는 서있는 사람들의 폐부에 깊이 스며들었다.

《책임자동지도 쉬이 꺾여지는 의혁구두를 두고 신발공장사람들을 나무라와하고 잘 맞지않는 발브를 보면 그걸 만든 공장사람들을 욕하겠지요... 도처에 나무라고 욕하는 사람들만 많고 주인답게 애쓰는 사람들이 적다면 우리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되겠어요! 더군다나 이건 만년대제의 재부가 아니예요!》

언제나 다정하고 인정접던 이 처녀에게 이처럼 사리 밝고 야무진데가 있었다는것이 선뜻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였다.

《책임진다면 지는거요!》

하고 박성문이 화가 나는듯 소리쳤는데 그 무뚝뚝한 목소리는 덤덤한 침묵속에서 부자연스럽게 울렸다.

《여태까지 건설공사를 적게 했대구?》

혼자말처럼 중얼거린 박성문은 공감을 기대하는듯 미소를 짓고 어둠속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이 모두가 범상한 일이라는듯 태연하게 말했다.

《반장동무, 총화는 다 지었대지?... 그럼 밤이 늦었는데 다들 들어가오.》

모두 덤덤히 서있을뿐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그리하여 언제나 호기로운 책임자의 우렁우렁한 목소리는 텅빈공간속에 가뭇없이 사라져갔다.

하지만 사라져가는 그 목소리의 여운이 당자의 가슴속에서는 세찬 파문을 일으키었다.

여태까지는 그 누구도 이 로런한 공사구책임자의 지시에 그렇듯이 무표정하고 사뭇 아랑곳없이 대한 일은 없었던것이다.

침묵이 갑갑해서였던지 혹은 자기 말의 위엄을 가늠해보고싶었던지 박성문은 되풀이해 말했다.

《다들 들어가자니까!》

그리고는 천천히 돌아서서 사무실쪽으로 향했다.

터벅터벅 멀어져가는 그 발자국소리는 영심이의 가슴에 아프게 울리었다.

처녀는 불시에 맥이 빠지고 관자노리가 뻗뻗해짐을 느꼈다.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휴게실에 들어서자 누군가의 용접면이 놓여있는 널상우에 팔을 뻗치고 얼굴을 파묻었다.

밖에서는 무엇인지 지시하는 말소리와 주고받는 이야기소리가 도간도간 들렸으나 영심은 거기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어둠속에 멀어져가는 공사구책임자의 커다란 뒤모습이 가슴이 미여지게 되살아나는것이였다...

결에 와서 누군가가 두번이나 불렀을 때에야 몸을 일으키었다. 세포비서와 키가 작은 안태복이 그를 걱정스럽게 지켜보고있었다.

《소조원동무, 들어가서 쉬우. 지내 피로한것 같은데...》

비서는 침착하게 말하는것이였다.

《워낙 우리들속에서도 론의가 있었소. 그동안 첩관재질이나 고압관의 특성에 대해 많이 배우고 나니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졌거든요. 지금 다시 하려고 달라붙었으니 마음놓고 들어가보오.

책임자동문 속이 넓은 사람이니까... 걱정마우다...》

영심은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 서있을뿐이였

다.

《모두 나때문이지요. 그놈의 아이때문에 이들 밤을 꼬박 새우고나니 그만 일할 때 정신이 없었습니다. ...모두 내 잘못이지요.》

《아-참!》

무엇이 생각난듯 그렇게 소리친 영심은 금시 얼굴을 붉혔다.

《안동지, 전 약속한걸 잊었어요. 집에는 갔었는데 그냥 돌아서다니니... 진호의 수신기용 마개트를...》

《생각해주는것만도 고맙수다. 소조원동무, 모처럼 집에 갔다가 명절도 못치고 돌아섰으니 오죽했겠소. 모두 나때문이지요.》

《이제 편지로 부탁하겠어요. 꼭 될거예요.》

《참 무엇이라고 말해야 좋을지...》

안태복은 머리를 굽적거리며 용접면을 들고 일하기전 버릇으로 불에 비쳐보았고 비서는 영심이의 등을 가볍게 밀며 문밖으로 나섰다.

《자 소조원동무, 우리 로동계급들을 믿는다면 들어가서 꼭 쉬우. 우린 오늘 밤중으로 그 자리를 갈아맞추고 새벽까지는 방사선 투과시험을 해놓겠소. 명절을 깨끗한 마음으로 쉽시다. 훌륭하게 해낼거요. 그러니 숙소에 들어가서 꼭 쉬우. 우리 동무들의 부탁이요.》

《고마와요.》

하고 정겹게 대답한 영심은 그가 떠미는대로 어둠속을 걸어갔다.

어둠속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던 공사구책임자의 모습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입속으로 뇌었다.

(난 책임자동지를 옳게 도와주지 못했어. 자기의 온몸을 바쳐 건설을 해온 사람인데... 새 건설장으로 옮겨갈 때마다 가족들을 끌고다니며 주택이 부족할 때면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립시합숙이나 또는 변변치 못한 사무실의 딱딱한 널의자에서 어설픈 잠을 자며 오로지 나라의 재부를 건설하기 위해 일해오는 사람인데 나는 그를 잘 도와주지 못했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혁명을 위해 더욱더 기여하도록 배워주고 도와주라고 우리들을 믿고 파견해주시었는데...

책임자동지한테 가봐야겠어. 그가 피로와하지 않도록, 또 모든것을 리해할수 있도록 말해줘야 해... 휴식은 아무때나 할수 있는거지...)

마음속으로 그렇게 뇌이면서 영심은 사무실쪽을 향해 걸어가는것이였다.

긴급수송

한경

1

사업소 속보판앞에 사람들이 웅기중기 모여섰다.

중대마다의 자랑이 빛을 뿜으며 호기심어린 눈길들을 끌어당기었다.

그가운데서도 1중대의 모범이 단연 이채를 띠었다.

9호지구의 긴급수송을 말아안은 김영진중대장의 얼굴이 크게 속사되어 나붙어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느때없이 근엄하여보이였다. 짙은 눈썹 밑에서 생기를 내뿜는 눈은 50대의 사람의것이라고는 볼수 없는 그런 열정이 풍기였다. 사실 김영진중대장의 눈은 마주보기만 하여도 정신이 들었다.

사람들은 한달안으로 그 많은 물동을 처리한다는것이 잘 리해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구 김영진중대장에게 의혹은 두고싶지 않았다. 그만큼 김영진은 성실했고 믿음이 강했던것이다. 이를테면 여태껏 사업소의 맡아들구실을 굳건히 해왔다고 할가...

사업소에 어려운 일이 제기되면 지배인도 기사장도 먼저 생각하는것이 1중대였고 따라서 김영진자신도 어깨를 디밀고 말없는 성실성으로 본때있게 일을 해제끼곤하였다.

바로 이것이 십여년 거듭되는 과정 사람들은 김영진을 《대들보》로 부르게 되었다. 하기에 김영진은 몰라도 《대들보》는 죄다 알았다. 때로는 약삭빠른 운전사들이 《대들보》를 내걸고 《외교》에서 한몫 보기까지 하였다.

모임에 가던 중대장들도 속보판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들은 저마끔 한마디씩 하면서 9호지구의 긴급수송을 말아나선 1중대를 놀라와하였다.

《하여튼 김영진중대장의 담보가 아니구서야 감히 누가...》

《어떻든간에 1중대는 해낼거야.》

《범이 제 소릴 하면 온다더니...》

때마침 김영진중대장이 이쪽으로 오고있었다.

아무런 특징도 없는 체소한 사람이었다. 작은 키에 평범한 얼굴은 어찌 보면 연약하기까지도 하였으나 짙은 눈썹 밑에서 생기를 띤 열정적인

눈은 그의 인생에서 오는 모든 약점을 대번에 배껴주었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천만금에 비길수 없는 보배라고 하는것인지 모른다.

영진은 중대장들의 손을 마주잡으며 《뒤소리는 미덕이 못되는거야.》 하고 넌지시 중을 떠보았다.

그 작은 체구의 어디에서 것처럼 굵은 목소리가 흘러나오는지 모를 일이었다.

《보라구, 저걸 좀... 너무도 방불해.》

영진은 그제서야 속보판을 보았고 그가운데서 자기 얼굴을 크게 속사한것을 발견하였다.

순간 영진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50고개에 오른 그였지만 천진한 소년처럼 귀밀까지 붉어졌다.

때마침 김창근기사장이 현판앞에서 목소리를 높이었다.

《중대장동무들, 어쩔 셈이요? 속보판앞에서 모임을 하자우?》

중대장들은 서둘러 기사장실로 들어갔다.

모임은 비상동원폰드조성문제였다.

며칠전부터 이 문제를 토의해왔었으나 예상외로 그 진척이 지지부지하였다. 그도 그럴것이 중대들에 예비차가 있을리 만무였고 설혹 있다하여도 그것을 있다 할 중대장들이 아니였다. 내놓기는커녕 더 달라고 손을 내밀 형편이었다.

그래도 배심이 약한 중대장들은 김창근기사장이 하두 다궂는바람에 못견디어 며칠전에 예비주머니끈을 끄르고말았다.

그러나 소힘줄처럼 질긴 중대장들은 기사장실에 턱 버티고 앉아서 묵묵히 창밖을 내다보며 아닌보살이다.

《이거야 어디... 자동차운행을 중지하라는거나 마찬가지인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3중대장의 늘어빠진 목소리였다.

김창근기사장은 듣다 못하여 한마디 하였다.

《거 되로 주고 말로 받을터인데... 뭘 금시 숨넘어가는 소리를 하오. 자 몇대를 내겠소? 3중대에서?》

김창근기사장은 아예 오늘 모임에서는 끝장을 볼 잡도리였다.

《전시에도 식량수송만은 포탄수송과 똑같이 취

급되었는데... 우리 3중대야...례외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김창근기사가장이 연필을 고누어 들고 묵묵히 대답을 기다리는 사품에 구구한 설명이 리유에 닿지 않았다.

《도를 일이라면 1중대를 내놓고 또 무슨 다른...》

벌써 몇번을 같은 말을 되풀이하였는지 모를 3중대장은 제김에 열적어졌다.

《도움받아야 할 1중대에서 바로 일곱대를 내었소.》

김창근기사의장의 이 말은 확실히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순간 김영진은 너무 적은 양을 낸것만 같아 거북한 생각이 앞섰다. 그러는데 3중대장이 용단을 내렸는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렇다면야 3중대가 가만히 있을수 있습니까. 우리도 한대 내겠소. 새 차로 말입니다.》

《우하하하...》

사무실안은 삽시에 웃음판이 뚫어번지였다.

무어라 말할수 없이 답답하던 방안이 금시 가벼워지는것만 같았다. 웃음은 쯤체로 가라앉지 않았다.

《3중대에서 한대를 내겠단말이지요?》

김창근기사가장이 연필대로 탁상을 두드리면서 웃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리었다.

《웬걸요. 두대 아니 석대... 에라 모르겠다. 다섯대를 내겠소.》

그러자 방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였다.

5중대장, 7중대장, 8중대장들이 마침내 예비주머니끈을 풀기 시작하였다.

그랬어도 김창근기사는 80대의 비상동원폰드를 종시 채우지 못하였다.

중대장들이 돌아간후 방안에는 영진이와 창근이 둘만이 남았다. 사무실에 가득찬 담배연기가 환기창으로 꾸역꾸역 밀려나갔다.

《박박 굼었다는데도 50대밖에 되지 않는군요. 일하기가 점점 힘겨워집니다. 참 중대장동지가 내겠다고 한 일곱대분은 그만 두십시오. 우리도 생각이 있습니다. 공적인 석상이여서 말은 못하였습시다만...》

창근의 은근한 목소리였다. 그는 지금 1중대를 위하여 사업소의 예비를 준비하고있었다.

《뭐라구?》

반문하는 영진의 표정은 엄하여졌다.

영진이와 창근은 연령도 성격도 취미도 생활로정도 저마끔 달랐다. 하지만 그들은 동년배처럼

허물없이 지냈다. 만나면 괜히 욱유했지만 그래도 그속에는 서로 아껴주는 한량없이 뜨거운것이 스며있었다.

선고개에 들어선 영진은 30대의 창근에 비해 파묵한 편이었다. 창근이 얼마디 하면 겨우 한마디 할 정도다. 말은 주로 창근이 하고 영진은 지수긋해서 듣기만 하다가 이따금 한마디씩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든 씹먹고 신랄한지 기지있는 창근이조차도 말문이 막혀 멍해있기가 일쑤였다.

창근을 재능에 비기면 영진은 성실성에 견줄수 있을것이다. 둘을 하나로 합치면 아주 리상적일수 있으나 생활은 그런 특혜를 어느 한사람에게 편중시키지 않았다.

순간순간에 빛을 내뿜는 창근의 기지를 사람들은 무척 사랑했다. 아무리 복잡하게 엉키운 수송문제도 창근의 손탁에만 들면 대번에 풀린다. 집중수송도 전문수송도 긴급수송도 죄다 그러하였다. 하여 사람들은 창근이를 두고 《명참모장》이요 《재간동이 기사장》이라고들 자랑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기도 하였다. 수백대의 자동차와 그 세력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을 손금보듯하는 그의 머리가 놀라왔다.

어느 중대, 어느 운전사의 기능은 어떻고 그 자동차상태는 어떻다는것을 속속들이 꿰뚫고있었다. 물론 운전사출신인 창근이고 보면 실패과악의 유리한 점은 있을수 있으나 그렇다고 그것이 전적으로 기사장사업을 좌우하는것은 아니었다.

생각깊은 사람들은 창근의 이 비결을 다른데서 찾고있었다. 그것은 바로 김영진의 밑받침이 있었기때문이라는것을...

남몰래 일깨워주고 떠밀어주는 바로 거기에 창근의 놀라운 기지가 합쳐졌다는것을 어렵듯이 알고있었다.

둘은 손발이 맞았다.

큰 기업소를 책임진 창근의 숨씨도 원숙하였지만 그에 못지않게 요긴한 모퉁이마다에서 한몫 단단히 하는 영진의 추진력 역시 평범치 않았다.

영진이가 일을 맡아안으면 창근은 마음을 놓았다. 이번 9호지구의 긴급수송과제만 해도 바로 그러하였다. 여러 중대장들이 맡아안기를 망설이는 그때 영진은

《어찌겠소, 아무튼 우리 사업소가 해야 할 일인데...》

하고 선뜻 앞에 나서주었다. 창근은 코마루가 쪼개지도록 영진이가 고마왔다.

이러한 영진임을 알기에 창근은 그를 그야말로

《대들보》처럼 은근히 믿어온터이다.

되도록이면 1중대의 부담을 덜어주고싶은 창근의 심정은 도의적인것이라기보다 동지적인것으로 그의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그래 날더러 기사장의 그늘밑에서 특전을 받으라는건가…?》

영진의 노여움이 섞인 목소리였다.

《특전이라니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비상동원폰드에서도 면제되고… 그럼 1중대는 뭔가? 남의 등에 업히워 살라는건가? 차라리 그런 값싼 동정보다는…》

영진은 바투 타들어간 담배불을 끄며 창근을 흘려보았다.

《차라리 기업소를 바로 운전할데나 머리를 쓰게. 그래 련결차문제는 언제 해결되나?》

《제작조건을 마련중인데… 아마 9호지구의 긴급수송에는…》

창근은 말끝을 얼버무리며 무엇인가 자신이 없어하였다.

《아직도 제작조건을 마련중이라?》

영진의 어조에서 몹시 못마땅해하는 기색이 내뿜기였다.

《물론 사정이야 있을터이지만.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교시하신 그 정신에 비추어보면 우리일이 너무 굵튼것 같아. 자네는 조건타발을 하는 버릇이 새로 생겨나고있어. 언제 우리가 모든조건을 죄 갖추어놓고 일한적이 있나?》

이때였다. 기사장의 책상우 직통전화가 야무지게 찌르릉 울리었다. 순간 창근의 낫색이 굳어졌다.

그 어떤 충격적인 예감이 두사람을 마주쳐다보게 하였다.

전화종소리가 또한번 울리었다.

창근은 기계적으로 책상앞으로 다가갔다.

송수화기를 든 그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었다.

《김창근이 전화를 받습니다.》

창근은 애써 침착히 말하면서 영진의 묻는듯한 눈길을 되받았다.

《뭐라구요? 도선교구배선에서 44호차가…?》

영진은 가슴이 철렁하였다. 44호차란 1중대의 것이었다.

의자에 앉았던 영진은 용수철처럼 튕겨올랐다.

《44호차가 어떻게 되였다구?》

《빨리 사고현장에 나가보셔야겠습니다. 44호차가 바투 뒤따르던 차를 엉치로 받아놓았답니다.》

《44호가?》

영진은 오늘아침 44호가 련결차에 짐을 초과적

재하고 떠났다는것을 상기하였다.

영진은 44호가 도선교구배선을 올리꼬지 못하였으리라는것을 추측할수 있었다.

품놓고 창근을 만나려던 영진의 걸음은 또 미루어질수밖에 없이 되었다.

영진의 얼굴에서 난감해하는 기색을 읽은 창근은 여유있게 웃으면서

《너무 초조해마십시오. 나도 9호지구의 긴급수송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는바가 있습니다. 녀려말구 가보십시오. 그리구 련결차생산문제는 사업소 수리공장의 차량직장을 다긔겠지만… 그런다손쳐도 9호지구의 긴급수송에는…》

영진은 출입문계로 급히 나가다가

《뭐라구? 그제 참모장이 하는 말인가. 내 긴말을 할 사이가 없네만… 섭섭하네 섭섭해.》

하고는 밖으로 나왔다. 왜선지 마음이 무거웠다.

(창근이가 벌써 이렇게 되다니?)

영진은 창근에 대한 이름할수 없는 불만을 안은채 발걸음을 바빠 옮겨놓았다.

찌푸둥하던 날씨는 종시 비도 아니고 눈도 아닌 진눈까비를 물박으로 내려뿌렸다.

영진은 흰눈이 한벌 덮인 화물차어로 다가갔다. 도선교쪽으로 가는 길에 9호지구까지 다녀오리라 생각하며… 9호지구건설장의 긴급수송문제를 놓고 그곳 부채직장장과 토의하고싶었다.

2

걸음보다 마음이 자꾸 앞서는 영진은 초조해지기만 하였다. 어떤 사고를 빚어내었는지… 영진의 눈앞에는 남달리 일욕심이 많은 44호차 운전사가 밟혀왔다. 아직 운전기술은 여물지 못하였는데 짐은 스프링이 휘어들게 싣는다. 영진의 생각은 점점 착잡하여졌다. 그는 사업소 기동중대차를 빌려 자신이 직접 운전하였다.

도시건설은 교외멀리로 줄기차게 뻗어나가고있었다.

이제는 알수 없게 도시의 중심이 깊어졌고 옛모습이 달라져갔다.

참으로 눈부신 변화였다.

영진은 가속기를 더 깊이 밟으면서 정말 빨리도 달려온 길이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자동차는 9호지구로 가는 물동을 알맞춤하게 실어서인지 고르롭게 흔들리며 쾌속으로 달리였다.

영진은 조향륜을 잡고 전쟁의 불길속을 달렸다. 그리고 재더미속에서 일떠서는 도시에 첫 벽돌을 실어날랐다.

그때로부터 어언 스물네해의 세월이 흘러갔다.

이동안 영진이라도 도시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청년이던 영진은 머리칼이 성긴해졌고 도시는 폐허를 털고 불사신처럼 일떠섰다.

어느 거리, 어느 아빠트치고 영진이 실어나르지 않은 건설부재가 없으려면 그래도 그에게는 솟제 생소한 도시를 마주 띄워보는것만 같았다.

왜냐 하면 매일과 같이 새로 내뻗는 길들과 새 건물들은 전혀 어제날의 그것이 아닌 새로운 현대적인것이였기때문이다.

영진의 눈앞에는 일떠서는 대도시의 면모가 선히 안겨왔다.

차창밖으로 진눈까비가 마주쳐와 감시창에 사정없이 녹아붙었다. 유리담기는 분주스레 좌우로 움직여도 겹질기게 달라붙는 눈발을 바이 지울 길이 없었다. 지우면 달라붙고 달라붙으면 또 지우고... 그래도 유리담기는 사르륵사르륵 소리를 내며 간단없이 움직이였다. 대자연을 상대로 하여 자그마한 유리담기는 근기있게 싸우고있다. 기관에서 보내주는 공기를 받아먹으며 유리담기는 운전길을 열고있다. 자동차의 큰 몸체에 비기면 참으로 작은 부분이였지만 그 작은것이 눈발과 필사적으로 싸우며 제자리를 지키고있다.

경황없는 속에서도 영진은 기특한 생각이 들었다. 서른해나마 자동차와 같이 살아온 그였지만 수백수천가지의 크고작은 부속들이 기묘하게 작용하며 거창한 힘이 되어 자동차란 큰 물체를 추진시킨다는것이 일견 신기하기로 하였다.

사회도 마찬가지로일것이였다. 창조적로동에 의해서 사회는 발전해나간다.

그런데 만일 이 창조적로동속에서 성실하지 못한 그런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공산주의건설은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

영진은 멀리에서보다 자기 사업소를 거울에 비쳐보았다.

모든 사람들이 유리담기처럼 책임적으로 자기 초소를 성실히 지키고있는것인가?

영진은 안개진 유리를 손수건으로 닦으면서 도선교로 차머리를 돌리였다.

교통이 차단되고 자동차들이 몰려섰을줄로만 알았는데 도선교우로는 차들이 꼬리를 물고 오갔다.

모를 일이였다.

그는 머리를 기웃거리며 도선교아래 후미진곳에 차를 세우고는 교통안전원초소를 찾아갔다.

영진이 온 사연을 들은 교통안전초소장은 호탕하게 웃으며 말하였다.

《별일 없습니다. 운전이 좀 서툴더군요, 아마

런결차의 중력을 익히지 못한것 같습니다. 다행히 바투 다가선 중량급차가 내려 뒤걸음질치는 44호차를 막아주었기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무슨 사고를 빚어낼지 몰랐습니다.》

초소장과 헤어진 영진은 어쩐지 얼굴이 화끈거려였다.

자기 사업의 빈구석을 못사람들앞에 펼쳐보인것만 같았다.

런결차를 해결받을 생각에만 골몰하다보니 운전사들을 준비시킬 생각은 감감 잊고있었다.

영진은 도선교를 건느면서 갈래 많은 철길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그것들은 정연하게 전철기에 몰려들면서 본선으로 런결되여있었다. 마치 실개울들이 강으로 합류되듯싶었다.

영진은 철길을 굽어보면서 자기 사업의 지나친 단순성을 깨달았다.

그는 확실히 여러 갈래의 일을 한꺼번에 밀고나가지 못하는 흠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였다.

혁명은 계속되고 과업은 부단히 새롭게 제기된다. 그런데 영진은 이에 자신을 따라세우지 못하고있는것만 같았다.

영진은 가속기를 깊숙이 밟았다. 그는 9호건설장으로 가고있었다. 거리마다에 3대혁명의 힘찬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영진은 웨치는듯한 그 구호를 마음속으로 읽어보았다.

학생들이 북을 치며 거리를 행진하고있었다. 선전차가 노래소리를 앞세우며 거리를 달린다. 앞에도 뒤에도 짐을 실은 자동차들이 꼬리를 물고 잇대여섰다.

차는 어느덧 9호지구의 건설장에 다가들고있었다.

귀익은 기증기소리, 혼합기소리, 권양기소리, 호각소리들이 들려오는데 트라스조립장에서는 푸른 용접광이 번쩍이고있었다.

건설장의 거센 숨결은 언제나 영진의 심장속에 뜨겁게 맥박쳐왔다.

그는 실고는 부재를 부리우고나서 부재직장장을 만날 심산으로 서둘러 차를 돌려세웠다.

그러는데 누군가가 운전대문을 벌컥 열고 차에 올랐다.

건설기업소 부재직장이였다.

《옹 군. 중대장동무를 좀 만나려던참이었는데...》

《나를? 왜? 또 신세를 지자구?》

영진은 빙긋이 웃으며 차를 길옆으로 비켜세웠다. 때마침 만나려던 사람이 제발로 찾아왔다.

《신세? 하기사 임자네 신세 없이 건설이 될락이 있다. 이틀테면 우리 기업소의 명맥이야 동무네가 틀어쥐고있는셈이지. 자 저걸 좀 보라구...》

영진은 부채직장장이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았다.

대형혼합기가 기세 좋게 돌아가는데 금시 부리는 끌재며 모래, 세멘트들을 허벅지께 삼키고 있었다.

《보는 것처럼 먹이가 몹시 딸리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달안으로 9호지구건설을 마무리지어야 하거던.》

《나두 알고있네.》

《알고있으면 뭘하나. 지금처럼 해서는 안되겠네.》

《내 그레 부채직장장과 좀 토의하려구 찾아왔네.》

그들은 복구건설의 첫 주추돌을 함께 놓아온 막역한 사이였다.

《그레. 중대장이 급히 찾아왔을 때는 무슨 묘책이 있는게군.》

김영진의 생각은 착잡하게 회오리치고 있었다.

자동차 한대가 24시간 만가동하여 30톤을 실어나른다고 하자. 그러면 한달동안 매일 100대의 자동차가 뛰어야 한다는 말로 된다.

한데 중대의 자동차보유대수는 50대뿐이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단말인가...?

《내 그레서...》

부채직장장의 초조한 어조는 불붙는 영진의 마음을 부채질하는것만 같았다.

《어제밤에 동무네 사업소 기사장동지에게 전화로 급한 소리를 했는데... 그분이 씨원씨원한 맛이 있더군.》

《그레 무슨 좋은 방도를 찾았소?》

《1중대 힘만으로는 힘들것 같다고 했소.》

《그러니 뭐라구 합디까?》

《뭐라긴... 방도를 찾아보자고 하더군. 그레 내가 배차권한을 가진 참모장이 뭘 그러느냐구 했더니 하는 말인즉은 별도계획이 있다면서 안심하라는게 아니겠소 으흐흐...》

순간 영진의 얼굴에 얼핏 그늘이 스쳐지나갔다.

꼭 자기한테 한 말과 근사하였다. 무슨 꿍꿍이수를 꾸미고있는것이 분명하였다.

원래 창근이 1중대에서 자라났다.

영진에게서 높은 기능을 배운 그였지만 남달리 승벽이 세고 눈썰미가 빨랐다. 하여 그는 같은

또래의 동무들보다 단연 돋우어졌다. 창근의 자존심은 한껏 자라났다. 그것은 어느덧 영웅심으로 변해갔다. 그는 10만키로 무사고돌파운동에 참가하여 중대에서 제1위의 영예를 차지하였었다.

그런데 그속에 성실치 못한 그늘이 있음을 영진은 뒤늦게야 발견하였다.

자갈운반에서 적재량을 룡간부렸던것이다. 남보다 적게 싣고 빨리 달리는 그 비결이 바로 그것이었다.

영진은 이 문제를 두고 호되게 꾸짖었다. 입당보증인인 그는 창근에게 사상단련의 기회를 마련하여주었다.

눈으로는 도저히 재일수 없는 마음속 량심의 저울을 속였다고...

이 일이 있은후 창근은 판사람으로 보일만큼 겸손하고 성실해져갔다.

영진은 창근의 개변을 못내 기뻐하면서 그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맡기곤하였다.

창근은 포근한 중대의 보급자리에 언제까지 머물러있지 않았다. 보다 중요하고 폭넓은 사업으로 푸드득 것을 펴고 날아갔다.

마치 창근을 위하여 기사장의 자리가 마련된듯 싶었다.

순간에 편득이는 기지는 창근에게 고유한것이여서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그런 독특한것이였다. 책임으로 꼭 들어맞았다.

하지만 여기에는 남모르는 성실성이 필요하였다.

시간이 흘렀다.

동지에서 날아난 어린 새는 눈앞의 황홀한 세계에 심취되어 미처 뒤를 돌아보지 못하지만 엄지새는 아침저녁으로 번거롭게 마음래운다.

한해가 가고 두해째 잡히면서 영진은 창근에게서 또다시 성실성이 아닌 그 어떤 다른 속성을 발견하기 시작하였다.

아직은 꼭 집어서 무어라고 말할수 없는 그런 미묘한것이 바로 창근에게서 움트고있다는것을 영진은 느꼈다.

창근의 결음새가 어쩐지 불안스러웠다. 불안스럽기보다 위태롭게 느껴졌다.

이제 겨우 생활의 출발선에 선 그가 벌써 지뚝 거러서야 종착점까지 어떻게 가닿을것인가...?

영진은 언제인가 바로잡아준 창근의 흠이 다시 되살아나고있음을 보고있었다. 비록 지금은 사업소 책임지휘성원이고 상급이지만 그에게 터놓고 이야기해주어야 하리라 생각하였다.

영진이 한창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부채직장

장이 년지시 한마디 하였다.

《여보 중대장, 기사장동지가 우리 9호지구의 급한 사정을 리해는 해주더군. 젊은 사람이 속궁냥은 깊은데가 있더라말이요.》

생각에 잠겼던 영진은 빙그레 웃으며 부재직장장의 말을 되받았다.

《물론 9호지구의 물동수송이 중요하다하지만 우리 자동차사업소야 어디 9호지구만을 대상으로.》

《그럼?》

부재직장장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얼핏 스치고 지나갔다.

《너무 자기만을 생각지 말고 이따금 아량을 보여줄 때도 있어야지.》

《뭐 아량?》

《물론 나도 스무해나마 사귀여온 부재직장장을 그렇게는 웅졸한 사람으로 생각지 않지. 그러나 <우리가 무얼 도울게 없겠소?> 하고 한마디쯤 물어주었으면 아주 의젓했겠는데... 지금 형편에서 련결차만 있으면 우리 1중대힘만으로도 이 9호지구의 물동량을 기일안에 운반할수 있네.》

《련결차?》

부재직장장은 금시에 귀가 솔깃해졌다.

《그렇네. 그것만 가지면 한탕에 두세몫을 할수 있네.》

《련결차를 만드는 일이라면 우리 기업소가 도울수 있네. 건설에서 절약한 강재도 있겠다, 목재도 있겠다. ...문제될것은 없네.》

《알기는 아누만.》

영진은 빙긋이 웃으며 부재직장장의 손을 으스러지게 잡았다.

3

세멘트를 실은 차들이 꼬리를 물고 건설장에 들어서고있었다. 다른 중대차들이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영진의 얼굴은 굳어졌지만 부재직장장은 환희에 떠있었다. 부재직장장은 벌써 운전칸발디디개를 밟고 밖에 나섰다.

《결국 동무네 기사장이 빈소리군은 아니었소 팬찮단말이요. 그럼 련결차문제는 넘려마요.》

성수가 난 부재직장장은 바빠 하차장으로 가고있었다. 운반수단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는다는 어조였다.

그제서야 영진은 창근이 하던 말이 돌이켜졌다. 바로 그것이 동지적의리로 생각지 않고 취해진 란폭한 조치였다.

꼭 남의 발등을 밟아놓은 그런 심정이였다.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아침까지만 하여도 영진은 집합이 해결되지 않아 세멘트운반을 보류시켰다. 물론 옳았다. 그것은 운반도중의 허실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었다.

그런데 창근은 집합의 담보도 없이 차들을 무턱대고 세멘트실이로 내몰고있지 않는가.

거의 자제력을 잃은 영진은 단숨에 세멘트하차장으로 달려갔다.

그는 한창 하차자동장치에 유압변을 열어주고 있는 한 운전사에게 물었다.

《몇중대 차요?》

한껏 부드럽게 말한다고는 하였지만 영진은 자기 음성이 아닌 그 어떤 귀설은 다른 목소리를 듣는것만 같았다. 영진의 표표한 기상에서 위압을 느낀 운전사는 목안으로 기여드는 목소리로 3중대차라고 대답했다.

《수고했소. 그런데 어떻게 여기를 왔소? 혹시 길을 헛갈린것은 아닐터인데...》

《1중대를 도와주라기에...》

《누가?》

《누군 누구겠습니까? 참모장동지가 아니구서야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동문 뭐요? 참모장이 소금섬을 지고 물속에 뛰어들라면 들겠소?》

《참 이거야 어디 견디겠습니까. 우에서는 강짜로 내려먹이고 아래서는 못견디게 들볶고... 그러니 한중간에 끼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랍니까?》

듣고보니 기막힌 일이였다.

비상예비폰드로 조성한 뭇이 바로 9호지구에 돌려질줄은 차마 몰랐다.

영진은 사업소를 향하여 차를 무섭게 내몰았다.

길이 질척하였다.

진눈까비는 어느새 비로 변하였다.

길가에 고인물이 자주 차바퀴밑에서 짹짹 튀거렸다. 그랬어도 영진은 자동차의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길가에 무엇인가 우중충한 물체가 도사리고있는것이 얼핏 눈에 띄였다.

영진은 재빨리 저속으로 변속시키며 속도를 폭떨거었다. 차가 흠칠거리며 기화기에서 몇번인가 센 채채기소리를 냈다. 차에 무리를 줄가보아 좀해서 제동기를 밟지 않는 영진이고 보면 이런 때이라고 레외로 될수는 없었다.

그는 길센에 차를 세우고 서둘러 운전대에서 내렸다.

1중대의 고장난 차결로 다가갔다.

비에 흠뻑 젖은 운전사는 영진을 보자 반색하며 변명조로 말하였다.

《우물거리다가 결국 덜미를 잡히고만셈이지요.》

운전사의 말을 영진은 대뜸 이해할수 있었다. 아침에 수리공장에 들어가기로 되어있는 차였는데 모름지기 창근의 《총동원령》에 걸려든것 같았다.

《참, 동무는 언제면 그 늑장부리는 버릇이 떨어지겠나? 할수 없지. 또 중대장이 업구 가는수밖에... 어서 떠를 준비하라구.》

영진은 입맛을 다시며 고장난 차를 쇠바줄에 달고 사업소 수리공장으로 끌고갔다.

무엇인가 배반당한 때처럼 마음이 울적하여졌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영진의 생각은 무거워졌다. 믿음이 크면 그만큼 실망도 큰가보다.

차를 넘겨준 영진은 비웃도 걸치지 않은채 수리공장 구내길을 터벅터벅 걸었다.

심중에 맺혀든 생각은 시간이 갈수록 더 격해올랐다.

어쩌다가 창근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던가 싶은 자책감이 모질게 가슴을 후려쳤다.

이대로 내쳐두면 그는 사업소를 어디로 끌고가려는지 모른다.

그시그시 메꿈질을 하는 한 책임일군의 일본새를 두고 영진의 가슴은 답답하여지기만 하였다. 무어라 말할수 없는 번민이 조수처럼 몰려들었다.

긴장한 물동을 매번 창근이식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겠는가...?

한 전선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전선을 죽이는... 이것은 련쇄된 고리에 불균형을 조성할뿐이다.

영진은 그 어떤 견잡을수 없는 후과를 눈앞에 보는것만 같았다.

경황없이 걷던 그는 문득 차량직장 뒤마당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만들다가 만 련결차 본체가 여기저기 어수선하게 널려져있었다.

적재함에 대일 판넬이며 규격강재 그리고 쇠바퀴들이 마련이 없는것 같았다.

물론 창근의 말대로 제작조건이 풀리지 않아 일을 중도반단했을것이다.

그러나 영진은 이 작은 부분속에서 창근의 전

모를 보고있었다.

사업소의 규모가 커지고 자동차의 대수가 늘어난 오늘 창근은 련결차제작을 운전사들만큼 절박한것으로 느끼지 않고있다.

9호지구의 물동이나 제끼고 보자는 심산이다.

무엇인가 못견디게 아프고 날카로운것이 눈을 찌르고드는것만 같았다. 영진은 지금껏 해온 자기의 안일한 일본새를 깊이 뉘우쳤다.

능히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였는가.

영진은 자동차수송을 더욱 원만히 풀기 위해 심려하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자기들이 아직 기쁨을 드리지 못한것이 몹시 가슴아팠다.

(어떤 불리한 조건에 봉착한다 해도 우리앞에 맡겨진 수송과제를 영예롭게 완수해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는것이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 드리는 길이다.)

영진은 저도모르게 만들다가만 련결차앞으로 다가섰다. 이윽고 결심을 내린 그는 호주머니에서 자그마한 수첩을 꺼내어 가능성을 따져보며 그것을 하나하나 적어나갔다. 판넬, 모서리철판, 다이아 그리고 스프링 등등... 어렵짐작으로도 부분품과 로력만 대면 20여대의 새 련결차를 며칠 안으로 뽑을수 있을것 같았다.

순간 영진은 심한 가책을 느꼈다. 지금 형편에서 련결차 20여대면 어딘가싶었다. 확실히 그는 눈뜨고도 근시안이 된것만 같았다.

(머리가 이 지경으로 녹이 쓸 때까지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있었는가?)

가책은 사정없이 가슴을 허비고들었다.

자기만이 아닌 사업소일군들도 이 예비를 보지 못하고있다.

창근은 한사코 련결차제작문제를 9호지구의 긴급수송이나 끝내놓고 보자고 한다.

모두들 눈이 어두웠다.

한치알도 내다보지 못한다.

이대로 나간다면 사업소는 조만간에 큰 암초에 부딪칠것만 같았다.

영진은 사령탑에서 배의 항로를 지휘하는 창근을 생각하며 부르르 몸을 떨었다.

지금 창근이가 이 자리에 없는것이 어쩐지 서운했다.

그 어떤 위험신호가 금시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그는 급히 기사장실을 찾아갔다.

4

창근은 몹시 바빴다.

사령탑에서 난파선을 지휘하는것처럼 쨍쨍매었다. 어떻게 할바를 몰라 갈팡질팡하였다.

사령실에서 전화가 왔다.

1층대에 빼돌린 자동차들을 즉시 되돌려달라고 저마끔 아우성이라고 한다.

창근은 미간을 찡기었다.

《안된다구 하오.》

이때 영진이 기사장실에 들어섰으나 창근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있었다.

《기사장동지, 그럼 다른 전선은 허물어져도 괜찮단말입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사태를 혁신시킬만한 안이 아직은 없었다.

검질긴 사령원은 좀체로 창근을 놓아주지 않았다.

《어떻게 하랍니까?》

《안된다고 하라는데두...》 창근은 이 한마디를 되풀이할뿐이었다.

《기사장, 그만하지요.》

영진의 말이 울려서야 그를 발견한 창근이는 흠칠 놀라며 수화기를 팽개치듯 덜커덕 놓고말았다. 그러나 그 놀라움은 인차 반가움으로 변하였다. 세상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영진이만은 자기를 옳게 이해해줄것만 같았다.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창근은 도선교구배선사고를 녀두에 두고 물었다.

《련결차에 짐을 너무 실었더군. 본인의 운전기술은 고려치 않고...》

영진의 말을 제나름으로 이해한 창근은

《그걸 보시오. 그러게 제가 뭐라고 함디까. 9호지구의 수송은 다른 층대의 도움을 받아하구 련결차문제는 그다음 풀자고 하지 않아요. 너무 고집쓰면 그런 봉변을 당해요.》

하고 제법 설복하려고 들었다.

《뭐라고?!》

창근을 쏘아보는 영진의 시선은 여느때없이 날카로왔다. 한동안 두 눈길이 마주쳐 허공중에서 불꽃을 튀기고있었다. 창근은 종시 영진의 눈길을 건디지 못하여 외면하였다. 그리고는 타협하는 어조로 자신없이 말하였다.

《중대장동지도 들었으면 알겠지만... 이거야 어디... 모든것이 뒤죽박죽이예요.》

창근은 송수화기를 건너다보며 푸념을 토설하였다.

《창근이, 언제부터 사람이 그렇게 되었나?》

영진의 엄한 목소리가 쩡 울리었다.

《9호지구의 긴급수송에 차를 좀 돌려더니 입 가진 사람은 죄다 항변입니다. 이제는 저도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창근은 맥이 풀리었다.

《그래 9호지구의 수송을 그런 식으로만 풀려고 생각해왔나?》

《저도 할대로 다 해보았는데... 달리는 방법이 서지 않습니다.》

창근의 말을 들으면서 영진은 한가닥 련민의 정을 느끼었다.

(한 당원이 이렇게 될 때까지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있었는가...?)

물음은 심각하였지만 영진은 대답할 말을 고르지 못하고있었다. 심한 자책의 물결이 가슴을 사정없이 두드렸다.

그는 창근이 걷는 길이 위태롭게 느껴졌다.

《우리는 지금...》

영진의 목소리는 지심깊이에서 울려오는것만 같이 웅글게 들리었다.

《우리는 지금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수송혁명을 하고있어. 그런데 기사장은 이 수송혁명을 어떻게 대하고있나?》

《예? 뭐라고요?》

눈을 치르는 창근의 어조에서 아연해하는 빛이 내풍겼다. 실망을 누르는 기색이 확연하였다.

남몰래 생각해줘도 아예 모르쇠를 하는 영진이 야속스러웠다.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것이다. 들볶이우지도 않았을것이다.

《저의 마음은 지금도 1층대에서 살고있습니다.》

창근의 심중에 갈마드는 의견은 어쩔수없이 그의 얼굴에 내비치었다.

《바로 그것이 위험하단말이요. 1층대가 무엇이기에 다른 층대를 희생시키려드는건가?》

영진의 목소리는 그 어떤 무게를 가지고 방안에 울렸다. 순간 창근의 가슴속에서 그 어떤 향변이 꿈틀거리었다.

여태 참고참아오던것의 폭발일는지 모른다.

《뭐라고요...? 사실 저는 9호지구의 긴급수송문제를 1층대에 한한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것이 지금에 와서...》

속이 뒤틀린 창근은 영진의 충고를 단호히 반발해나섰다.

《좋아, 그만하라구, 그런데 임자는 불을 끄는 소방대가 아니라 기업소의 참모장이야. 알겠나? 하다면 제 위치를 옳게 지켜야지...》

영진의 말은 뜨직뜨직했으나 놀라운 침투력을 가지고있었다.

《임자도 자동차를 몰던 사람이니까 잘 알러이지만... 눈으로는 앞을 주시해야 하고 뒤로는 기관부의 미세한 소리까지 분별해야 되고 코로는 열을 받는 부분을 예민하게 포착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못할 때는 큰변이 나거던...》

창근은 영진의 말뜻을 깨달았다.

사업소가 옮겨 걸어가도록 잘 운전하는것이 기사장이라는것을 소박하게 표현하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균형이 찌그러지지 않게 그리고 뒤지는 중대도 없이...

영진은 말을 계속하고있었다. 과묵한 그 성미에 견주면 여느때없이 말이 많다.

《...잔재간은 로동계급의 정신이 아니야. 물론 사업소의 움직임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것이 기사장이라고는 하지만 호령은 하지 말아야지. 애꿎은 두꺼비 떡돌에 치운다고 우리 1중대때문에 다른 중대가 화를 입어서야 될말인가? 영?》

《화를 입는다구요? 런던성인데두요?》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니 임자의 생각은 이제 마비되었다고 볼수밖에... 기사장실밖의것은 보지도 듣지도 냄새도 모를만큼 되었어. 무엇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오불관이야. 앉아서 좋은 조건만을 바라지 말고 좀 나다니라구. 임자가 한사코 제작조건의 마련이 없다면 련결차의 본체들이 차량직장의 뒤마당에서 썩고있네.》

영진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었다. 그는 가까스로 흥분을 누르고있는것이 분명하였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기로서니 대수리에 들어가야 할 차까지 깡그리 동원해야 하겠나? 그 생각이면 왜 련결차를 만들 생각은 못하나?》 영진은 길가에 벗어섰던 차를 상기시켰다.

《그래 자네는 이걸 보고도 마음이 편하던가? 나는 이걸 놓고 수송혁명을 하는 우리들의 량심을 생각해보았네. 아마 내가 입당보증인구실을 푹푹히 하지 못한것 같네...》

영진은 무엇인가를 더 말하려고 하였으나 가슴에서 치미는 오열을 새길 길이 없어 말끝을 흐리었다.

영진은 한동안 창밖을 내다보더니 기사장실을 나갔다.

순간 걸잡을수 없는 충격이 창근의 가슴을 호되게 후려쳤다. 것처럼 소란스럽던 사무실안이 갑자기 텅 빈것만 같았다. 새삼스레 영진의 체적이 방안을 가득히 채우고있었다는것을 창근은 느꼈다. 그것은 그 어떤 량적인 크기으로써가 아니라 눈에 띄우지 않는 거대한 정신력이었다.

창근의 얼굴은 핼썩하여졌다.

비오는 밖으로 터벅터벅 걸어나가는 영진의 뒤모습속에서 창근은 자기를 아껴주는 뜨거운 마음을 보고있었다.

여느때없이 허청거리는 걸음새며 구부정해보이는 등허리를 지켜보면서 창근은 영진의 피로와하는 심정을 리해할수 있었다.

자기때문이다. 바로 자기때문에 비오는 속을 시름에 겨워 걷고있는것이다.

갑자기 그가 측은하게 느껴졌다. 창근은 한달

음으로 달려가 영진의 손을 잡고싶었다. 그러나 창근의 귀전에는 아직도 영진의 목소리가 쟁쟁히 울려오는것만 같았다.

《...수송혁명을 하는 우리들의 량심이 어떻게 되어야 하겠나?》

너무도 아프게 찌르고드는 말이였다. 그 말은 한걸음 앞으로 내디딘 창근의 발걸음을 움츠려들게 하였다.

물론 참되게 살기를 꾸짖어준 영진의 충고가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다. 그러나 지금 이 마당에서 그를 만나기가 거북스러웠다. 창근은 스스로 얼굴이 핫핫 달아올랐다.

창근은 성실치 못하게 살아온 자기를 금시 눈앞에 보고있었다.

사무실안이 갑자기 못견디게 무더워졌다. 외계와 담을 쌓고 살아온 창근은 창문을 활짝 티워놓았다. 시원한 비바람이 충격된 마음을 식혀주었다.

창근의 사업에서 열이면 아홉은 아래에 명령하는것이였다. 추궁도 독촉도 지시도 하나 망설일것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따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곤하였다.

이에 습관되어온 창근은 단순치 않은 사람들의 심리쯤은 문제로도 삼지 않았다. 그저 명명이면 되었었다. 그는 아직 명령을 받기보다 명령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모르고있었다.

창근은 사무실안이 견딜수없이 답답하여 밖으로 나왔다.

그는 속보관에서 영진의 얼굴을 보았다. 속사한것이였으나 짙은 눈썹밑의 생기있는 눈은 여느때없이 엄해보이였다.

남의 등에 업히려가기를 원치 않는 영진이고 보면 《모범중대장》이라고 했으니 그것이 본인에게는 얼마나 욕되었을것인가.

창근은 속보관속의 영진이를 감히 마주볼수가 없었다.

사업소 구내길을 걷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기사장실이 달린 본청사도, 띠엮띠엮 떨어져있는 중대지휘부도 오늘따라 그 어떤 절절한 호소를 창근에게 하는듯만싶었다. 그는 죄지은 사람처럼 머리를 수굿하고 차량직장 뒤마당으로 갔다. 한눈에 영진의 호된 충고를 확인할수 있었다.

시급히 완성하여야 할 련결차들이 각이 진채 버림받고있었다. 물론 그 부분을 만드는데 손포도 시간도 기술도 딸리였다.

그러나 언제까지 조건의 성숙만을 기다려야 했던것인가...

창근은 누가 보지나 않는가 두려웠다. 그는 쫓기는 사람의 마음이 되어 련결차사이를 누비여나갔다. 그러는데 문득 마주다가오는 수리공장 공장장과 맞부딪쳤다.

《방금 기사장동무 이야기를 하던 참인데… 하하하 참 신통한 일이군.》

창근의 마음속을 알길 없는 공장장은 제기분에 겨워 첫마디부터 톡조였다.

《방금 1중대장한테서 된통을 겪었는데… 이번에는 또 기사장동무한테서…》

《뭘 죄를 단단히 지은게로군요.》

창근이 역시 가벼운 톡으로 받았다.

《내가 그만 망녕이 들어서 련결차들을 만들다 말고 뒤마당에 묵여두었수다. 자동차수리에만 편중하고… 차량직장 로력까지 몽땅…》

창근의 얼굴은 대번에 굳어졌다. 영진이 그럴 마음아파하던 까닭을 지금에야 알수 있었다.

《내 기사장앞에서 다짐하겠수다. 이틀안으로 만들다가 쥐여버린 련결차부본들을 말끔히 조립해놓겠수다.》

《이틀안으로요?》

공장장의 말에 창근은 흠칫 놀래였다.

《이거 빗진 죄인이라 하는수없군요. 그럼 내 앞으로의 새 련결차 제작에 기술로력을 전적으로 대겠수다.》

공장장이 돌아가자 창근은 홀로 남았다.

사업소적으로 쓰일 련결차들을 새로 만들자면 규격강제는 얼마나 들며 다이야는 얼마이면 될것인가? 창근의 머리는 기민하게 움직였다.

석양녘부터 날이 개이기 시작하였다.

수리공장마당에는 삼단같은 모닥불이 타올랐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강제와 목재를 실은 차들이 들이닥쳤다. 어떻게 된 일인가?!…

창근은 방금전에 있는 영진이와의 충돌을 상기하면서 자기와 영진의 같지 않은 바로 그 점을 지금 생각하고있었다. 사람들은 자기와는 달리 심리에 한마디씩 하는 영진의 말에 발벗고나선다.

무엇때문이겠는가…? 그 견인력은…?

창근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맞물리지 않은 자재들이 어디서 오는것이겠는가…?

어리짐작으로도 많은 련결차를 만들 강제이며 목재였다.

사업소 지배인이 나오고 영진이 달려나왔다.

44호차의 운전칸에서 건설기업소의 부재직장장이 내렸다.

《수고했네.》

영진이 덥석 부재직장장의 손을 잡았다.

《이거면 되겠는지 모르겠구만… 우리 지원이 너무 늦었는가보네.》

순간 창근은 뒤통수를 호되게 얻어맞은 때처럼 머리가 뻥하였다.

《고맙네.》 영진은 다시 한번 부재직장장의 손을

쥐었다.

《기사장동지가 보이지 않는구만.》

《련결차때문에 몹시 분주해하네.》

창근은 어쩐지 사람들앞에 나서기가 거북하여 졌다.

어떻게든 전진대오에서 번두리로 밀려난 자기를 손을 뻗쳐 줄기찬 흐름속에 이끌어준 영진의 웅심깊은 속마음을 이제야 겨우 알것만 같았다.

사람들앞에서는 내세워주고 단들이 있을 때는 엄하게 꾸짖어주는 영진의 뜨거운 마음을 왜 리해하지 못했던가…

순간 가슴치는 충격이 몽클하게 치솟아올랐다.

창근은 찻찻한것을 꿀꺽 삼키었다.

툽소리, 마치소리, 노래소리들이 높은 가운데 융점불광들이 축포처럼 눈부신 황금빛 꽃보라를 휘뿌리었다.

경제선동대의 확성기소리는 대기를 흔들었다.

…수송전선의 비약의 날개는 바야흐로 준비되고있습니다. 우리모두 1중대의 주인다운 일본새를 따라배웁시다.…”

창근은 어둠속에서 마치질을 하는 영진의 억센 손을 보았다. 크고 굳은 살이 박힌 마디진 손이었다. 언제나 믿음이 가는 후더운 손이었다. 그 손에 조향륜을 잡고 지구돌레를 수십 아니 수백 번 돌았을 영진이었다.

영진은 그 손으로 지금 새로 갈아댄 련결차 쇠바퀴테에 다이야를 끼우고있었다. 그는 끝이 없는 행군길을 또 달려가게 될것이다.

창근은 영진에게서 로당원의 성실성을 보고있었다. 하루를 살아도 깨끗한 량심을 지니고 영진 이처럼 살아야겠다는것을 창근은 통감하였다.

창근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쇠바퀴테의 큰 나사를 조이기 시작하였다.

《중대장동지!》

창근은 울먹이면서 이 한마디속에 마음속의 모든것을 담았다.

《나왔구만…》

영진은 미더운 눈으로 한동안 창근이를 지켜보고있었다.

《이젠 9호지구의 긴급수송도 문제없군요.》

《그럼 한고린 폴린셈이지. 허허허… 하지만 9호지구만 풀려서야 되겠나. 련결차를 더 많이 만들자구.》

동녘이 불그스레 물들었다. 어느새 날이 밝아왔다.

도장공들이 새로 태어난 련결차들에 싱싱한 락카를 입히고있었다.

한대… 또 한대…

아침노을에 물든 련결차들은 마치 출전명령을 기다리는 기동부대처럼 장엄하게 보이었다.

우리는 만수대언덕을 내려왔다

김정곤

우리는 만수대언덕을 내려왔다

이 벌에서

첫 편지를 띄운다

별님아

자랑을 안고 쓰는 편지가 아니다

머리말에 일기장을 펴놓고

서로 바꿔보며 웃고 얼굴 붉히던

학창의 그 밤이 그리워 쓰는것도 아니다

하루사업을 총화지으며 언제나

내 마음이 향해가는곳

우리가 손잡고 나란히 오르던

만수대의 언덕이

지금 내 가슴에 높이 솟아있다

백두에서 내려온 혁명의 전위들

나뭇기는 기폭아래 방금 벗어선듯

백포자락에 안아온 백두의 바람이

온몸을 잡아흔들던 그 언덕

크나큰 믿음에 안겨 가슴들먹이는 우리들을

손저어 내려주시던 아버지수령님

항일의 나날

공작의 먼길 보내시던 밀영의 그 새벽이

우리의 머리우에 황황 불붙던 언덕

밀영너머 새 전구로 또 떠나가는듯

목도리 날리며 웃음 짓는 너전사앞에

우리 말없이 나란히 다가서서

별님아 너는

이슬젖은 그 고무신을 쳐다보면서

뜨겁게 뜨겁게 내 손 잡아주었지

아 그 웃음 밝은 어깨너머

백두의 설한풍에 날리던 기발을

3대혁명 세폭의 붉은기로 퍼들고

나는 분계연선 비내리는 발머리로

너는 기계공장의 구내길로

걸음마다 땀을 안고 내려왔다

별님아

우리 서로 말없이 매여주던

눈물에 젖은 옷고름이

지금은

별바람에 나뭇킨다

아아! 하늘을 떠밀며 설레이는 이삭들이

만수대의 창문에 비껴 넘치라고

가슴은 그 무슨 이랑처럼

이삭을 안고 숨쉬며 부풀고

그 언덕에서 안아온 충성과 열정이

가슴들에 소리치며 굽이치라고

농장마을 집집의 대문을 두드리며

온 벌이 다 듣게 더 높아진 목소리...

아! 어둠에 짓눌린 피창들을

백두를 향해 열어놓고

별 없는 그 밤을 또 걸어간 발걸음에

내 자욱을 맞추며 달리는 마음

달리고 달려도 차마 모자라는 이 마음은

아아! 사령부 등잔불에 비낀 조국을

백두에서 안아온 혁명의 첫 전위들

신들메 아직 풀지 않은 만수대언덕에

이 벌을 이끌고

구내를 이끌고

우리는 어떻게 올라서야 하는것이라

그 너전사의 어깨에 날리던 목도리

지금은 우리들 가슴에 나뭇기고있지 않느냐

그 고무신에 어린 이슬이

우리들 발목에 젖지 않느냐

별님아

나의 동무들아

우리는 만수대언덕에서 내려왔다!

우리앞에 그 언덕이 솟아있다!

보둑에 앉아 쓴 편지

눈내리는 보둑에 앉아
이 편지를 쓴다

혼자서는 이 걱정 누를수 없어
너를 불러 쓰자니
차마 적을수 없어
손을 대어보는 가슴
가슴이 터질듯

별님아
방금
우리 발머리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오시였단다

자옥한 눈발속에 환하신 안광
손을 흔드시며 마주오시며
몸 가까이 나를
혁명소조원 나를 먼저 부르시는 인자하신 음성

멀리 초소로 가시는 길에
보고싶어 잠간 들리셨다고
나의 두볼을 만져주시며
별바람에 얼굴이 다 텃다고
어디 손도 좀 잡아보자고...

그리고
나의 어깨우에 앉은 눈송이를
자꾸만
자꾸만 털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

왈각 눈물이 쏟아질가봐
한마디 말조차 할수 없었단다

이게 정말 너란말이나
학생모밀에 빛나는 눈
《로동신문》에서 웃는 네 얼굴
별님아
와락 불안아주고싶구나

어버이수령님 어깨우에
자꾸만
자꾸만 쌓이는 눈송이 눈송이

이렇게 눈비 맞으시는 어버이수령님
어느날 내 기록영화에서 바라보면서
두볼 적시며 소리내여 울던 마음
이렇게 오늘은 눈내리는 벌에 모시였으니

아아! 지금은 내 울수 없었다
수령님 어깨우에 쌓이는 흰눈을
어찌 흐려진 눈으로 쳐다볼수 있겠느냐
별님아!

오가자의 언덕에 날리던 솟눈이
근거지 발머리에 휘말던 눈바람이
그리고 흰눈 쌓이는 어깨너머
내 가슴 미여지게 내려앉고있다

별님아
언제면 우리 이 두손 모아
그 흰눈 다 털어드릴수 있단말이나

벼꽃 설레이는 맑은 바람이면
금나락 일렁이는 풍년바람이면
어깨우에 흰눈
정히 내려드릴수 있을것이라

아아! 별님아
나는 지금
그날만을 쳐다보고있다
우리 그날만을 위해 살자!

투쟁은 앞에 있다

열두번째 실패를 이겨냈단말이지
기어이 성공한 열처리자동장치
하얀 위생복 입은 주물공아바이를
원격조종실에 처음 앉힐 때
너는 울었다지

부럽다 자랑스럽다
강의실에서 익힌 과학의 수치들이
우리들 뜨거운 심장의 용암을 안고
3대혁명 기발아래
새 음향으로 태어나고있구나

별님아
당보를 퍼드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지금
그 얼마나 기뻐하시랴

이 벌에도
그 어느 아담한 방에 자동장치가 있어
단추만 누르면 다투어 오곡이 되고
찬바람도 몰아 훈풍을 불어오게 한다면...

정말 기쁘다!
별님아
네가
겹치는 실패를 디디고 일어선것이,
어버이수령님 가르치심이라면
추호도 양보 없었던 그 신념이!

호수같은 그 조용한 마음속에
그 언제 이런 파도를 자래왔느냐
너는 우리에게 말하고있구나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그렇다!
투쟁을 언제나 첫 시작에 두고
생활을 떠미는 그 정력을
너는 벌써 걸음발로 내짚었구나
우리의 발목에 감기는 낡은 사상들이
지금도 길바닥에 돌부리처럼 머리 들고있으니

아 정말
마을에 꽃밭을 가꾸는 황홀한 로동조차
생활에선 레사롭지 않더라
투쟁! 투쟁!
투쟁만이 꽃길도 생활의 한구간에 열리지더라

투쟁! 투쟁만이 또한 이렇게도
너의 웃음
더 아름답게 피워놓았구나.

나는 별로 간다!
별님아!
온몸엔 새힘이 약동한다
노래 부르고싶다
투쟁은 앞에 있다!
앞에 있는 투쟁속에 젊음이 빛난다!

일기장에 쓴 편지

별님아
오늘 잠깐
대학에 들려왔단다

우리 나란히 앉던
교탁과 마주 세번째줄 책상에 앉으니
아무렴 우리야
다름없는 학생이지

교문을 나서면 그 황홀한 미래가
어디선가 몸가까이 오는것만 같아
지그시 두눈 감고 서보는 그 버릇도 어디
갔을라구

기숙사 호실 거울앞에서
실빈을 입에 물고
젖은 손으로 머리를 도닥거리던 그 버릇도
엄한 스승앞에선 숙제 답이 맞아도
가슴 두근거리는 그 마음도

행주치마 늘 젖어있는 합숙어머니
하루밤만 목어가라고 두손 잡아줄 때
못이겨 안기며 아이가 되는 그 어리광도...

별님아
마음 붙드는 정 깊은 호실문을 나서서
끝내는 벌을 향해
걸음을 떼어놓았지

아, 참말 이것은
그 언제 생겨난 마음일까
해밖은 실험실과 강의실
해광에 이슬이 덩구는 온실과 시험포전
우리들 꿈이 아롱이던 푸른 창문들을
어쩌면
농장으로 다 날라오고싶은 마음

지고라도 오고싶어
다시 또
돌아서보는 이 마음은

발끝으로 조용히
대학 강의실의 긴 복도를 걸던 걸음이
이 벌의 진창을 밟으며 눈비를 맞으며
어느 풀섶에 매혹을 비벼떨며
그렇게도 뛰던 나날속에
별과 함께 자라난 마음일까

손바닥에 이삭을 비벼보며
한알 두알...
가슴 울렁거리며 세여가던 그 수자를 거쳐
어느사이 이삭처럼 가슴에 영글은것일가

아, 한포기 시들어가는 강냉이잎을 놓고도
마음이 그대로 눈물이 되어 뿜던 그 밤과
그 마음 바람이 되어 쓰다듬던 벼꽃속에 안겨
더 아름다와진 심정의 새싹일가

아아! 땅을 안고
땅을 밟으며
어느사이 이렇게 자란것인가
이 세상 귀한 모든것을 이 땅에
꿈도 미래도 사랑도
깡그리 이 땅에 주고 더 주고싶은 마음
이 뜨거운 심정과 열정이
그 어느사이 우리 가슴에
크나큰 씨앗으로 심어졌구나

만수대언덕을 내려온 나의 동무들에게

설레이는 이삭의 파도에 실려
등등 떠가듯 춤추듯
벌 한끝에 나서니
녹슨 이발을 세우고
분계선 철조망이 마주선다

뒤에는 땅이 겹도록 실린 난알의 무게
앞에는 소슬바람에도 휘말리는 갈이파리
금나락우에 번쩍이는 창문들이 남향으로
열렸는데
이영삭은 검은 처마가 마주
이 가슴에 안겨 무너진다

달려온 트랙포르도 여기서 보습을 세운다
도랑물도 여기서 향방을 잃고 맴돈다
높아진 기계의 동음에 하늘도 들리는 땅
마주선 앞에는 한치
보습조차 옮겨댈수 없다

오! 손을 댈수 없어
가슴으로 어루만지는 땅
내 짚을수가 없어
마음에 휘감아둔 걸음은
풀어헤치면
하늘끝에도 맞닿으리니

돌아설수 없다!
입김으로 첫눈을 불며
그렇게도 들달리던 두렁길과 밭이랑
씨앗을 묻으며 이삭을 가꾸며
분초를 다뤄 달려온 걸음이
차마
한발자욱도 내딛지 못했던말인가

오! 여기 한치 앞에는
어버이수령님 심려속에
너무도 큰 불모의 땅이 누워있구나
만수대언덕을 내려온 나의 동무들아!

오! 돌아설수 없노라
백두에서 내린 혁명의 첫 전위들
지금도 언 감발 풀지 못하고
땅을 구르며
이 가슴 두드리고있지 않느냐

하늘끝까지
만풍의 가을이 익어 뒤설레여도
불먼지 날리는 저 땅을 앞에 두고
마음에 묻어둔 씨앗은
이 가슴에 터질듯 부풀고있다

오, 돌아설수 없노라!
이삭도 바람도 기계소리도
남녘으로 굽이치는 이 락원의 한끝에 서서
나는 지금
저 남녘땅
첫 물길 열어갈 기슭과
잡초 휘여눕히며
첫 보습을 댈 이랑과
씨앗을 묻고 첫나래 덮어줄 그 봄의 새벽을
가슴 저리도록 보고 또 보고있노라

아! 우리들 발걸음이 그날을 이어놓을 때
나의 동무들아
만수대언덕을 향해 우리는
또 한발자욱!
큰 걸음으로 다가서는것이 아니겠느냐!

무지개비낀 발머리에서

리종섭

피플새도 더위에 목이 갈리고
물벼들조차 불별에 시드는 한낮에도
푸르싱싱한 논밭을 흐뭇이 바라보노라니
문득 소낙비 퍼붓는 소리
아, 강냉이밭에 쏟아지는 물소리여

아이들도 좋아라 손뼉을 친다
물바람을 마시며 나도 이끌려간다
발머리에 깊이 관 우물속에서
이동양수기 물을 퍼서 뿌리니
마른날에 무지개가 하늘가에 서는구나

앞을 보랴, 뒤를 보랴
저 산 넘어온 보물이 이랑이랑 흐르고
다락밭 줄짙에서 물 뿜아올리는 소리에
강냉이 움쉴움쉴 키를 솟구니
가뭇이 무엇이냐, 삼복도 물소리에 다 젖는구나

한랭전선이 몰아오는 왕가물이
조국땅 한치에도 범접을 못하게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농법의 열쇠를 안겨주시어
태고의 땅을 열어제끼고 생명수를 끌어올리니
대지가 비를 쏟는 전환의 세월이 펼쳐졌구나

아, 그 옛날 재갈이 탄 흙밭에 여윈 싹을
돋쳐놓고
비구름을 기다려 하늘만을 바라보던
원한의 그 세월은 우리 할아버지들 과거,
물풍년 나락풍년을 조국땅에 펼쳐주신
수령님에 대한 고마움에 목이 메여라

보아라, 한랭전선을 맞받아
하늘공중으로 물을 싸올리는 장쾌함이며
자연의 변덕앞에서 이 땅을 수호하는듯
물호스는 포신처럼 머리 높이 들었구나

온 세상이 목이 말라 아우성치는 때
하늘이야 비를 주든 말든
사람이 비를 만들어 비를 뿌리며
올해도 850만톤의 풍년가을을 불러오나니

논에만 물풍년인가, 밭에도 물풍년
가물수록 물소리 더욱 높은 내 나라
무지개밭에 웃음도 자랑도 함께 없어놓고
대술처럼 우거진 강냉이발머리에 섰노라니
머리위에 쏟아지는 비, 비...
땅도 깊이 젖는구나
아, 가슴도 시원해라

황진포구의 달밤 외 1편

구희철

하얀 달빛이 흘러내려
은조각을 천리에 널어놓은듯
천만조각의 파도 하나가 되어
조용히 흔들리우는 바다

금방 배 닿은 잔교우에선
억양 높은 함경도 녀인들의 사투리
밤바람에 실리어
싫지 않게 들려오는 달밤의 포구

긴 장대 가로세로 모래우에 박은
바다기슭 건조장에선
녀인들 달빛아래 거두고 너는

구수히 낙지냄새 풍기는 밤

먼 수평선 한끝에선
낙지잡이 떠나간 배들
바다우에 내려앉은 별무리인가
등불을 깜박이며 총총

기슭이 바다를 안았는가
바다가 기슭을 흔들어주는가
황진포구의 달밤이여!
너 이토록 아름다움에 날 취하게 하누나

황진리

조국땅 외진 기슭의 작은 포구여
너는 너의 그 아름다움으로
달빛아래 잠 못드는 마을을 불러냈구나.

너의 기슭을 걷고 또 걷노라
한껏 행복에 취해 걷노라
시원한 바다바람에 섞여 흐르는
달빛을 섬처럼 마구 들이키며...

발목을 묻는 모래불이어서
이토록 발걸음 옮기기가 어려운가
폭폭 빠지는 모래불에
깊은 생각도 함께 묻어가는 달밤이여!

오, 황진포구의 달밤이여!
너는 그 신비로운 아름다움으로
내 마음을 몽땅 사로잡았다만
내 지금 목메여 네 기슭을 걷는것은

이 땅 그 어디로 가도
아버이수령님 사랑이 파도쳐와서
가는곳마다 정들고
행복의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서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바다!
아름다운 밤 아름다운 마음이 어울린
황진포구여 네 기슭에 서니
바다처럼 파도처럼 이 마음 진정할수 없구나!

시대에 대한 생각

가을 락엽이 흩날리는
해 저물던 들길우에서
누이야 널 바라던 그날은
세월이 흘러가고 또 가도
그 서럽던 길에 날 불러세우는구나

들끝으로 굽이쳐간
수레자옥우에 핀 민들레꽃씨가
리별의 한숨에 날려가던 그날이
행복한 날에도 늘 내 마음속에 있구나

낮 모를 엄마 등에 업혀
네가 팔려가던 날
조마구만한 감자알 먹다만것을
그래도 너의 오빠 된 마음으로
그 손에 쥐여주던 때
세상 처음 그 모진 세월이 주던
쓰디쓴 눈물맛을
나는 철이르게 알았구나

이슬 내린 들길
풀잎에 맺힌 찬이슬우에
리별의 더운 눈물이 맺히던 그날은
오, 하많은 세월이 흘러갔어도
내 마음의 상처우에 눈물로 남아있다

이렇게 헤어졌더라
혈육들이,
이웃들이,
온 조선 동포들이
가을락엽처럼 흩어져가며
소리없이 떨구던 눈물의 소나기로
잃은 조국땅을 적시며...

그 피멍든 하늘아래서
그 피맺힌 땅우에 흘린 더운 눈물
세월의 모진 바람도 떨구지 못한
해빛도 마르게 못한

우리 오누이가 흘린
그 리별의 눈물,
우리 인민이 흘린
그 원한의 눈물을
아버이수령님의 파사로운 사랑만이
은혜로운 손길이 되어 씻어줄수 있었구나

오, 그때로부터 그때로부터
우리 수령님의 품에 안겨
영원히 리별을 모르고 살아가
위대한 수령님 모신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살아가

동트는 동해선

석광희

늘 보게 되는 철의 기지다
언제나 반겨주는 농장벌이다
하건만-
날마다 새롭게만 여겨지는
동해선 동해선
가슴 후련히 동트는 동해선이다

낮익은 차굴을 빠져나가면
새 철탑이 노을속에 키를 솟우고
흰과도 부서지는 도래굽을 돌아서면
다락밭이 기다린듯 총총이 마주오고
기쁨에 이어 기쁨이 안겨오는
새 공장 새 거리 새 학교 새 문화주택...

이래서
비뿌리는 험한 령앞에서도
입가엔 저절로 웃음이 어리었던가
이래서
밤을 도와 천리를 달려왔어도
첫걸음을 땀 그때처럼 힘든줄 몰랐던가

언제나처럼 집집의 창문을 열고
언제나처럼 트랙포르들 벌로 나간다
출근길에 오른 공장동무들아
흔들어주는 그 손을 잡아보고싶구나
풍어기 날리며 돌아오는 어로공동무들아
받아다오, 축하의 이 기적소리를!

교대와 교대를 이어
또 하루 로동을 시작한 조국
넓으나 넓은 이 땅 그 어디에
빈자리가 있는가
가도가도 끝이 없는 석탄산 비료산 과일산...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
그 모양, 그 크기, 그 빛같이
익어가는 낱알의 무게까지도
순간마다 달라지는 들판이다

실어내도 실어내도 높이만 솟는
인민의 재부여

오, 그속에
온 나라에 한시바빠 전해야 할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이 있어
달리고 달려도 더딘것만 같아
바람이 되고 번개가 되고싶다
더 멀리, 더 빨리
조국땅을 통채로 심고 달리고싶다

어서 가자 《붉은기》호 기관차야
령은 날아서 넘고
강은 뛰어서 건너자
승리의 붉은 신호등 보일 때까지
달아오른 심장을 식히지 말자

마주오는 산
흘러가는 푸른 벌
내가 달려가는가
산천이 달려오는가
강철바퀴의 가락맞는 장단을 치며
조국이 온통 줄담음치는듯...

늘 보게 되는 도시다
언제나 반겨주는 마을이다
하건만-
불 때마다 변하고 새로와지는
비약의 나라를 편 조국이어

내 혼자 바라보기엔
너무나도 벅찬 새벽길이다
진정할길 바이없는 그 걱정을
장쾌한 기적소리로 한껏 떨치니
땅이 받고 하늘이 화답하는가
동해선 동해선
붉은기를 단 앞머리 번쩍 쳐들고
내 언제나 달리는 길은 동트는 길이다!

전 환

리정수

1

아침안개가 교회당을 둘러싸며 얇은 면사포처럼 주위에 퍼졌다. 그 안개속으로 흰옷 입은 중년녀인이 혼자 조용히 걸어들어와 교회당 문을 열었다. 그는 1년전에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손정옥부인이다.

일요일이었으나 아직 이른아침이라 교회당안은 고요히 비어있었다. 정옥부인은 빈 회당안에 들어가 앉자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했다. 사랑하는 외아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는 오래오래 기도를 했다.

그가 기도를 마치고 머리를 들 때 뒤에서 조심스런 발자욱소리가 났다. 정옥부인은 뒤를 돌아보았다.

구름처럼 하얀 머리를 크게 틀어올리고 부한 몸으로 천천히 걸어오는 양이 어찌 보면 장중하고 화려한 40대의 중년으로밖에 안보이는 미국인녀인이 웃으며 다가왔다.

그는 자기를 가르친 스승으로 오늘도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미쓰 월손이란 로선교사였다.

월손은 정옥의 두손을 꼭 마주쥐고 정옥이옆에 앉았다.

《그새 어떻게 지냈어?》

《하느님 덕분에 무사히 살아가고있어요.》

《진규도 학교에 잘 다니지?》

《네...》

정옥은 간단히 이렇게 대답하고 저도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소리에 미쓰 월손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무엇인가 느껴지는바가 있어 그것으로 하여 속에서 끓어번지는 피기운이 얼굴에 내비쳤던것이다. 하나 정옥은 월손의 입에서 상냥하게 나오는 다음 말에 목이 메어 그의 얼굴색 변화에 마음을 쓸 여유가 없었다.

《나는 어제밤 정옥이 생각을 하고 가슴이 아파 잠을 못잤어. 그렇게도 착하고 아름답던 정옥이가 왜 오늘 남보다 불행한가. 그 훌륭한 남편은 왜 잃었구, 생각하면 원통하지. 이제는 아들 진규라도 무슨 번고없이 자라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겠는데 세상은 너무도 소란해. 똑똑한 아들을 가진 어머니들이 마음놓고 살수 없는 세상이니말이요... 그런저런 생각으로 잠이 안오더군. 그래서 아침일찍 나왔어요. 정옥일 만나려구. 내게 무슨 힘이 있겠소만 하느님께서 내게 힘을 주

시고 지혜를 주실거예요.》

《선생님, 저때문에 너무 걱정 말으세요. 하느님이 저를 지켜주십니다.》

《웁아요. 신이 정옥일 보호하고있어요. 내가 대학에서 레베를 보지 않고 정옥일 만나고저 일요일마다 시대로 나오는것도 신의 의사입니다.》

정옥은 월손의 그 모든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믿으며 너무 고마와 눈에 눈물이 어렸다.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하자 월손은 일어섰다.

《저녁에 우리 집에 오세요. 여기선 못할 이야기도 있으니 우리 집에 가서 조용히 이야기합시다. 꼭 오세요. 기다리겠어.》

월손은 정옥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고는 자기 자리로 갔다.

정옥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부터 독실한 신자로 되었다. 먼 옛날 그는 기독교계통학교에 다녔으나 신의 존재를 진심으로 긍정못하였던 까닭에 학교를 나와서도 레베당에 자주 가지는 않았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그는 망망한 바다우에 외롭게 떠있는 하나의 조그마한 쪽배와도 같은 신세, 지금까지는 남편의 굳센 팔에 매달려 세월의 격랑속을 무사히 헤엄쳐왔으나 이제부터는 이끌어주고 보호해줄 아무도 없는 고독한 신세로 되었다. 그는 언제 어느 시각에 사나운 파도속에 휘말려들지 모르는 불안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찾아마지않았다.

자기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수 없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험악해져 잡혀가기만 하면 고문치사요, 징역이요... 당한다는 끔찍스런 소리만 들리는데 아들은 물속에 뛰어들어가는 어린아이처럼 겁을 모르는 《철부지》였다. 하나 어머니의 힘으로는 아들을 돌려세울 방도가 없었다. 그리하여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더위잡듯 《신》의 《은총》에 매달린것이다.

일요일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일찍 레베당으로 갔고 가서는 아들을 구원해달라고 온 심혼을 기울여 기도하였다. 월손은 그러한 정옥을 주의깊이 살피며 은근하고 정다운 태도로 접근해왔다.

정옥은 결혼후 모교에 한번도 나가본 일 없었고 월손과도 오래동안 거래를 끊었던것이다. 그런데 2년전 부인의 가정이 불행중에 있을 때 월손이 불쑥 찾아왔었다. 남편이 앓아누워있고 정

옥은 환자의 병세를 지켜보며 눈물로 세월을 보낼 때였다.

그의 남편은 량심적이며 실력있는 과학자였고 대학교수였다. 그는 자기가 아끼며 길러놓은 재능있는 학생들을 《불온사상》을 가졌다고 출학시키려는 학교당국의 경솔한 조치에 항거해나선 일이 있었다. 그것이 그를 교직에서 해임시키고 과학계에서 매장시킨 화근으로 되었던것이다. 교직에서 해임된 남편은 극심한 생활고로 끝내 연구사업을 중단하고 울화에 싸여 앓아눕게 되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월손이 자주 찾아와 정옥을 위로하며 무엇이든 도와주려고 애썼던것이다. 정옥은 오래동안 발길을 끊다싶이한 매정한 제자를 그래도 잊지 않고 가장 어려운 때에 찾아와주는 그 마음이 고마와 목이 메였었다.

그후 교회에서 정옥을 다시 만난 월손은 잃어버렸던 동생을 찾았다고 정옥을 그러안고 눈물을 흘렸다. 정옥이 역시 반가웠다. 모든것이 《신》의 《섭리》라고 생각했다. 《신》이 그를 다시 만나 그의 보살핌을 받도록 인도하였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그를 존경하고 따르며 그에게만은 피롭과 슬픔을 다 이야기하였고 그러면 무겁던 가슴이 개운해지고 밝아지는것이였다.

이날도 정옥은 무거운 마음을 풀어보려고 월손과 약속한대로 저녁에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정옥이 현관에 들어서자 월손이 기다렸던듯 마주 나왔다. 월손은 60뽕 생일을 지났으나 주름살 하나 안보이는 매끈한 얼굴이였다. 그는 소녀처럼 눈을 빛내이며 정옥에게 다가와 웃음이 사물거리는 엷은 입술을 정옥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다.

《잠깐 객실에 들어가 기다려줘요, 나 얼른 손님을 바래고 가겠어.》

그는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정옥은 혼자 객실에 들어가 앉았다. 식모가 차를 가지고 들어왔다. 비록 남의 집을 살망정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조용히 살아온 사람들이 가지는 맑은 기품이 언제나 식모의 어딘가에서 향기처럼 풍겨나왔다. 그러한 식모를 존경해마지않던 정옥은 지금도 눈이 부시게 흰 앞치마를 얹전히 두르고 쟁반을 들고 들어서는 식모를 보자 저도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앉으세요. 왜 일어서십니까?》

식모는 이렇게 말하며 쟁반을 탁상우에 놓고 차를 따랐다.

《저녁전이시겠는데 빵이라도 좀 가져올가요?》

《안요 먹고 왔어요.》

식모는 차를 드는 부인을 생각에 잠긴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돌아서 나가려다

가 조용히 물었다.

《늘 한번 여쭙본다면서 잊어버리곤하지요. 닥의 아드님이 스대학에 다니지요?》

《그건 어떻게 아세요?》

《그저 좀 알지요. 제가 닥의 아드님과 친한 학생을 알고있어요.》 하고 식모는 말을 끊었다가 신중한 표정으로, 그러나 무척 반가운 비밀이나 한듯 눈에 빛을 내며 나직이 이었다.

《아드님이 똑똑하대요. 아주 유망하다구들 해요.》

《똑똑하기야 뭘. 공부나 좀 잘한달뿐이겠지요.》

정옥은 웃으며 가볍게 받아넘겼다. 하나 이 순간 그는 가슴에 떠끔 찢리웠다. 식모의 말귀를 못알아 듣는체 했을뿐이다. 사실은 식모가 그렇게 말하게 된 내용을 깊이 알고도싶었으나 뭘수록 피하고도 싶었다. 왜냐면아들의 참모습을 남이 알게 되지 말기를 바랐고 그것을 부정해버리고싶은 마음이 더 컸기때문이었다.

정옥은 상기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김이 이는 차잔을 내려다보며 잠차코 있었다. 가슴이 설레이었다. 아들의 비밀을 남이 알고있다는 불안과 은밀한 자랑이 가슴속에서 서로 다투며 땀을 이쳤다.

식모가 창밖을 내다보며 혼자말처럼

《손님이 가시는군.》 했다. 정옥이도 눈을 들어 창밖을 내다보았다. 희미한 외등불밑에서 흰옷에 랑자를 튼 녀인이 월손과 인사를 하고 돌아서 나갔다. 정옥은 그 흰옷 입은 녀인의 뒤모습을 눈여겨 찬찬히 바라봤다.

《아시는분인가요?》 식모가 물었다.

《저의 동창 비슷해서요.》

《이름이 무언데요?》

《리운주라고 해요. 저와 친한 사이였어요.》

그 말에 식모의 얼굴빛이 달라졌다. 그가 무슨 말을 할듯말듯 망설이는데 월손이 손님을 바래고 들어왔다. 식모는 말을 못하고 얼른 물러서나갔다.

2

월손은 정옥을 2층으로 안내했다. 2층 월손의 침실앞에 붙은 넓은 베란다에 정옥은 월손과 함께 앉았다. 그들은 말없이 앞을 바라보았다. 눈앞에 펼쳐진 야경이 정옥을 깊은 사색에로 이끌었다. 달빛이 송림속을 흰히 밝히며 먼 과거로 그를 조용히 이끌어갔다. 그 송림속으로 동무들과 손잡고 거닐던 그 옛날이 어제런듯 눈앞에 삼삼히 떠올랐다.

그렇게 달밝은 밤이면 기숙사생들은 종종 시내로 나가곤했었다. 청소부로인과 약속하고 살짝

나가선 《금단의 과실》을 따는 것이었다. 밤에 피아노치러 음악관에 간다 하고 기숙사에서 나와 악보를 어느 바위 밑 숲속에 구겨넣고는 나무 밑으로 기어 언덕으로 올라갔다. 고개마루에서 철조망을 넘어 고개 저쪽으로 넘어가면 애기룽이 있고 불빛 환한 북아현동이 손짓해 부르는 것 같았다. 거기서부터 숨이 후우 나오는 자유를 맛보며 손잡고 노래를 부르면서 시내북관으로 들어갔다. 길가에 있는 가게에서 대추나 사탕을 사 조심조심 깨물며 영화관에 들어가면 폴스또이의 《부활》 혹은 《산 송장》 같은 영화들이 너학생들을 황홀케 했던 것이다.

돌아올 때에도 철조망에 머리를 뜯기우지 않게 낮추 엎드려 조심조심 기어넘어왔고 신발을 벗어쥐고 맨발로 언덕을 내려와 발자욱소리를 서로 경계하며 잔디밭을 가만가만 밟아 기숙사 문앞에 이르면 청소부로인이 문을 가만히 열어주었다. 로인은 그런 날 밤에도 웃지 않고 신중한 얼굴로 너학생들의 탈출을 도와주었던 것이다.

그것은 알려지지만 하면 출학문제가 제기되는 엄중한 비밀이었다. 그러나 그런 비밀도 월손교수에게만은 고백할 수 있었다. 월손은 그때 스물여덟의 새파란 처녀였으나 번번이 아량을 보여 용서해주곤 했다. 용서해주고 비밀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젊은 너학생들에게 있을 수 있는 《유쾌한 유희》라고 그런 자유주의를 은근히 치하해주었다. 하면 숨겼던 비밀도 다 털어놓게 되고 월손은 재미있게 들어주었던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어느 지주의 딸인 그는 대학을 나오자 선교사로 조선에 왔는데 학생들속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 탔다고 했다. 승마복을 입고 말을 탄 그가 초원을 달리는 사진을 그의 사진첩에서 본 학생들은 그를 대담하고 낭만적인 처녀라고 매력을 느꼈다. 낭만적일뿐 아니라 길옆에 돌아나 짓밟히우는 길쭉구를 보고도 마음을 앓고 잡초속에 핀 보잘것 없는 좁쌀꽃을 보고도 눈을 반짝이는 그를 시인중에서도 시인이라고 황홀해 쳐다보았던 것이다.

그렇게 다감하고 섬세한 시인으로, 아량있고 인정있는 너인으로 존경받는 월손이 한때 무서운 《오해》를 받은 일이 있었다. 이웃에 사는 어린 아이들이 월손의 집마당에 와서 코스모스를 한 줍씩 꺾어쥐고 나가다가 한 아이가 월손에게 잡혔는데 월손이 그 어린것의 손목을 비틀어 빼가 부서졌다는 것이었다. 월손의 손아귀에서 간신히 빠져 비명을 지르며 집으로 달려간 아이를 어머니가 병원에 업고가서 아이의 팔목에 부목을 해

주고 그달음으로 월손에게 달려왔었다.

《네가 인간이나?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구나. 어쩌면 어린것의 팔목을 빼가 부서지게 비틀어주느냐? 너같은년을 사람이라고 곁에 두고 살다간 우리네 아이들이 언제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겠구나.》 하고 그 너인이 월손에게 대들었다.

정옥은 설마 월손이 그랬을가 싶어 눈이 동그해졌다. 월손이 조용하고 은근한 목소리로 아이가 꽃을 꺾어쥐고 도망하다가 넘어져 팔을 상했을 것이라고 말해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명백해지는 것 같았다.

너인은 계속 악에 받쳐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월손은 한마디 대답없이 그 너인과 그의 품에 업힌 어린것을 눈물고인 눈으로 측은히 바라보았다. 정옥은 지금 그 얼굴을 눈앞에 그리며 속세에 발을 붙인 천사의 비애와 자비가 그때 월손의 가슴속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월손은 학생들과 산보할 때 수림속을 거닐며, 혹은 나무밑에 앉아 서투른 조선말로 자기의 유년시절, 목가적인 지주의 장원에서 자라던 소녀시절 그리고 대학시절의 가지가지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여주었다. 그러면서 조선의 지방도시들과 농촌들에도 가보고 싶다고 했다. 한번은 정옥의 고향마을에 꼭 가겠다고 했다. 전라도 어느 군소재지와 약국집 딸인 정옥은 그때 난처한 웃음을 웃었을 뿐이다. 월손같은 멋쟁이 외국인 너자를 접대할만큼 가세가 넉넉치도 못했지만 완고한 약국집 로인인 아버지는 천성적으로 코가 크고 빛같이 흰 노랑머리 양인들을 짐승처럼 혐오하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딸이 없는 돈에 미국인이 경영하는 학교에 가서 그 서양것들에게서 무얼 배우느냐고, 사부랑거리는 별난 말따위나 배워 어디 써먹는가고 학교를 당장 그만두라고 노발대발한 때도 있었다. 그렇지만 앓았던들 그때 정옥은 월손을 자기 집에 초대했을지도 모른다. 월손은 집시의 이야기를 흥미있게 하곤 했는데 정옥이네 집 구차한 살림을 와서 보았다 해도 집시의 방랑생활을 찬미하듯 《보헤미안》이라고 낭만적으로 해석했을 것이니까.

정옥이 이런 회상에 잠겨있을 때 저만침 앞에, 수림속에 우뚝 솟은 기숙사창문들에서 불빛이 한꺼번에 꺼졌다.

《아이 벌써 열시지요?》

정옥은 그제야 현실로 돌아와 손목시계를 들여다봤다. 월손은 한숨을 쉬었다. 그도 지금까지 무슨 깊은 생각에 잠겨있을 모양이었다.

《선생님, 피곤하시겠어요.》

정옥은 사죄하듯 이렇게 말하며 월손을 쳐다봤

다.

《안요. 난 저녁마다 여기 오래오래 앉아있어요. 난 지금 정옥이와 함께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함께 살아온 지난 역사를 더듬어보는게...》

《선생님도 그 시절을 회상하셨어요?》

《그럼... 그때 내가 스물여덟이었던가? 정옥인 스물하나였지. 아마, 우린 사제지간이라기보다 친근한 벗이었어.》

《선생님의 강의시간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정옥인 셸리와 워즈 워즈를 무척 좋아했지? 졸업논문은 셸리였던가?》

《사실은 셸리로 시작했는데 윤주가 셸리를 쓴다고 해서 전 워즈 워즈로 고쳤어요.》

《윤주? 참 윤주는 지금 어디 있나?》

《전 소식을 모릅니다.》

《무슨 불행한 일이라도 있는게 아니야? 왜 나타나지 않을까?》

《글쎄요. 한번 보구싶어요.》

월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보호자연한 은근한 눈길로 정옥을 이윽히 바라보며 등의자에 기대앉아 천천히 부채질을 했다. 마치도 부인의 마음속 안정을 건드릴세라 조심하는듯 조용히...

달빛이 두 녀인의 색다른 옷이며 색다른 얼굴을 어루만졌다. 월손은 정옥의 안색이 몹시 수척해졌다고 걱정하며 자기에게야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하고 하느님앞에 하소연하듯이 자기에게 모든 근심을 이야기하라고 했다.

정옥은 신중히 들었다. 월손앞에 무엇을 숨기랴 싶었다. 월손에게 숨긴다는것은 하느님을 노엽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가슴속에 무겁게 피어있는 근심, 아들에 대한 문제를 월손앞에 털어놓고싶었다. 공부에만 열중하던 아들이 공부를 제쳐놓고 어머니 몰래 색다른 책을 밤을 패며 읽는 눈치더니 동무들이 많아져 몰려오고 몰려가고 했고 얼마전엔 어떤 정치적색채를 띤 시위에도 참가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정옥은 아들마저 잃을가봐 제정신이 아니었다.

정옥의 수심에 찬 얼굴을 유심히 지켜보던 월손은 다 알았다는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짐짓 침통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이제는 이 나라의 아름다운 모든것이 없어졌어. 산산이 부서지고 깨여지고 찢어졌어... 가슴 아픈 일이요!》

정옥은 감동하여 손수건으로 눈굽에 고이는 눈물을 찍었다. 월손이야말로 《한국》우에 드러운 재화의 심도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선생님, 시간이 너무... 전 가야겠어요.》

《아니 벌써 가다니. 가만 좀. 난 동생을 만나고 싶어 부른건데...》

그는 이렇게 말하며 일어서려는 정옥의 어깨를 눌러앉히고 얼른 총계쪽에 눈을 주었다. 누가 엿들을가봐 경계하는듯...

월손은 정옥이앞에 바싹 다가앉아 나직이 속삭이듯 말했다.

《난 동생을 믿어요. 동생에겐 잘못이 없어요. 물론 친구의 잘못도 아니지요. ... 그러나 친구의 그 총명이 결가지를 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에디슨과 같은 과학자의 자질을 난 벌써부터 친구에게서 보아왔어요. 그런데 친구가 하느님이 점지한 본도를 떠나 그 무슨 법률에 저촉된 연사나 행동 같은 모험을 즐긴다면 얼마나 아쉬운 일이겠어요. 하지만 난 친구를 충분히 이해할수 있어요.》

정옥은 자기 집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이해하고 믿으며 올바른 충고를 주는 월손이 고마왔다. 월손은 아들의 일거일동을, 그가 시위에 참가한 사실까지도 신령의 힘과 예지의 눈으로 꿰뚫어 보았다고 생각했다.

정옥은 눈물에 젖은 눈을 들어 월손을 쳐다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애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몰라요. 법이 그것을 죄라고 하니 무서워 그럴뿐이지요.... 그저 그 애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깨끗이 살기만 바라지요.》

《정직한 고백이요. 인간은 인간의 잘못을 구별할 능력도 없고 권리도 없어요. 설사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그건 자기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지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만이 아십니다.》

정옥은 경건한 마음으로 그 말을 긍정했다.

《짐작하고계시겠지만 저는 못견디게 불안하고 피로와요. 이젠 다 자란 자식이니 제 주장을 굽히자곤 안하고 또 저 역시 그에 생각이 무척 그르다고만 여겨지지 않아요. 하지만 후과를 생각하면 몸서리쳐지는걸 어떻게집니까. 아직 그 애가 뭐 큰일이야 하겠습니까만 동무들속에 휩쓸려 물덤벼물덤벼 뛰어다니다 어느 코에 걸릴지 알겠어요?》

월손은 제자의 피로운 눈을 측은히 바라보았다.

《정옥이, 언제든지 오세요. 언제든지 정옥일 위해 문을 걸지 않겠으니.》

3

《어머니.》

아들이 저녁상을 물리며 조심스레 어머니를 쳐다봤다. 곁에 앉아 바느질하던 어머니가 눈을 들

었다.

《어머닌 요즈음 어딜 그렇게 자주 나가세요?》

《내가 어딜 못갈데 가겠느냐? 불일이 있어 나간다.》

아들은 측은한 눈길로 어머니를 지켜보다가 일어서 자기 방으로 건너갔다. 어머니는 가슴이 후두두 떨렸다. 손맥이 풀려 바느질을 못하고 멎혀 앉았다가 간신히 일어서 밥상을 거두고는 자기 침대우에 맥없이 걸터앉았다. 월손과의 관계를 아들에게 숨기고있다는 사실이 괴로웠다.

그간 그는 월손의 집에 마음대로 드나들며 아들의 《위태로운》언행을 꺼리낌없이 하소연했고 아들에게 미칠 위험을 막아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럴 때마다 월손은 그의 팔에 손을 얹고 조용히 타이르듯 말했던것이다.

《정옥이, 진규는 죄인이 아니요. <한국>의 량심이요. 신이 그를 보호할것이요.》

월손은 진규를 높이 평가하며 그런 아들을 가진 정옥이가 부럽다고까지 하였다. 그런데 아들은 옛날 약국집 로인인 외조부이상으로 월손을 혐오하였다. 작년에 월손이 처음 찾아왔을 때에도 아들이 너무도 뻥뻥하게 대하여 정옥은 월손 앞에 얼굴을 들수 없었던것이다. 때문에 요즈음에도 월손을 교회에서 만났다는 말만 얼핏 비쳤을뿐 그를 자주 만나며 서로 정답게 지낸다는 소리는 아직 감히 아들앞에 하지 못하고있었다.

(진규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를 믿어다우. 나는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느님의 사도인 월손교수의 손을 잡았다. 월손이 너를 구원할것이다.)

정옥부인의 관념속에 자리잡은 월손은 다른 미국인들과는 구별되었다. 젊은 처녀의 몸으로 태평양을 건너 멀리 타국에 와서 벌써 30여년이란 긴 세월을 평범한 《한국》녀성들과 사이가 깊어진 평범한 미국녀인이며 선교사였다.

언젠가 그는 오늘의 《한국》을 보고 울고싶다고 했다. 《한국》의 확대받는 량심과 정의를 위하여, 짓밟혀 어지러워지고 부서져가는 문화전통이 아까와 울고싶다는것이였다.

그가 교단에서 어딘가 멀리 창밖에 눈을 주고 시를 읊을 때 그의 눈에 자주 어리곤하던 눈물, 아침레베를 지도할 때 그 백발의 건장한 녀인의 경건한 몸가짐이며 애원과 호소에 찬 표정, 정옥은 그 모든것을 월손의 마음속 거울로 생각했다.

세상의 죄악을 몸소 겪어온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죽은 구세주의 고통이 월손의 가슴속에 간직되어있는것이라고 믿었다.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에 잠겨 가만히 앉아있을 때 아들이 다시 어머니 방에 들어왔다. 어머니는 놀라운 눈으로 아들을 쳐다봤다. 아들은 어머니앞에 있는 의자에 와 앉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전 좀 걱정이 되는구먼요. …요즈음 어머니가 열심히 교회에 나가시는데 좋은 일 같지 않습니다.》

《이 애야, 제발…》

어머니는 애원어린 눈으로 아들을 쳐다봤다.

《진규야, 세상은 너무도 험악해. 너의 아버지가 당한걸 봐라.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어디에 의지하고 살겠니. 나는 내가 의지할 신주를 이제야 다시 찾은것 같구나.》

아버지가 세상 떠난후 홀로 남은 어머니가 우울해 방구석만 지키고있는것보다는 레배당에라도 나가서 위안을 찾는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던지 처음엔 어머니의 일요일 외출을 대견스레 바라보던 아들이다. 그런데 위안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는걸 눈치챈듯 요즈음에 와서 아들은 어머니가 레배당에 가는것을 극구 반대했다.

《어머니, 있지도 않는 하느님을 믿는다는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느님이란 없습니다.》

《이 애야, 그런 불손한 말을…》

어머니의 얼굴이 해쓱해졌다.

《넌 아직 철부지야. 나도 네 나이땠 너처럼 생각했다. 가서 잠이나 자거라.》

아들은 생각에 잠긴 무거운 얼굴로 어머니를 이윽히 바라보다가 다른 말을 물었다.

《어머니, 전번 일요일에 교회에서 월손교수를 만났다고 하셨는데 요즈음 늘 만나시는게 아닌가요?》

어머니는 피로운 눈으로 아들을 쳐다봤다. 아들에게서 시선을 앞으로 돌리며 맥없이 대답했다.

《자주 만나다.》

아들의 얼굴이 신중해졌다.

《그런데 어머니 저에게 왜 숨기셨어요. 어머니 저보다 그 미국선교사를 더 믿으십니까?》

어머니는 흠칫 놀라며 아들을 다시 쳐다봤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어렸다.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지 못하는 가슴이 저머내는듯 아왔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간절한 어조로 대답했다.

《진규야, 월손이 지금 내겐 가까운 사람이다만 그건 너를 위해서라는걸 알아다우.》

《저를 위해서요?》

아들의 얼굴에 원망과 질책의 빛이 어리었다.

《이 애야, 그만은 미국사람이래도 네가 알고있는 미국사람들과는 다르다. 어머니와는 30년전부터 가까이 사귀여온 스승이구 성실한 선교사가 아니냐?》

《30년전부터 <한국>에 와있었으면 <한국>에 정통한 선교사겠어요. 선교사들이란 경찰병들입니다. 침략과 략탈의 최전선을 담당한 길안내자들이지요. <참는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우리에게 굴욕과 맹종을 가르치고 숭미사상으로 우리네 자존심을 병들게 하고있는자들이 바로 그들

입니다.》

어머니의 얼굴빛이 달라졌다. 아들의 과격한 언사가 불쾌했던것이다. 그럴수록 아들은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미제침략자들이 오늘 일제를 대신해 <한국>을 침략하고있다는건 어머니도 아시지요? 그들이 우리를 침략한다고 하면서 침략합니까? <원조>를 하고 <구원>한다고 하지요. 뻔뻔스런 위선자들이지요. 월손도 그렇습니다. 어머니와 다시 만나 상당히 정답게 지내는 모양인데 무얼 노리는지 알겠어요?》

《진규야.》

어머니는 언성을 높였다.

《말을 조심해라. 그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미국사람이 아니래두.》

《어떻게 다를가요?》

《그분은 너희들같은 <한국> 청년들을 <한국>의 량심이라고 해. 그만큼 <한국>의 비운을 슬퍼하는 사람이다.》

《<한국정부>에 대한 비난도 하면서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가슴속을 들여다봅시다.》

《들여다본다고 해서 나쁠게 뭐냐. 난 깨끗한 량심뿐이야.》

《그 량심을 도난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 비친 저의 량심까지도... 그렇게만 되면 우리 집은 텅빈 껍데기만 남게 될겁니다.》

어머니는 입을 딱 벌리고 들이킨 숨을 내쉬지 못하며 아들을 쳐다봤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부르짖었다.

《이 애야, 네 입이 언제부터 그렇게 험해졌느냐? 하느님이 무섭지 않느냐?》

행복한 제자들보다 불행한 제자를 더욱 사랑하며 그 제자의 가정이 당하는 력사적인 불행을, 옛날엔 남편이 겪었고, 오늘은 아들에게 미칠것같은 그 재앙을 자기 일처럼 슬퍼하며 하느님께 늘 기도하는 월손이다. 제자의 여윈 손을 꼭 쥐고 눈물 어린 눈으로 제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같이 울어주는 월손이다. 그 마음을 고맙게 여길 대신 그를 도적으로 보는 아들의 배은망덕이 소름이 끼치게 무서웠다.

《제가 어머니를 몹시 괴롭힌것 같습니다. 용서하세요.》

아들은 다시 조용히 말을 이었다.

《어머니, 어머니는 지난날 아버지와 어머니가 손잡고 쌓아올린 이 가정의 행복을 영원한것으로 보존하려고 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위한 지칠줄 모르는 탐구, 거기서 거두어지는 성과, 그것만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여기셨지요? 그 기쁨, 그 행복을 창조하시기에 생애를 바쳐오신 그 애국적량심과 헌신성을 어머니는 무엇보다 귀중히 생각하시며 그것을 이 가정의 전통으로 보존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는 자신의 연구사업을 끝마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바로 그 원인이 오늘 또 저를 위협하고있어요.》

어머니는 흠칫 몸을 떨며 아들을 쳐다봤다.

《이 애야, 그게 무슨 소리냐? 너를 위협하다니? 네가 가만만 있으면야...》

남편이 세상떠난후 어머니는 아들에게서 아버지가 채 못찾은 결실을 찾으려고 했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불타는 노력과 방조로 아들을 아버지가 가던 그 길에 들어서게 했고 아들은 그 길에서 비상한 재능을 시위하였다.

그런데 지금 아들은 다른 길로 벗어나고있다. 총칼이 란무하는 싸움의 거리로 달리고있다. 《한국》의 미래를 넘려하여 한마디 던진 말이 《죄》가 되어 파멸당한 아버지의 생애를 거울삼아 그런 화를 다시 입지 않도록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아들인데 왜 사서 화를 입으려고 하는가, 왜 싸움속에 스스로 뛰어드는가.

세상이 나날이 험악해지고 추악해지는걸 어머니도 몸서리치도록 느끼고있다.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애국적열의는 어머니도 대견히 생각한다. 하지만 하필이면 자기의 외아들인 진규가 십자가를 져야 하겠는가? 아들 하나 빠졌다고 될 일이 안되고 안될 일이 되겠는가! 아들은 그렇게 안하고도 자기 재능으로 나라의 부흥을 위해 얼마든지 헌신할수 있지 않은가!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하며 원망과 애원 어린 눈으로 아들을 쳐다봤다. 아들은 어머니의 마음속을 들여다본듯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 아버지가 가시던 길을 걸어갈것을 희망하고계시고 저역시 그것을 열망하고있습니다만 놈들은 제놈들의 야수성을 찬양하고 강도적만행을 손뼉쳐 환영하지 않는 일체의 애국적량심과 정의를 파괴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위협을 느낀다고 했어요. 아시겠지요 어머니.》

《이 애야 아버지처럼 말을 말고 움직이지도 않으면 네 가슴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안단말이야.》

《량심이 있으면 말을 하게 되고 싸우지 않을수도 없지요.》

그 말에 어머니는 아찔한 현기증을 느끼며 가까스로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거냐?》

《량심이 가리키는대로 살아야지요. 저도 이제야 눈이 좀 트여갑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겠어요. 어차피 어머니도 같은 길을 걸어야 할것입니다.》

《뭐이?》

어머니는 크게 뜬 눈에 눈물이 가득해 아들을 쳐다봤다. 자기 품을 떠나 점점 멀어져가는 아들을... 설음이 가슴에 밀물쳐왔다. 그는 눈물을 아

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방바닥으로 시선을 떨구었다.

방안은 쥐죽은듯 고요했다.

아들은 일어섰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정옥은 침대머서리를 붙잡고 얼음처럼 굳어져 까딱 않고 앉아있었다.

4

정옥은 가슴이 떨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는 어머니 없는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하 나도 빼지 않고 쪼르르 내리엮어 보고하며 응석을 부리던 아들이 아니다. 외국어개인교수를 나갔다 지쳐 들어오는 어머니를 측은히 마주보며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모자라는 학비는 제가 변통해보겠어요.》 하던 아들도 아니다. 아들의 그 어딘가에 범접키 어려운 위엄이 있었다.

아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사리밝은것으로, 열정적인것으로 바뀌어갔다. 확실히 아들은 놀랍게 자라서 어른이 되어간다. 그것이 어머니에겐 섭섭하고 두려웠다.

종시 깊은 잠을 들수 없었던 그는 새벽녘에 불현듯 눈을 떴다. 아직 어둡고 고요한데 건넌방인 아들의 방에서 조용조용 이야기소리가 들렸다. 정옥은 방망이질하는 가슴을 안고 가만히 일어나 앉았다. 었들려는건 아닌데 온 신경이 귀가 되어 건넌방쪽으로 쏠렸다.

정옥은 애원 어린 눈으로 맞은편 벽을 쳐다봤다. 어둡시근한 벽에서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가 그를 내려다봤다.

(오, 주여! 아들을 보호해주소서...)

가슴이 그냥 활랑거려 무슨 말을 하는지 한마디도 가려들을수 없었다.

잠시후 회색코트에 겹을 눌러쓴 《신사》가 아들의 방에서 나와 아들과 함께 대문간을 향해 나갔다. 미소를 띤 너부죽한 얼굴, 후리후리한 키, 곧 바른 걸음걸이.

정옥은 깜짝 놀랐다. 하마트면 문을 열어제끼며 《아니, 찬수가 아닌가!》하고 소리를 칠번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억제하고 반가움에 젖은 눈을 문틈에 대고 대문간 어둡속을 안타까이 내다만 보고있었다.

남편이 사랑하던 제자, 혜성처럼 나타난 수재라고 아끼고 아끼던 제자였다. 그리하여 그를 출학시키려는 학교당국과 싸우다 지고말았던것이 다.

남편의 장례식날 밤에 잠간 들러 조의를 표시하고 가버린후 그간 어디 가 무엇을 하고있었는지 한번도 오지 않던 찬수, 그가 자기 집에 왔는데 모처럼 왔으면 자기를 찾아 인사라도 하고 가야 옳지 그대로 새벽에 살짝 들어왔다가 도망치듯 나가버리는건 무언가. 섭섭하기 짝이 없었다. 하나 그것은 아들과의 연계를 비밀에 붙이기 위

해서일것이라는 생각이 뒤따르며 아들의 일이 몹시 불안해졌다.

아들과 아침상을 마주하고 앉았을 때 아들이 무슨 말을 하리라 믿었다. 그런데 아들은 생각에 잠긴 무거운 얼굴로 어머니를 쳐다보고는 묵묵히 수저를 들었다.

아들이 밥상을 물리고 일어서려 할 때 참을수 없어 한마디 물었다.

《아까 새벽에 손님이 오지 않았었니?》

《손님이란요?》

아들은 이렇게 심드렁히 되묻고는 신문을 들고 일어섰다.

《너는 요즘 어머니에게 너무 비밀이 많아.》

《어머니, 제발 이것저것 묻지 말아주세요.》

정옥은 땅이 꺼지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을뿐이다.

5

월손이 급히 의논할 일이 있으니 와달라고 사람을 보내어왔다. 정옥은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하늘은 컴컴히 어둡고 비가 오려는지 바람이 일었다. 습기 뻥 바람이 포도주의 락엽을 몰아가고 몰아오며 불안스레 휘몰아쳤다. 정옥은 어깨에 걸친 레스목도리가 벗어질가봐 두손으로 여며 쥐고 걸음을 다우쳤다.

길 양쪽에 우거진 가로수가 금시 무엇을 쏟아부울것 같은 하늘을 막아주었으나 나무숲으로 하여 더욱 컴컴해진 어둠이 가슴을 짓누르는것 같았다.

며칠전에 월손이 집에 와서 아들이 어디 나갔는가고 물어 학교에 갔을것이라고 대답하자 근심스런 얼굴로 학생들이 은밀히 모이는 눈치를 채고 경관들이 눈을 밝히고 찾고있는데 혹시 그런 비밀모임에 갔을가봐 불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옥에게 아들이 어디 나가지 않도록 잘 보호하라고 하였고 자기도 진규의 몸에 미칠수 있는 위험을 눈치채면 정옥을 부르겠다고 했던것이다.

아무리 빨리 걸으려 해도 아래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 마음대로 옮겨지지 않았다. 호젓한 길이라 포도주를 옮겨디딜 때마다 주위에 메아리치며 딱딱 울리는 자기 발자욱소리도 자기 걸음이 느림을 안타까이 호소하는것 같았다.

정옥은 한소나기 내리퍼부을듯 시꺼멓게 드리워진 그 하늘과도 같은 먹장구름이 아들의 머리 위에 드리워져있음을 톡톡히 깨달았다.

송림속에 드문드문 앓은 양옥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옥은 숨을 헐떡이며 걸음을 다우쳤다. 월손의 집 정원에 들어설 때 떨어지기 시작하던 비방울이 그 집 현관에 발을 들여놓자 어느새 큰 비로 되어 쪼르르 쏟아져내렸다. 마치 월손의 집에 들어선 정옥을 따라잡지 못한것이 분한듯 주먹같은 비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그 집을 들

러싼 수림우에 억수로 쏟아졌다.

정옥이 식모의 안내를 받아 객실에 들어섰을 때 월손은 안락의자에 맥없이 앉아있었다. 자라에 누웠다가 일어난듯 잠옷을 입은채 전에없이 형클어진 매무시였다.

《어디 편치 않으신지요?》

정옥이 조심스레 물었다. 월손은 대답없이 정옥을 자기곁에 앉으라고 손짓을 했다. 정옥이 그의 곁에 가 가만히 앉자 월손은 그의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 잠시 말이 없다가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정옥이, 식모의 아들이 검거되었어.》

《식모의 아들이란요?》

정옥이 눈이 동그래져 이렇게 묻자

《전에 진규의 부친이 해임된 원인이 그 사람때문이었더군. 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 진규의 부친이 무척 수고를 하셨으나 끝내 퇴학당하고말았더군.》

정옥은 깜짝 놀라 소리치듯 물었다.

《아니, 찬수가 식모의 아들이였어요! 선생님은 그걸 왜 여태 저에게 이야기 안하셨어요?》

《내가 며칠전 우연히 어디서 들었어.》

《그럼 그 찬수가 잡혔단말씀이예요?》

전날 아침에 자기 아들을 찾아왔던 찬수가? 정옥은 대번 눈물이 그렇게졌다.

그리고보니 우유를 가지고 들어온 식모의 등이 더욱 구부러보이고 얼굴색도 칙을해보였다. 언젠가 진규를 툭툭하다 유망하다 한것도 아들에게서 듣고 한 말이었던가싶었다. 그렇다면 식모는 자기 아들과 우리 집과의 관계를 알고있으게 아닐가.

정옥은 식모의 손을 꼭 쥐었다.

《식모아주머니이.》

정옥은 그에게 묻고싶고 하고싶은 말이 많았으나 말을 못하고 얼굴을 숙였다. 눈물이 쏟아졌던 것이다. 남편이 그렇게도 사랑하던 제자, 그의 그 아까운 재능이 온갖 박해를 다 받으며 시달리우고 시달리우다 끝내 철창속에서 썩게 되였는가. 지하에 누운 남편이 안다면 얼마나 통분해하랴! 정옥은 이런 생각을 하며 울었다.

그런데 식모는 울지 않고 당돌한 표정을 하고 《진정하세요.》 했다. 그러면서 정옥의 손을 꼭 쥐었다.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힘주어 아프도록 꼭 쥐었다가 놓았다.

식모가 나가자 월손이 이야기했다.

《식모는 그 아들 하나를 믿고 평생 남의 집을 살며 등이 굽은 로인이요. 하느님께서 저 로인을 내게 보내주신 의도를 알고 그 아들을 내 힘껏 도우려 했는데...》

월손은 말을 끊었다가 흐느끼듯 한숨을 쉬며 다시 이었다.

《여기라도 와서 은신하고있었다면 내가 있는

한 무사했을것인데 어머니를 믿지 않고 여기 오지 않았지... 어제밤 경관들이 불의에 나타나 식모의 방을 수색하고 야단법석이었소. 내가 마침 있을 때라 무슨 사연인가 물으며 호령호령해 내 쫓았는데 그때 경관들이 그 사람이 체포됐다고 하더군. 식모에게 무얼 감추어둔게 없나 해 와서 뒤진것 같아요.》

월손은 이 모든 이야기를 슬픔에 젖은 목소리로 맥없이 천천히 하였다.

상우의 우유컵에서 김이 모락모락 일었다. 우유김이 정옥의 해쓱해진 얼굴을 어루만지며 우로 옆으로 넓게 흘날렸다. 정옥은 죽은 사람처럼 굳어져 까딱않고 앉아있었다. 찬수가 가없고 아들의 일이 불안했다. 찬수가 잡혔다면 그와 련계가 있는 아들은 무사하겠는가?

《그래서.》

월손이 정옥에게 몸을 돌리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식모의 아들이 그렇게 되는걸 보고 진규가 격정스러워 온밤 한잠도 못잠어. 그래서 정옥일이라고 부른거요. 혹 무슨 일이 없었나 궁금해서, 그 사람과 정옥의 집과는 각별한 관계가 있으니 만큼 옛 스승을 생각해서라도 잊지 않고 더러 인사로 들릴수도 있겠다싶더군. 만약 그렇다면 그것도 진규와의 특별한 관계로 오해받을수도 있을것 같단말요. 내 말을 알아들었나?》

《알겠어요. 선생님이 말씀 안하셔도 전 지금 가슴이 떨려요. 사실 어제 새벽에...》 하다가 그는 문득 입을 다물었다. 아무리 월손의 앞이라 해도 그 말만은 실언을 한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다.

월손의 입가에 야릇한 미소가 떠올랐다.

《동생이 왜 그렇게 의기소침해있는지 다 알고있어요. 얼굴에 찍여있는걸요. 그러나 정옥이, 찬수군이 그 집에 못을 사람인가. 너무 상심말우. 하느님께서 다 아시고 용서해주실거예요.》

《글쎄 누구인진 몰라도 새벽에...》

정옥이 당황해 이렇게 변명하며 머뭇거리자 월손은 웃으며 정옥을 위로했다.

《정옥이, 량심만 깨끗하면 돼요. 정옥의 깨끗한 마음을 내가 알고있는데 왜 하느님께서 모르시겠소. 오, 하느님아버지, 정옥의 피로운 령혼을 안정시켜주소서.》

그러나 정옥의 마음은 안정될수 없었다. 그는 애원 어린 눈으로 월손을 쳐다봤다.

《선생님, 어쩌면 좋아요?》

별안간 온 천지가 허물어지는듯 요란한 천둥소리가 울렸다. 월손과 정옥이 앉아있는 그 방을 위협하는듯 번개불이 유리창에 번쩍 일다가는 다시 파르릉하고 천둥이 울었다. 월손은 분주히 일어나 휘장을 내렸다. 서둘러 두꺼운 휘장을 치고 불을 켜더니 기도를 하자고 했다.

《오 하느님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은 산란합니다. 깨끗한 양심이 위협을 받고있습니다. 굶어살 피소서. 진구를 당신의 품에 꼭 안아 보호해주시고 불쌍한 정옥의 평혼을 불행에서 구원해주소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월손은 기도를 마치자 한숨을 후우 내쉬었다. 모든것을 신에게 맡기고 마음이 가벼워진듯 얼굴 표정도 평온해졌다. 그러나 정옥의 마음은 좀체로 진정되지 않았다. 자기가 거기 앉아있는 그 시각에도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가봐 가슴이 죄여졌다.

월손은 식은 우유를 마셨다.

《선생님, 어쩌면 좋아요, 아무래도...》

정옥은 말끝을 못맺고 얼굴을 싸쥐었다. 월손은 정옥의 떨리는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정옥이, 하느님께서 진구를 도와줄거요. 진구는 보통청년이 아니요. 우리는 그 애의 가치를 알아야 해요.》

정옥은 얼굴을 들고 항의하듯 말했다.

《제가 그걸 모르나요. 하지만 똑똑한 사람치고 무사히 살수 없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무섭다는거지요.》

《너무 상심말우. 정옥이나 나는 무능한 인간이요. 우리는 모든것을 신의 의사에 맡기는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는수밖에 없습시다. 오 주여, 이 불쌍한 녀인들을 굶어보소서.》

월손은 흐느껴우는 제자를 달래며 진정시키고 손수 부엌에 나가 더운 차를 가지고 들어와 따르며 한숨을 쉬었다.

《〈한국〉의 어머니들 눈에서 언제나 눈물이 마를고...》

비가 몇자 정옥은 일어섰다. 아들의 일이 걱정스러워 앉아배길수 없었다.

그가 월손의 집 대문밖을 나와 얼마 안걸었는 데 뒤에서 식모가 따라나오며 소리를 쳤다.

《선생님이 우산을 가지고 가시랍니다. 또 비가 올것 같아요.》

그리하여 정옥이 걸음을 멈추고 미안하다고 하며 우산을 받아칠 때 식모가 접은 종이쪽지를 그의 손에 쥐여주며 나직이 빨리 속삭였다.

《저만침 나가 사람이 없는데서 펴보세요.》

식모는 얼른 돌아서 들어갔다. 정옥은 어인 영문인지 몰라 종이쪽지를 주고 바삐 돌아서 들어가는 식모의 뒤모습을 멍해 바라보다 행길로 나왔다. 월손의 집이 아주 보이지 않는 호젓한 길설에 와서 앞뒤를 살펴보고 쪽지를 펼쳤다.

《우리 아들 걱정을랑 마서요. 잡히지 않았어요. 내가 모르는줄 알고 월손이 거짓말했어요. 어제 밤 내 방을 수색하게 한것도 월손의 작간같아요.》

지금 우리 아들을 잡으려고 놈들이 피눈이 돼있어요. 택의 아드님도 찬수와 런계있는줄 알면

그대로 안들거예요. 그래서 난 택의 선생님과 찬수와 관계를 월손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알고있더군요. 월손에게 아드님의 이야길 하지 마서요. 운주부인도 이 집에 자주 와서 월손에게 속을 다 주고 결국 아들, 딸, 동생까지 놈들에게 넘겨주었어요. 난 얼마전에 주인님이 하던 연구사업이 월손에 의해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학생들의 투쟁기세가 높아지자 월손은 또 안절부절 못해요. 중앙정보부 정보원이 자주 찾아오고 월손도 자주 나가요. 어제밤엔 잠을 못자고 방안에서 왔다갔다 서성거렸어요. 오늘 그 얼굴을 보셨지요?》

이 편지를 곧 찢어 없애주세요.》

연필로 두서없이 바삐 내려쓴 식모의 글씨였다.

정옥은 머리속이 텅 비고 자신이 어디에 서있는지조차 알수 없었다. 속이 메시겁고 하늘이 빙빙 돌았다. 어떻게 걸음을 옮겨 집까지 찾아왔는지 모른다. 그래도 제정신으로 집까지 돌아온것은 월손에 대한 믿음이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끈덕지게 자리잡고있었기때문이었다. 대리석처럼 탄탄하던 믿음의 기둥이 다는 기울어지지 않고 그가 걸음을 옮겨 집으로 찾아올만큼은 그를 받쳐세워주었던것이다.

(월손이 그럴수 없어. 그럴수 없어.)

그는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중얼거리며 걸어왔다.

집에 들어서자 아들도 어디 갔다 들어오고있었다. 아들은 어머니의 해쓱해진 얼굴을 의아한 눈으로 살펴봤다.

《이 애야.》

어머니는 월손과 식모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아들에게 물어 어느쪽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려고 했다.

《찬수가 검거되었다는데 아느냐?》

《누가 그래요?》

《월손이.》

《거긴 또 왜 가셨어요?》

《급히 오라고 해서 갔더니.》

《언제 검거되었답니까?》

《찬수의 어머니가 월손의 식모였더구나.》

《알고있습니다.》

《너는 잘도 아는구나.》

《놈들이 찬수동지를 잡기 위해서 그 어머니를 월손의 집에 끌어들여 속을 뽐으려고 데려갔을지도 모르지만 그만한건 아시고 가셨을거고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목적이 있어서 가셨을거예요. 그 어머니는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근데 어제밤에 그 어머니에게 경관들이 가서 죄다 뒤졌다는구나. 아들이 잡혔게 그러지?》

《거야 잡혀야만 뒤집니까? 잡기 위해서도 무슨

단서를 잡으려고 가서 수색할수 있지요.》

《아니다. 월손이 내 집에 와서 웬 가택수색이냐고 호령해 내쫓았는데 그때 놈들이 식모의 아들이 잡혔다고 하더란다.》

아들은 코웃음을 쳤다.

《어머닌 그 말을 끝이 들으셔요? 찬수동진 체포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거기서 오는걸입니다.》

(아, 그럼 월손이 내게 거짓말을 했던말인가? 찬수가 체포됐다고... 그리고 남편의 연구사업을 파탄시키고 도적질한것이 과연 월손이란말인가?)

어머니는 금시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져 아들의 침대우에 털썩 걸터앉았다. 눈앞이 캄캄 어두워지고 디디고 선 땅이 꺼져들어가는것 같았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편치 않으세요?》

어머니는 천천히 머리를 저었다. 그것은 아들에게 하는 대답이 아니라 눈앞에 보여온 사실에 대한 부정이었다.

(이것은 무서운 착오다. 꿈이다. 월손이 내게 거짓말을 할수 없다. 월손이 그럴순 없어.) 하고 부정하는것이였다.

이러고있는 사이에 그 무서운 일들이 살금살금 도적쟁이처럼 그들을 향해, 이 집을 향해 오고 있었다. 어머니가 것처럼 피하려고 몸부림쳐온 불행이 끝내 오고야말았다.

6

몇시나 되었는지 방안에 랭기가 휘돌고 창문이 조용히 드렁거렸다. 정옥은 무릎우에 손을 놓고 화석처럼 굳어져 앉아있었다.

방안에 물건이란 물건은 죄다 뒤죽박죽이 되어 어수선하게 널려있었다. 이불은 혼솔이 뜯기워 솜이 비죽이 나온채 침대아래 내려져있고 마다라스도 혼솔이 뜯겨져 속이 죄다 쏟아져나왔다. 책상우에 있던 꽃병이 방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발길에 채워 두조각으로 갈라진 화분우에 의자가 나딩굴고있었다. 그리고 온 방안에 책이다. 널려진 책우에 밟고 지나간 구두발자국이 보였다.

사이문 저쪽 서재에도 서가에 꽂혔던 책들이 죄다 내려와 방바닥에 흩어졌고 어머니의 방인 안방역시 랑장판이였다. 미처 거두지 못한 잡자리우에 발자국이 가로세로 지나가고 옷장안에 있던 의복들이 온통 쏟아져나와 좁약냄새를 풍기고 있다.

몇시간전까지만 해도 서재에 들어가면 은은한 불빛속에 책들이 서가에 가지런히 꽂혀져 삼면벽을 채우고있었고 아들은 책상앞에 앉아 조용히 책을 보고있었다.

정옥은 밤중에 일어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 얼굴을 찌뻐였다. 경관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자 그는 자기 방에서 자리를 차고 일어나 나갔고

아들도 침대우에 벌떡 일어나앉았다. 그 순간 아들이 얼굴에 번개쳐 지나간 검은 그늘이 아들을 판사람처럼 늙어보이게 했다. 아들은 어머니를 힐끗 쳐다 봤다. 런던의 정이 아들의 눈속에 흘렀다. 다음 그 눈은 엄해지고 긴장해졌다.

정옥은 그 순간까지도 그 무서운 일이 어찌하여 그렇게 빨리 왔는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다. 다만 새까만 밤, 길길이 뛰여오르는 파도속에 혼자 서있는것 같은 막막한 절망속에서 눈앞에 벌어진 사태를 멍해 보고있었다.

놈들이 가택수색을 끝내고 아들앞에 와서 옷을 입으라고 했다. 부인은 깜짝 놀라며 아들을 쳐다봤다. 아들은 방바닥에 떨어져있는 자기의 양복저고리를 내려다봤다. 어머니가 그것을 주어주고 차마 아들에게 주지 못하며 놈들에게 말했다.

《못데려가요. 내 아들은 죄가 없어요. 무엇때문에 데려가자는거요?》

《무엇때문인가구요? 당신이 모른단말이요? 누구보다도 당신이 알것이요.》

그러자 다른놈이 능청스런 어조로 그 말에 주를 달았다.

《모르시단요? 어제 새벽에 왔다간 사람과 아들의 관계를 모르시오?》

《무어라구요?》

그러다가 정옥은 얼굴이 새까맣게 죽어졌다. 기대고 섰던 기둥, 대리석처럼 탄탄하다고 믿었던 마음의 기둥이 썩은 지푸라기처럼 그 순간에야 와르르 무너져버렸다. 그는 아들의 침대모서리를 붙잡고 슬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려지는 몸을 간신히 가누고 서있었다.

아들의 얼굴이 고통스레 이그러졌다. 놈들의 빈정거림과 어머니의 얼굴빛에서 모든것을 깨달았던것이다.

《봐라, 네 어머니가 불쌍하지 않느냐?》

어느놈인가 중얼거렸다. 그 말에 아들의 눈이 노기가 번쩍었다. 침통한 빛이 어렸다.

《물론 불쌍하신 어머니요.》

정옥은 가슴에 칼을 맞는것 같은 아픔을 느끼며 아들을 쳐다봤다.

《당신들은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요.》

아들이 격해져 부르짖었다.

《뭘이?》

아들은 어머니의 손에 있던 양복저고리를 어느새 가져다 단추를 채웠다.

《갑시다.》 아들이 먼저 한걸음 나섰다.

부인은 깜짝 놀라며 아들을 쳐다봤다. 자기가 저지른 파오가 얼마나 무서운것인가를 온 심장으로 깨달으며...

《진규야.》 하고 아들앞에 다가서 아들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 겁에 질린 눈으로 아들을 쳐다보며 무언가 말을 하고자했으나 숨이 꺾켜 막히며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

아들은 자기 팔을 쥔 어머니의 여윈 손을 꼭 쥐고 부드럽게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 저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지금도 원하십니까?》

정옥은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눈물어린 눈으로 아들을 쳐다보며 《아니다, 아니야.》 하고 간신히 대답했다.

《어머니, 똑똑히 보셨지요? 이젠 제 말을 믿으실 것이예요. 전 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시고 옳은 길을 찾아 새 출발 하시리라 믿어요. 지금까지는 길 아닌 길에서 헤매셨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제 걱정은 조금도 마시고...》

정옥은 아들을 놓아주었다. 주린 승냥이떼처럼 아들을 앞세우고 희희낙락해 마당으로 나가는 놈들과 그들앞에 걸어나가는 아들의 모습이 대문밖에 사라진 뒤에도 그는 텅빈 대문간을 향해 오래 오래 서있었다.

× ×

정옥은 지금에 와서야 모든것을 똑똑히 이해할 수 있었다. 월손의 가면이 그의 눈앞에서 홀랑 벗겨져버린것이다.

남편의 연구사업을 교활하게 방해하고 그것을 흠쳐갔을뿐만아니라 남편을 잡아간 원수, 그것도 모자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그가 진리의 길에 들어섰다고 하여 《구원》이요 《보호》요 하면서 그 깨끗한 새싹을 짓밟지 못하여 날뛰는 철천지 원수, 그 징글스러운 원수놈이 간교한 수단으로 자기를 나누었다는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자기뿐아니라 윤주도 또 다른 많은 어머니들도 그의 검은 마수에 걸려 길을 잘못들고있음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정옥은 오싹 소름을 느꼈다. 먼 옛날 월손만이 알고있던 학생들의 독서모임이 탄로되었던 일이 머리속에 번개쳐왔다. 그때 그가 학생들의 비밀을 지켜주며 그렇듯 관대한체한것도 사실은 학생들의 움직임을 탐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것을 이제야 명백히 깨닫게 되었다.

월손을 하늘에서 갓 내려온 선녀처럼 우러러보던 그 시절, 월손이 자기 집마당에서 꽃을 꺾었다고 어린것의 팔목을 빼가 부서지게 비틀어주었다던 그 사실도, 그때엔 오해로 알았던 그 사실도 오해가 아니라 진실이었겠다는것을 이제 와서야 똑똑히 깨달았다. 새까맣게 질려 비명을 지르는 어린것의 팔목을 이를 악물고 비틀고있는 월손의 독살스런 눈알이 보였다.

《한국》의 새파랗게 자라는 새싹들을 바로 그렇게 밀뿌리채 모조리 이를 악물고 비틀어뽑고있는 월손을 이제야 보았다.

정옥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저도모르게 벌떡

일어선 그는 거기 어디 월손이 숨어있거나한듯 황황한 눈으로 방안을 휘둘러보았다. 그는 마루로 나가 벽에 걸린 예수 초상을 와락 내려 그것을 머리우까지 쳐들어 힘껏 내동댕이쳤다. 우리가 박살나고 액들이 깨여지고 예수의 얼굴이 찢어지고 구멍이 뚫어졌다. 정옥은 그 얼굴을 짓밟으며 자기 방으로 미친듯이 들어갔다. 침대앞에 걸린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도 내려 마루에 내던졌다. 십자가로 예수도 채 깨여지지 않은것을 보자 그는 이를 부드득 갈며 마루로 도로 나와 그것을 다시 마당에 내동댕이쳤다. 마당 세멘바닥에 떨어지며 예수의 허리가 분질러지고 팔다리가 휘어든걸 보고서야 아들의 방으로 힘하니 건너갔다. 거기에도 무엇이 없는가 살피는듯 불이 풀풀 이는 눈으로 방안을 휘둘러보고는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하자 돌아서 바깥을 내다봤다. 무서운 격투를 끝낸 뒤처럼 숨이 차 험뻐이며 찢어지고 깨여지고 우그러진 예수의 얼굴과 십자가를 내다보았다. 가슴이 시원했다.

정옥은 마음이 좀 진정되자 아들의 침대우에 걸터앉았다. 눈앞에 보이는 방안 물건들을 다시금 찬찬히 여겨보았다. 침대밑에 후줄근히 내려져있는 아들의 이부자리, 온 방안에 널려있는 책들, 넘어진 의자, 짓밟혀 더러워진 아들의 옷들과 그림들, 그 모든것이 자기에게 구원을 청하는것 같았다. 정옥은 저머내는 아픔을 가슴에 느끼며 그것들을 멀거니 내려다봤다.

바로 그 순간에 아들 진규가 하던 말이 귀에 쟁쟁 들려왔다.

《선교사들이란 정찰병들입니다. 침략과 략탈의 최전선을 담당한 길안내자들이지요. ...우리에게 굴욕과 맹종을 가르치고 숭미사상으로 우리네 자존심을 병들게 하고있는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렇다. 미제는 《원조》와 《구원》을 내걸고 이 나라의 심장을 뽑아가고 민중의 얼을 쪼먹는 천하에 둘도 없는 략탈자이며 침략자이다.

(내가 이것들을 지키리라, 아들이 사랑하고 자부하던 모든것을... 아들의 마음도 내가 지켜 아들이 하던 일을 대신하리라.)

정옥은 스스로도 놀랄만큼 자기의 힘과 의지를 느끼는것이였다. 그는 가슴속에서 약동하는 심장의 세찬 맥박을 느끼며 혼자 중얼거렸다.

(그래 일어서야지. 내자신이 이 집의 기둥이 돼야 해...)

이렇게 마음다지자 비로소 속이 후련해지며 큰 숨이 후우 나갔다.

정옥의 갱생하는 마음을 엿보려는듯 아침햇빛이 창문으로 밝게 들이비쳤다.

혁명송가와 함께

김정춘

해빛도 보지 말라고, 별빛도 보지 말라고
더는 투사의 목소리 남녘땅에 울려가지 못하라고
백열등 고열속에 소리없이 사멸하라고
원쑤는 가두었다, 독감방에-

쓰러졌는가, 질식했는가? 남녘의 투사,
아니다! 세멘트바닥에 끄으는 쇠사슬소리
불굴의 투사의 숨결소리런듯-
오, 쇠감방을 치며 터지는 노래소리, 노래소리
투사는 노래로 혁명가의 삶을 계속하여라

악형에 그 얼굴 이지러지고 눈조차 보이지
않아도
악형에 그 팔다리 부서지고 운신조차 못해도
어려울 때 기쁠 때 그 언제나 부르던 신념의
노래
그 노래만은 고동치는 심장에 남아있어
투사는 삶의 전부인 노래를 부르노라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욱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그 노래부르면 머리우엔 푸른 하늘이 열리고
행복하다! 줄기줄기 쏟아지는 양기로운 해살!
부드러이 따스히 그를 애무하는듯
악형의 모진 상처 가지여지고
봄종다리 우짖는 푸른 잔디밭을 걸어가는듯
해 비치는 여름바다가 백사장을 걸어가는듯

노래부르며 미소짓는 그 앞에
뜨거이 뜨거이 어려오는가
산기슭 광산마을 아지트의 밤,
아버이장군님 그 음성 록음으로 들으며
아, 장군님! 언제면 우리 아버지 그 품에 안기오

리까!

그리워 그리워 그 음성 다시 소중히 안으며
끓는 심장에 결사의 맹세 다지던 그 밤이여,

...파도설레는 다도해 섬마을 바다가에서
학비없이 쫓겨난 아이들을 불안고
-통일되면 너희들도 마음껏 공부할수 있단다...
북녘을 우러러 불멸의 혁명송가 배워줄 때
희망에 넘쳐 따라부르던 눈물어린 그 맑은
노동자 여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 가르치심대로
힘을 합쳐 자주통일 이룩해갑시다
원쑤를 세상밖으로 내칠 노한 가슴들앞에
낮으나 힘있게 노래를 선창할 때
-동지! 함께 싸웁시다!
손에 손을 맞잡고 노래를 합치던 그 얼굴, 그 모
습들이여,

아, 혁명앞에 필승의 기치되어 영원할
투사의 심장이 간직한 혁명송가는
걸음마다 원쑤를 전몰케 하며
천만투사를 낳아 남녘을 키운 노래!

...독감방-
한줄기 해빛도 별빛도 없어
깜깜 어둠이 앞을 막아도,
악형에 몸이 찢겨 가루되어도
그 노래와 함께 있는 투사는 죽지 않는다!
그 노래와 함께 남녘혁명엔 전진한다!

죽쇄에 묶인 손 가슴에 얹고
통일의 새아침 눈에 그리며
불멸의 노래높이 거연한 투사!
이 시각 남녘의 영웅투사는
혁명송가를 간직한 붉은 심장으로
어둠을 산산이 짓조기며 온 남녘땅천지에
태양의 찬란한 해발을 안아올리도다!

이 땅을 지켜, 조국을 지켜...

김정호

무성한 숲을 흔들며
불어오는 바람도,
들에서 풍겨오는 난알향기도
살들하게 가슴에 흘러들어,

내가 밟고선 땅,
노래의 봄빛 비낀 저 푸른 하늘
아름다운 생활 아름다운 미래가 마주 웃는
어머니 조국땅이여

스스로 얻은 이 땅이 아니다
스스로 차려진 행복이 아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속에서
사람마다 누리는 참된 삶
고난의 길에, 시련의 나날에 피로 전취한
우리의 조국
우리의 행복

창조와 건설의 노래흐르는
이 땅 이 하늘가에 화약내가 풍겨온다
미군철거의 연막뒤에서
또다시 전쟁열에 미쳐날뛰는 미제원썹들

궁지에 빠진 박정희피뢰를 부추기며
대양의 한끝에서까지
무거운 닻을 올리고
온갖 살인무기를 끌어들인다
50년 6월의 그 폭탄을
행복이 꽃핀 락원의 이 강산에 던지려고

안된다!
안된다!
미래앞에 깨끗한 마음과 근면한 땀으로
쌓으며 가꾸며 빛내여가는

자립의 억센 탑들도,
너울치는 금나락의 전야도,
푸른숲속 소년단야영소의 흰 천막들도
다치지 못한다, 다칠수 없다!

아, 세월이 흐르고 흘러갈수록
위대한 수령님 모시고 천만년 살아갈
한없이 귀중한 조국,
원썹놈들 미쳐날뛰수록
더더욱 소중한 이 땅,

사랑하는 조국이 없이는
더 좋은 미래와 웃는 오늘이 없고
우리의 삶이 없으리
백두림산마을에서 떠난 렬차의 기적소리
다도해기슭까지 울려퍼질
환희로운 그날도 없으리

기억하라, 미제와 박정희역적들아
정의를 사랑하며 갈망하는
조선인민의 분노가 어떤것인가를,
이 땅에 침략의 무리들이 남아있을곳 없거니
당장 나가라, 미제침략자들아
우리의 남녘땅에서
네놈들이 끌어들인 살인무기를 걷어가지고.

아, 조국이여 어머니 땅이여
그대의 오늘을 지켜
그대의 미래를 지켜
일당백 우리 인민은 서있다
원썹의 무리를 쓸어눕히고
우리는 인민의 락원을 세우리라
한 강토우에
한 조상의 땅우에!

뜻이 깊은 대사

김용부

문학예술작품에서 대사는 작품이 제기하고있는 사상적내용을 정확하고 풍부하게 전달하는 역할과 함께 시대의 본질적특성을 체현하고있는 등장인물들의 정신도덕적면모와 기질적인 특성을 독특한 말투와 억양으로써 표현하는 개성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그러므로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심오하게 전달할수 있는 뜻이 깊은 대사를 쓰며 인간성격의 핵을 예리하게 부각시킬수 있는 훌륭한 대사를 쓰는것은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높일수 있는 결정적고리의 하나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69년 8월 18일 영화일군들을 만나시고 혁명적영화창작에서 깊이있고 심각한 좋은 대사를 쓸데 대하여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뜻이 깊고 심각한 대사란 바로 정치성과 예술성이 결합된것으로서 내용이 좋고 예술적으로 다듬어지고 사상정서적으로 공감을 주는 대사를 의미한다.

그것은 작품이 제기하는 사상적내용을 심오하게 일반화하며 육체적생명보다 정치적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고상한 정신적면모를 깊이있게 보여주고 독자들을 사상정서적으로 공감시키게 해준다.

그러므로 문예작품창조에서 뜻이 깊은 대사를 쓰는것은 자못 중요하다.

뜻이 깊은 대사, 철학적인 대사로 되자면 우선 정치성이 강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한 예술영화를 보시고 영화는 어디까지나 군중교양에 목적이 있기때문에 어느 하나의 대사에도 정치성이 강해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혁명투쟁의 진리를 가르쳐주며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정치성이 강한 대사는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정치성이 강한 대사를 쓰기 위해서는 우선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영광으로 빛나는 혁명과 건설의 한길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그것을 빛내이도록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신뢰의 감정, 해와 달이 다하도록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 한분만을 모시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충성심과 혁명하

는 세대로서의 확고한 계급적자각을 사상성과 예술성의 통일속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때 그러한 대사는 레외없이 정치성이 강한 대사, 당의 유일사상체제가 확고히 선 대사로 된다.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소설로 옮긴 장편소설 《피바다》에서 별채마을로인의 대사는 좋은 실례로 된다.

《아무데 가나 마음불일만한 고장이 따로 있겠소만 저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마을에 가서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설한풍 스산한 피바다속에서 기동처럼 민던 남편을 잃고 류랑의 길에 오른 순녀에게 별채마을로인이 하는 이 대사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따사로운 그 품속에서 살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과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있다.

혁명문학이 창조해야 할 대사의 정치적인 품위는 바로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의 마음이 대사속에 사상적알맹이로 깊이 심어질 때 비로소 높아질수 있다.

대사의 정치성을 보장하고 당의 유일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대사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심원하게 반영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이 대사에 정확히 반영될 때 그러한 대사들은 정치성이 강한 대사로, 뜻이 깊고 심각한 철학적인 대사로 되는것이다.

생활적인 대사를 쓴다고 하면서 아무것이나 망탕 옮겨놓아서는 안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말은 될수록 로동자, 농민이 알아들을수 있는, 그들자신이 쓰는 쉬운 말로 해야 합니다.》

대사를 알기 쉽게 쓰자면 외래어, 까다로운 번역투, 장황한 서술문들을 쓰지 말고 로동자, 농민들이 늘 쓰는 고유한 우리 말을 잘 살려 써야 한다.

로동자, 농민이 쓰는 쉬운 말, 생활적이며 형상적인 대사속에 정치적의의를 충분히 부여했을 때 그러한 대사들을 주체적문학예술이 요구하는 대사창조의 기본요구를 훌륭히 구현했다고 말할수 있다.

알기 쉬우면서도 뜻이 깊은 대사창조에서 제기되는 이와 같은 원칙적요구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대사의 깊이와 진실성을 담보해주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최대한으로 탐구리용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사건전개와 현상자체에 대한 지루한 설명과 라렬을 극복하고 작품의 주제사상과 성격형상의 핵을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종자실현의 담당자들인 작품의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의 모든 대사에는 사상적알맹이가 깊이 뿌리박혀있어야 한다.

사상적알맹이가 배겨있지 않은 대사는 아무리 화려하고 미끈한 대사라고 하더라도 사실에 있어서는 하나의 자질구레한 설명에 지나지 않으며 뜻이 깊은 대사로 될수 없다.

우리 말에 《씨먹은 말》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씨먹은 말》-이것은 바로 내용이 허약한 장황한 설명이 아니라 뜻이 깊고 심각한 이야기를 담고있는 철학적인 대사를 두고 한 말일것이다.

우리는 한마디의 대사를 쓰면서도 종자를 형상적으로 더 잘 꽃피우기 위한 방향에서 사색하고 탐구해야 하며 대사의 마디마디에 작품의 사상적알맹이가 깊숙이 들어가 박히도록 심오한 사색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사속에 종자를 심어주면서도 반드시 점차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문학적인 이야기의 극적인 심화과정을 따라 대사의 질적인 성격도 변화발전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 회미하던 종자의 룹곽도 점차 확연히 나타나다가 완전히 밝혀지도록 대사를 쓸수 있을것이다.

많은 경우 종자가 명백히 안겨오는 작품들을 보면 이야기의 첫머리에 심각한 문제성을 담은 대사를 주고 마감대목에 가서 그를 해명하는 대사를 주고있다.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제1부)에는 처음 부분에서 《아, 나같은게 뭇하러 세상에 태어났을가!》하는 엄숙하고도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대사를 주고있다.

이에 대하여 소설의 마감 부분에서는 주인공의 생각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해답을 주고있다.

《나는 지금 뭇뭇이 말할수 있다. 나는 온 세상을 향하여 소리높이 말할수 있다. 한평생 우리의 장군님, 우리의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혁명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작품의 처음에 제기한 문제를 마감에 가서 주인공의 대화나 생각을 통하여 이와 같이 의미심장하게 해명하는 수법은 종자가공에서 확실히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단편소설 《자기 위치 앞으로》도 우리들에게 많은것을 시사하여준다.

소설의 첫대목에는 기사장에게 하는 지배인의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기사장동무는 지금 자기가 어떤 위치에 서있는가를 생각해봐야겠소. 중대나 소대가 아니라 한개 사단을 책임진 참모장의 립장에서말이요.》

작가는 이 대사에서 작품이 제기하고있는 심각한 사회적문제 즉 우리 시대의 지휘관-참다운 일꾼들이 서야 할 위치문제를 전제로 설정하였다.

작품의 마감대목에는 기사장에게 하는 지배인의 다음과 같은 대사가 주어지고있다.

《기사장동무,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일꾼들이 항일유격대의 지휘관처럼 언제나 로동자들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소. 우리 지휘관들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싸우는 전사들곁에, 전호속에 같이 있어야 하요. 그러나 지난날 우리는 그들과 너무도 멀리 떨어져지 내왔소.》

이 대사는 우리 시대의 일꾼들이 서야 할 위치를 가장 정확히 해명해주고있다.

그리하여 이 작품은 모든 지도일꾼들이 항일유격대지휘관들처럼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한다는 종자를 생활적으로 명백히 밝혀줄수 있었다.

대사는 또한 반드시 성격적인 대사로 되어야 할것이다.

성격적인 대사란 바로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의 전형적인 성격을 개성화의 원칙에서 집중적으로 보여준다는것을 의미한다.

작가가 작품에서 주장하고있는 사상적내용을 심화시킬수록 등장인물들의 성격적특질은 더욱 두드러지며 주인공들의 성격적특질의 본질을 명료하게 까밝힐수록 창작가들의 주장은 명백해진다. 그것은 작가가 작품에서 제기한 주장은 주인공의 성격발전과정을 통하여 심화되고 해명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뜻이 깊은 대사, 정치성이 강한 대사를 만들려면 주인공의 주도적인 성격적특질이 반영되어있는 성격적인 대사를 창조해야 한다.

이때만이 우리가 창조한 모든 대사는 깊은 뜻을 담고 독자들에게 사상정서적인 공감을 줄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빛내여가기 위하여 육체적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적혁명가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비반복적이며 개성적인 대사로써 폭넓게 일반화해주어야 할것이다.

뜻이 깊은 심각한 대사는 또한 작품의 극적정황과 어울려야 한다.

극적인 정황은 극적인 대사를 배태하고있으며 극적인 사건은 철학적이며 뜻이 깊은 심각한 대사를 낳는다.

만일 극적계기와 맞물려있지 않고 생활의 진실을 떠난 심각한 대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구호에 불과하며 참된 의미에서의 대사는 아니다.

아무리 깊은 뜻을 담고있는 대사라도 극적인 계기를 충분히 지어주기도전에 서둘러 준다면 독자들에게 응당한 사상정서적공감을 불러일으킬수 없다.

그러므로 대사에 종자의 내적요소들을 심어준 다음 그것을 극적정황과 단단히 밀착시켜 문학적인 이야기속에 밀어넣어야 한다.

뜻이 깊은 대사, 정치성이 강한 대사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또한 추상성, 류형성을 극복하고 생활적으로 진실하고 소박하게 안겨오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인간생활을 논리적인 개념으로 아니라 형상적으로 반영하는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의 본질적요구로부터 제기되는것이다.

그러므로 대사는 어디까지나 생활을 반영해야 하며 형상적으로 되여야 한다.

형상적인 대사, 이것은 대사의 정치성을 더욱 보강하고 강조해준다.

대사창조에서 정치성을 강조한다고 하면서 추상적인 개념을 직선적으로 해설한다면 그 작품은 형상의 꽃을 만발하게 피울수 없으며 반대로 형상성 일면만 강조하고 사상성을 무시하면 주체적인 혁명문학의 근본사명을 저버릴수 있다.

동맹소식

충성의 노래들이 많이 창작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에게서 광범한 인민들이 부를수 있는 혁명적이며 통속적인 노래가 필요합니다.

혁명적인 노래는 인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입니다.》

지금 시인들속에서는 전체 인민들을 주체사상으로 교양하고 그들의 사회주의건설투쟁을 힘차게 고무추동할 충성의 노래를 훌륭히 창작하기 위한 전투들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시인들은 무엇보다도 온 나라를 혁명적열정으로 들끓게 할 혁명적인 노래를 훌륭히 창작하는

그러므로 작가들은 문학예술작품의 대사창조에서 반드시 추상적개념의 생경한 로출을 피하고 형상의 옷을 입히기 위하여 형상창조의 모든 수법과 수단들을 최대한 탐구리용하여야 한다.

문학작품의 모든 대사는 진실하고 소박해야 한다. 구수하고 생활적인 대사속에 심오한 사상을 담아야 한다.

진실하고 소박한 통속적인 대사, 우리 인민들이 흔히 쓰는 씨먹은 말속에 시대를 비쳐줄수 있는 큰뜻이 담겨져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창작가들은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인민들의 언어생활을 깊이 연구하여야 하며 생활속에서 뜻이 깊은 대사를 찾아내기 위하여 늘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인민들속에서 널리 쓰이는 속담, 성구들을 깊이 연구하고 적극 리용하여야 한다.

오늘날 대사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은 우리 문학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정치성이 강하면서도 예술적으로 다듬어진 깊은 대사를 쓰는것은 우리 문학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며 공산주의 새 인간학의 높이에 끌어올리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 작가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성스러운 임무를 자각하고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밑에 충성의 총돌격전을 벌리고있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훌륭히 반영한 문예작품창작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야 한다.

데서 선결조건으로 되는 명가사창작에 온갖 심혈을 쏟아붓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충성으로 일관된 《수령님 모시고 통일만세 부르자》(안창만 작사), 《만풍년의 생명수 넘치게 하세》(전병구 작사), 《행복의 풍년셈》(백하 작사)을 창작 완성한데 뒤이어 백하, 안창만, 송찬웅, 안정기, 김성조, 전병구 등 시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칭송하는 가사들을 비롯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 이바지할 혁명적인 가사창작에 계속 충성의 열정을 다 기울이고있다.